금주의 법구-〈법구경〉
해서는 안될 일은 행하지 말라.
해서 안될 일을 행하면
반드시 번민이 따른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2월 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7호 2016년 3월 9일 수요일

“내려놓으란 것 조차도 놓아라”

4개국 불교명상 대가 담론 펼친 무차법회 열기 ‘후끈’

한국 태국 대만 호주 등 4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급 불교 명상 선지식이 한자리에 모여 명상을 주제로 무차법회를 펼친 ‘2016 세계명상대전’이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명상대전의 하이라이트는 4명의 선지식이 초기불교와 간화선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법담을 나눈 ‘무차토론회’다. 이 자리에는 한국불교 간화선을 대표하는 혜국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 태국의 ‘왓 프레담마람’ 수도원장인 아잔 간하 스님, 호주 보디댜나 명상센터 수도원장인 아잔 브람 등 3명의 고승이 열띤 의견을 나눴다.

2016세계명상대전,
2월 25일~28일 1500여명 참가
혜국스님, 아잔간하, 아잔브람,
심도선사 법문 및 수행 지도

이 자리서 혜국 스님은 “모든 업이란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업이 나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 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착각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놓아버리면 없는 것”이라며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부도를 낸 사람은 자기가 부처임을 잊은 사람이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흙수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잔 브람도 “공은 생각하기에는 쉽지만 알기는 어렵다. 스승인 아잔차 스님께서는 수행 하는 것은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것”이라며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라 끝없이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깨달음에 대해 피력했다.

아잔 간하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들려줬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걸 얻고 있는데, 남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줄 때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걸 알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하루 늦은 26일 행사장에 도착해 무차법회에는 참석하지 못한 대만 영취산 불교교단 선원장 심도 선사는 “우리는 참선 수행의 목표를 잘 알아야 한다. 바로 열반, 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무상의 공부 핵심은 무라고 말한다. 무의 경계에 들어서지 않으면 무상열반에 들 수 없다”며 “호흡을 관찰하고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을 호흡에 두어라. 이 호흡에 안주하라. 호흡하며 알아차림을 느껴라. 몸과 어깨에서 힘을 빼며 마음을 편안히 갖고 고요함을 느껴라. 모든 세포의 힘을 느끼고 즐거움과 환희심을 느껴라”고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설했다.

사회를 맡은 조직위원장인 각산스님(참불선원장)은 “한국이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고승이 최초로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번 행사 개최의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해발 1340m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 마운틴 탑에서는 핸드프린팅 행사가 진행됐는데, 세계 고승들이 남긴 핸드프린팅 동판은 하이원리조트 하늘길 입구에 설치된 명상쉼터에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정선=김주일 기자



‘2016 세계명상대전’이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서원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26일 김천 직지사에서 제5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입재고불식을 진행했다. 고불식에는 남행자 56명, 여행자 26명으로 총 82명이 참석했다. 수계교육 참가자들은 고불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이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단과대로 확대

경찰사법대학 개편… “사회안전 교육 · 연구 중심” 자리매김

동국대(총장 보광)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안전 분야 전문가 육성에 나선다.

동국대는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간부를 포함한 사회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경찰행정학과를 단과대학인 경찰사법대학(College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월 29일 밝혔다.

196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경찰간부 및 교수 등을 양성, 한국 사회안전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쌓아왔다. 50년 간 경찰간부 양성에 주력하며 형사사법기관 및 국정원, 감사원 등 꾸준히 교육영역을 확대해 온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사회안전 분야 전반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단과대학으로 개편,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동국대는 경찰사법대학이 한국사회 전반의 안전문제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핵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경찰행정학과를 경찰행정학부로 개편하고, 경찰학 · 산업보안 · 범죄과학 · 교정학 등 4개의 세부전공을 신설했다.

경찰학 및 교정학 전공은 형사사법기관 중견간부 양성에 특화되고, 산업보안 및 범죄과학 전공은 사회안전 분야 융복합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특히, 산업보안 및 범죄과학전공은 경찰학 및 범죄학을 기반으로 통계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화학공학, 의학 및 심리학 등을 아우르는 통섭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동국대는 공공안전 및 산업보안 분야 우수인력 양성과 함께 사회안전 전 분야에 관한 産 · 學 · 官 융합연구가 활성화되면, 본격적인 R&D 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는 오는 2017학년도 입시부터 경찰사법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며, 입학정원은 정원 외를 포함해 80명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출가 동영상 공모전 개최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 1~3분 이내 영상

‘출가 진흥 원년’을 선언한 조계종이 출가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출가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일반인들의 참신한 생각을 반영한 동영상 발굴을 위하여 출가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월 2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출가에 대한 관심과 출가를 장려하는 내용이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개인, 팀 또는 단체로 참여가 가능하며, 복수 제출도 허용된다. 공모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제작방법은 모든 형태의 동영상으로 파일형식 및 파일크기 제한 없으며 1~3분 이내의 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당선작 발표는 6월 3일에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명(팀)에게 상금 500만원, 우수상 1명(팀)에게 상금 300만원, 장려상 2명(팀) 상금 각 100만원으로 총 상금 1,000만원이다.



공모방법은 참가신청서와 함께 공모작을 이메일(budhadream@buddhism.or.kr) 로 송부하거나 조계종 교육원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02)2011-1810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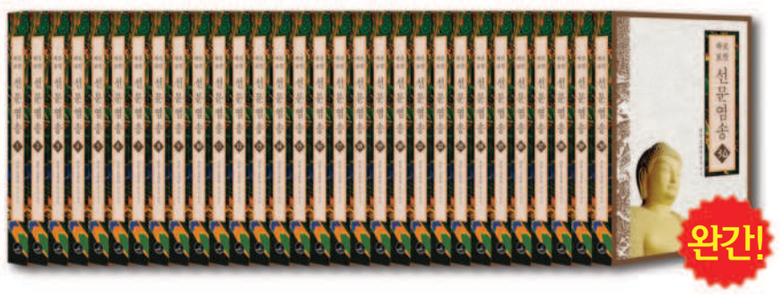
1087호 INDEX

인터뷰 4
동국대 불교대학 첫 석좌교수 성운 스님



시방세계 5
삼광사 〈힐링치유문화공감〉 콘서트
도반의향기 14 · 15
(주)마인드디자인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 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끼뿔 자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맑고향기롭게 4대 이사장에 덕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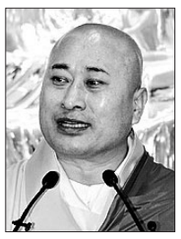
2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서

맑고 향기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 제4대 이사장에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사)맑고향기롭게는 2월 26일 서울 길상사 소강당에서 '제31차 2016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 · 2015년 사업결과 및 결산 ·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의 안건을 다뤘다.

총회에서는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사진〉을 비롯해 총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신규임원으로 선출했다. 이어 덕일 스님을 법인 4대 이사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덕일 스님은 전 이사장 덕운 스님 등 전임집행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길상사에 더욱 뿌리 내리고,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데 협력하자"면서 "외형뿐만 아닌 내실을 다지고, 법정 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덕일 스님은 2000년 합천 해인사에서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5년 순천 송광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강남 봉은사 포교사회국장과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과장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종자연, 총선 '낙천 대상 후보자' 명단 발표

정교분리 · 종교중립 위반 주장… 새누리 7, 더민주당 3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20대 총선 낙천 대상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2월 26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정교분리, 종교중립 위반으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20대 총선 예비후보자"라면서 낙천 대상 후보자 명단과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김을동(새누리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박성중(새누리당), 안상수(새누리당),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이윤주(더불어민주당), 이재오(새누리당), 이혜훈(새누리당), 주대준(새누리당), 황우여(새누리당) 총 10명(새누리당 7명 · 더불어민주당3명)이다.

종자연은 "공직자로서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한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종자연이 제시한 7가지 심사기준에 따른 것이다. 심사기준은 △공직자 임면이나 징계 시 인사권자나 인사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 말 것 △직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 개종을 권유하지 말 것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내용의 정책이나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행위를 하지 말 것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됐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수익사업 전담부서 생긴다

사업부 창설 골자 '총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에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사업부가 신설된다. 조계종은 최근 사업부 창설을 골자로 하는 '총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 입법예고 했다. 사업부는 조계종 수익사업의 연구 및 기획, 사업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부 개설은 그동안 80%에 달하는 종단 재정의 분담금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업부 개설로 인해 조계종 유휴자산 활용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조계종은 2010년 조계종 출판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산하에 유통사업부를 두어 수익사업을 진행해왔다. '감로수' 브랜드 생수사업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억 1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으며, 달력 판매 또한 2011년 대비 두 배 이상 매출이 증대됐다.

이번에 입법 총무원법 개정안 23조에 따르면 사업부는 사업국을 산하에 두도록 돼있으며, 7조와 11조에도 관련 사항을 담았다. 총무원은 이에 대해 3월 7일 부실장 간담회와 8일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종회에 송부했다. **노덕현 기자**

국민연금 지원 앞두고, 재정확보 수면 위로

[승려복지 시행 5년 점검]

국민연금 혜택에도 가입 저조
"소득편차, 무소득이 주원인"
2017년 4억 여 원 재정 소요
승려복지회 '승보공양' 전개



2011년 12월 조계종 지정요양시설 묘희원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이 첫 수혜자 대원 스님에게 요양비를 전달하는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승려복지제도 도입 5년차를 맞아 국민연금 지원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재정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최근 승보공양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승려복지회의 본격적인 승보공양운동 전개는 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앞두고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한 요인이다.

승려복지회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 지원을 시작해 첫 해 30%, 2018년 50%, 2019년 100%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스님들은 젊은 스님들을 포함해 8300여 명에 달한다. 승려복지회는 첫 해 2000여 스님들의 국민연금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약 4억 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원 부담이 늘어남에도 승려복지회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지원 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가입이 승려노후복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스님들의 국민연금은 매달 3만 6000원 씩 10년간 납부해 432만원을 내면 평생 매달 12만원을 받는 제도다. 스님들의 평균수명을 계산하면 1500만원 가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종단 요양병원 및 수행마을 구축 등 종단차원의 복지제도 마련과 별개로 국민이기도 한 스님들이 국가복지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승려복지회가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금까지 개별 스님들의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2016년 신년계획안의 승려복지 현황에 따르면 스님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혜숙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는 "불교계 내에서도 소득편차가 심하다. 조계종 스님 중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이하인 스님들이 43%에 달하고, 65세 이상 스님 중 고정수입없는 스님이 86%에 달한다. 스님들이 연금 가입에 대해 생각이 부족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직 불교계가 완벽하게 스님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금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사찰에서 불사를 긴축하고 연금재원을 비롯한 승려복지 재원 마련에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려복지회 측은 "연금 납부지원과 기본진료비 지원 외에도 치료비 지원, 스님전용 요양병원, 요양원 건립 등 과제는 많다. 승려복지 5년차를 맞아 승보공양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후원을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승려복지제도는 2011년 3월 10일 승려복지법 제정 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1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2015년에만 81명이 혜택을 받는 등 매년 지원 폭이 늘고 있다. (02)2011-172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태고종, 법륜사 주지직 두고 또 다시 갈등

"성원 안된 이사회 무효" vs "멸빈 문도 이사 자격 없다"

총무원장이 구속되는 등 종단 내홍중인 태고종이 총무원 청사 3층에 위치한 법륜사 주지 선출을 두고 또다시 갈등에 휩싸여 불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대륜문회 회장이라고 밝힌 대은 스님은 3월 2일 법륜사 대웅보전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6일 이사회서 신임 법륜사 주지로 보경 스님을 선출했다고 발표했으나, 현 주지 혜일 스님은 이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이사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은 스님은 "1월 19일 총 14명 중 13명 이사들이 모여 1차 이사회를 연데 이어 1차 이사회 임시의장 명의로 1월 26일 2차 이사회를 소집해 9명의 이사들이 차기 주지로 보경 스님을 선출했다"며 "2차 이사회 당시 법륜사 회의장을 폐쇄한 전 주지 혜일 스님과 추종 이사 4명이 성원 미달의 유령이사회를 열고 재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은 스님은 "혜일 스님이 또 다른 이사회를 열어 자신의 재임이 합법임을 주장하지만 이사회 구성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으라"고 강한 어조로 호소했다. 또한 대은 스님은 '멸빈으로 이사 자격이 없다'는 혜일 스님의 주장에 대해 "영우 스님은 호법원서 '멸빈 원천무효' 판결을 받았고, 운산 스님은 서울중앙지법서 징계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혜일 스님은 "법륜사는 대륜문도회 이사회를 통해 주지를 선출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1월 19일 이사회 직전까지 13명의 이사가 있었지만 이중 운산 스님과 영우 스님은 종단서 멸빈된 승려로 이사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멸빈 이사들이 퇴장하지 않고 발언을 주도해 정식 안건도 상정 못하고 폐회된 상태"라며 "이런 법륜사 문제를 종결키 위해 범산 회장 스님이 2월 23일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고 회의를 합법적으로 개최해 회장에 범산 스님이, 주지에는 본인이 다시 유임토록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혜일 스님은 "1월 19일과 2월 23일 두 번의 이사회에 법륜사 신도회 회장과 신도들이 참석해 화합적인 회의를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종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함을 금치못한다"며 "법륜사는 종단 접수를 위한 예비수단이라는 말이 이미 나돌았고, 그동안 멸빈된 사람 등 불순세력들이 음모를 시작해 너무도 염려 되고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내홍을 두고 종단 안팎에서는 이미 예견된 내홍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단 상황에 정통한 한 스님은 "법륜사는 태고종 총무원 중심부에 위치한 종단의 상징적인 사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공찰"이라며 "종단 분규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도산 스님을 추종하는 현 집행부와 그에 반대하는 운산 스님을 중심으로 한 양 세력간의 축척된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대륜문회 측은 "현재 법륜사는 신임 주지가 사찰 소임들까지 임명한 상태로, 3월 중순경 종정 스님을 모시고 새 주지 취임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주지 쟁탈권을 두고 갈등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3월 2일 당선 확정



제주 관음사 주지에 허운 스님〈사진〉이 무투표 당선됐다. 허운 스님은 3월 2일 열린 관음사 산중총회에서 투표 없이 차기 주지후보로 당선이 확정됐다. 산중총회 개회와 함께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운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관음사 산중총회는 2015년 10월 선거 당시 후보자 자격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중지됐다. 지난 2월 산중총회 절차가 재개됐으며 허운 스님이 단독후보로 나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관음사 신임 주지후보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송광사 일산분원 정혜사 주지, 서봉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장 신도시포교종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노덕현 기자

(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2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 2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 2년 졸업)
- 개 강 : 2016년 양력 3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6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수강료 1년 60만원(1학기 30만원)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5352-4692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3.1운동 정신 계승해 남북관계 개선하라"

민족화해평화 종교인모임, 2월 29일 기자회견서

'비폭력, 평화' 정신 계승해야
남북 간 신뢰 회복 '강조'
비핵화 · 개성공단 재개 촉구
"지역적 '평화' 공감대 형성하자"



3.1운동 비록력평화 정신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자며 5대 종교 지도자가 2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5대 종교 지도자들이 3.1운동의 '비폭력, 평화' 정신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계승해야 한다는 데 공의를 모았다.

민족의화해와평화를위한종교인모임(이하 민화평)은 2월 2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민족의 평화와 화해, 신뢰회복을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여는 말씀에 이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언, 성명서 낭독 등이 진행됐다.

민화평은 한반도 평화를 되찾기 위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화평은 "전쟁의 공포, 민족의 갈등과 분열 앞에서 우리는 3.1운동 당시 선조들의 민족애와 세계 평화에 대한 간절한 호소, 그리고 화해의 정신을 떠올린다"면서 "남북관계 파탄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더욱 평정심을 찾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화평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위한 비핵화 원칙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 및 개성공단 재개 △북핵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경쟁 및 안보적 이용 반대 등을 촉구하는 한편, 종교지도자들이 "3.1정신을 이어 받아 인도주의적 나눔과 교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이에 앞서 5대 종교 대표자들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발언'이 진행됐다.

불교계 대표 발언에 나선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쇄신본부장)은 "최근 남북한 상황을 보며 〈죽음으로 남긴 20세기 증언〉이란 책을 떠올렸다. 20세기 100년 역사를 통해 '미움으론 미움의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싸움으론 싸움의 문제를 해결치 못한다'는 것을 웅변한 책"이라며 "21세기 시대정신은 사랑과 평화로 남북문제를 해결할 것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 역사를 반복하는 것 같아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법 스님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분개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어른스럽게 문제를 다루되,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화와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며 "종교인들의 이러한 바람들이 정부에 잘 전달되어 지혜로운 길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종화 목사는 "3.1운동은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들은 통일을 위해 갈망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순환'이 된다.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선(善)으로 이길 때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형진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남북개선을 위한 종교인들의 참여가 이날 기자회견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사무처장은 "3.1운동 당시 종교인들이 앞장서 조국을 위해 싸웠듯 오늘날 우리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전 국민들에게 심각한 남북관계 상황과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림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수호, 호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종교인들은 민화평의 향후 계획을 제안했다. 도법 스님은 "민족의 평화 화해 운동이 국민적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을 순회하며, 많은 사람들과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화평 각 종교 대표 심부름꾼은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김대선 원불교 前 평화교구장, 김흥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박경조 前 대한성공회 서울대교구장,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인명진 갈릴리교회 원로목사가 맡고 있다.

이날 법륜 스님은 "요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는 의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서 성장한 젊은이들은 북한과 통일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반응들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대북 문제에 접근하며 '평화통일 만이 우리의 희망'이란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비구니 율사 묘엄 스님 회고전 열린다

불교박람회 '우리스님전'…발우 등 20여점



'현대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 묘엄 스님(1932~2011 · 오른쪽 사진)를 돌아보는 자리가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불교박람회)기간인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서 마련된다. 묘엄 스님은 파란만장한 근현대를 살아내며 비구니로서는 드물게 율사의 지위를 얻었고 이로 인해 여성 수행자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묘엄 스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의 식민통치와 해방, 한국전쟁 같은 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묘엄 스님의 일대기와 한국 비구니 승단의 변화를 다룬 〈한계를 넘어서〉에 따르면, 묘엄 스님은 1940년대 초중반 한반도 전역서 일어난 종군위안부 징집을 피해 당시 청담 스님이 주석한 대승사로 보내졌다. 이후 성철 스님의 조언과 독려 속에 윤필암서 출가의 길로 들어섰다. 출가 후 열정 넘치던 묘엄 스님은 봉암사 결사 구성원이 되어 한국불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기도 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은 묘엄 스님의 길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한 승단 내 분위기가 변화하며 비구 스승들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고, 공식적인 최초의 비구니 교육자로 한국불교사에 이름을 올렸다. 묘엄 스님은 또한 조계종 5대 비구니 승가대학인 봉녕사승가대학을 설립해 후학을 양성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단합과 여성 수행자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이외에도 한국불교사 최초의 비구니 율원을 설립, 비구니들에게 율장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비구니 율맥의 공식적인 전승이라는 새 전통을 세워 한국 비구니 법맥의 정통성을 확립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이번 불교박람회 '우리스님전'은 묘엄 스님의 지난 업적과 발자취를 불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수원 봉녕사 측은 '우리스님전'을 위해 묘엄 스님과 관련된 유품 및 사진 자료들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주묘엄박물관 내 전시물은 물론, 달라이라마가 선물한 불상, 묘엄 스님이 사용하던 안경과 다구, 생전 메모, 발우 등이 20여 점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묘엄 스님의 일대기에 대한 3D 애니메이션도 제작, 공개돼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불교계 최초 투자회사 '하나연' 설립

크라우드펀딩, 불교사업 투자

불교계 투자전문회사 '하나연'이 설립됐다. 하나연 장혁 대표는 2월 29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나연 출범을 알렸다.

하나연은 크라우드펀딩 전문회사 및 직접투자사로 구성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목적사업에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하나연은 불교대중화를 위해 공익을 위한 'I lantern' 사업과 수익창출을 위한 직접 투자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I lantern'은 불교 관련 문화 · 예술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나연이 진행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사찰 연등달기를 비롯한 불교소사업 지원 등 1억원 미만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투자는 힐링캠핑장, 문화사업 등 1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노덕현 기자**

年 템플스테이 참가자 13.5% 증가

메르스 여파에도 관광주간 효과 '톡톡'
내 · 외국인 모두 서비스 · 응대에 호평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2014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3월 3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정기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통계를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총 21만9438명(내국인 18만7101명 · 외국인 3만2337명)이다. 2014년 19만3388명에 비해 약 13.5%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에 불어 닥친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5월과 10월 진행된 관광주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79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내 · 외국인 모두 '인력(서비스 및 응대태도)' 부문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음으로는 시설 · 애호도 등이 꼽혔다. 전체 만족도 역시 2014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문화사업단은 올해에도 봄 · 가을 여행주간에 맞춰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사찰시설 개선과 아생여당 브랜드화, 컨설팅사업 진행 등 종합적인 부분에서 예년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며 "여름방학이나 휴가기간 등을 이용한 장기템플스테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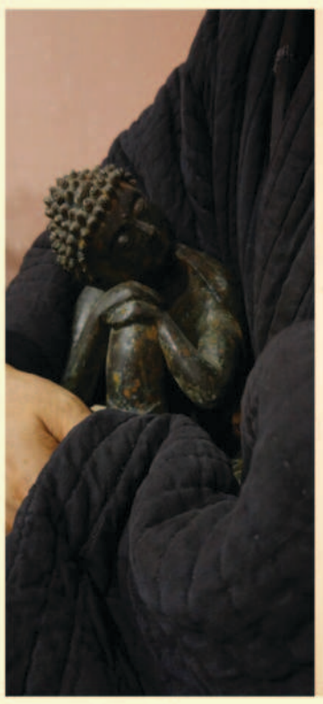
한편 문화사업단은 올해 각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우공양 운영기물을 통일하기 위해 불교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통 발우공양 운영기물'을 제작했다. 통도사 소장 천수통 및 송광사 더도리그릇 등 18~19세기 사찰에서 사용하던 기물을 참고했다. 이번에 제작된 기물은 더도리그릇(국통 · 밥통)과 퇴수통, 천수주전자, 숭늉주전자 등 5종이다. 기물은 스테인리스에 티타늄 코팅을 해 실용성을 높이면서도 전통적 느낌 살려 발우공양 취지에 맞도록 디자인했다. 문화사업단은 발우공양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사찰 20여 곳에 시범적으로 보급해 실무자 및 참가자들의 반응을 살필 예정이다. 이외에도 템플스테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을 개발, 일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발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송파 세 모녀' 비극, 또 발생하지 않길"

생활고를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2주기를 추모하는 극락왕생기도가 광화문에 울려 퍼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2월 26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송파 세 모녀 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행사는 극락왕생기도, 추모식에 이어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이웃과 함께 합심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다시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애숙 조직국장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2년 전, 정부는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가난으로 안타까운 목숨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일명 '송파 세 모녀 법'이 고인들에 대한 모독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을 비롯해 사회노동위 소속 스님 10여 명, 빈곤사회연대,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수행자라면 한 번은 참고해 볼만한 화두집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敎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드디어 출판되다..

제1見 석가를 품다
제2見 평온 초대장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4見 차 한 잔
제5見 해인 삼매
제6見 창조와 표절
제7見 야부선사 웃다
제8見 요지경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편저자
독각~진귀 (獨覺~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도서출판 왕 산
*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 주 문



혜민 스님 초청 법회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3월 13일 오전 10시 법왕루에서 혜민 스님 초청 가족과 함께하는 일요법회를 봉행한다.



본말사 신도회 임원연수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청풍루에서 본말사 신도회 임원연수를 개최한다.



정월 방생기도법회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3월 13일 남해 보리암 · 하동 쌍계사 일대에서 '정월 방생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사회복지법인 마곡 정기총회

원경 사회복지법인 마곡 대표이사 스님은 2월 26일 마곡사 연화당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인강원 후원회 법회

원철 해인사승가대학장 스님은 3월 19~20일 해인사 청화당 대방에서 '해인강원 후원회 법회'를 봉행한다.

인사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2월 29일자)

△정각원장 혜원 스님

경주캠퍼스(3월 1일자)

△정각원장 법수 스님 △불교문화대학원장 및 불교문화대학장 윤영해 △인문과학계열학장 장성재 △자연과학계열학장 겸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이영경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사회과학계열학장 박경일 △경영대학원장 겸 경영계열학장 박상범 △사범교육대학장 진대호 △파라미타칼리지학장 강현숙 △비서실장 권오윤 △기획처장 겸 경영평가실장 주재훈 △교무처장 겸 학부교육선진화사업단장 조영석 △인재개발처장 겸 인권센터장 김신재 △대외협력처장 김세곤 △입학처장 정성훈 △산학협력단장 겸 산학협력지원센터장 김규태 △국제교류처장 백설향 △정보관리실장 도재수 △도서관장 김영철 △평생교육원장 겸 생태교육원장 류완하 △교육역량개발원장 최정자 △건강증진센터장 신혜경 △동국미디어센터장 장도규 △차세대디지털미디어센터장 김의창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김상무 △산학협력단부단장 겸 벤처창업보육센터장 김상욱

BBS불교방송

△이현구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신두식 보도국 경제산업부장 △김상진 부산지방사 보도부장 △심창훈 광주지방사 총괄국장 직무대리

"동국대 최고의 브랜드는 불교"

동국대 불교대학 첫 석좌교수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실천 · 이론 겸비한 복지 포교 대부

현장 능력 지난 후학 60여명 길러

불교사회복지학회 결성, 법인화 계획

2월 26일 동국대 불교대학 110년 사상 처음으로 석좌교수가 탄생했다. 불교사회복지의 대부로 불리는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석좌교수는 한 학문에서 일가를 이룬 이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다.

3월 2일 만난 성운 스님은 "불교학의 중요성과 많은 기라성 같은 선배 불교학자들이 있었음에도 첫 석좌교수인 점이 오히려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님의 말 속에는 동국대의 종가인 불교대학에서 110년이 지나서야 석좌교수가 나온데 대한 애석함이 묻어 나왔다.

성운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분야를 개척한 선구자로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한 이후 직영기관 20개, 위탁운영기관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연인원이 800만 명을 넘는다. 스님은 이 같은 현장 역량을 바탕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내 불교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고 12년간 겸임교수로 이론과 현장능력을 고루 갖춘 후학들을 양성해 왔다. 스님에게 지도를 거친 석사들만 60여 명에 달한다. 불교사회복지란 분야를 개척한 만큼 학문적 성과도 매우 높다. 스님이 펴낸 〈사회복지실천현장론〉과 〈불교사회복지론〉 등은 불교복지를 하는 이들이 꼭 읽어봐야 할 논문이기도 하며 타 종교계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스님은 본인의 석좌교수 취임이 불교학 융성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스님은 "동국대 내에서도 사실 불교학을 한다하면 뒤쳐진 것처럼 인식돼왔다. 하지만 복지분야만 해도 〈금강경〉 사상을 담은 복지가 장점을 지닌다. 인문,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동국대 최고의 브랜드는 불교다. 불교학은 다양한 분야의 새 지평을 열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불교학에서 제2, 제3의 석좌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후학들의 연구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성운 스님은 동진출가 후 수좌가 되라는 큰 스님들의 권유에도 공부가 좋아서 상경했다. 낮에는 조계사 화장실 청소 등을 하며 ABC부터 공부해 1년 만에 조계사 일대에서 '〈TIME〉지 읽는 스님'이라 불릴 정도로 열성이었다. 갖은 어려움에 늦깎이 공부를 한 스님에게는 어렵게 불교를 공부하는 후배들의 처지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스님은 정토학회 9기 회장을 맡는 등 불교학회 활동에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성운 스님은 "일할 곳이 보장 돼야 학자들이 학문연구에 매진할 수 있고, 후학들이 늘어난다. 학자들이 학위를 받으면 활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실천가답게 스님은 현실적인 대안도 내놨다. 스님은 "불교계에 20여개 학회들은 그 수도 적지만, 재정적으로 건강한 학회는 극소수다. 재력있는 사찰들이 그 사찰의 특장점을 대변하는 학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종립학교 또한 현재 진행되는 사이버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불자들의 면학 분위기를 양성해 학자들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불교사회복지학회도 결성해 법인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끝으로 "불교사회복지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싶다"며 "불교가 이 시대 누구나 쓰는 상품이 되고, 실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으면 한다"며 원력을 다시금 세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소외 받는 청소년 보듬어 안겠다"

백명숙 (사)부산시청소년단체 신임 제 9대 협의회장



20년 넘게 청소년 활동 지원

허례허식 없애려 취임식 안해

협의회 발전 소신 펼칠 계획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청소년들입니다. 특히 소외 받고 힘든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찾아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백명숙 씨가 회원 만장일치로 제9대 회장에 추대됐다. 백 회장은 협의회 주요 과제로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꼽았다.

백명숙 회장〈사진〉은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을 역임하며 20년 넘도록 청소년 문화 활동과 포교에 앞장서왔다. 아울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회장을 맡으면서 여성불자들의 신행과 봉사활동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여성불자다. 그는 현재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운영위원, 부산청소년육성위원회 의원, 종로학원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백 회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소속된 청소년 단체들을 방문하고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소통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백 회장은 "취임식 없이 3월 2일부터 협의회사무실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소속된 단체들과 소통하고 좀 더 친근히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취임식 때 필요한 허례허식 비용을 절감하면서 소통과 청소년들을 위해 투자할 것 입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준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오랫동안 청소년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소신을 갖고 실천하며, 협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2001년 9월 창립해 현재 한국스카우트부산연맹을 비롯한 부산지역 34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하성미 기자

"조화로 국민행복에 기여해달라"

자승 스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방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예방에서 "정치,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과 평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경제 활력을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일면 스님, '한국을 빛낸 사람' 대상

2월 29일 시상식… "불교계 교육 발전 이바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2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종교발전공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6 한국을 빛낸 사람들'은 사회 · 문화 · 예술 · 종교 ·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매년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의회 등 8개 단체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이유에 대해 생명나눔 측은 "광동학원 및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생명나눔 이사장을 맡아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원국 스님, 순천불교聯 회장 취임

"침체된 지역불교 발전에 최선 다할 터"



전남 순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에 원국 스님(다연사 주지, 사진 오른쪽)이 취임했다. 순천불교사암연합회는 2월 29일 순천 승주컨트리클럽 연화장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신임회장 원국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불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삼계화택 불길 잡는 〈三界火宅〉 사찰에서의 '힐링'

삼광사, 힐링치유문화 공감콘서트
"고통 받는 이 시대 해답은 힐링"


삼광사 '힐링치유문화 공감콘서트' 참가자들이 만다라 그리기를 체험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다.

전문패널 초청해 조언 듣고
만다라 · 다도 체험 심신 안정
지역민 위한 힐링숲길 개통
"힐링이란 마음 잘 쓰는 것"

치열한 경쟁과 과도한 스트레스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부정적 현상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 'OECD 가입국 중 자살율 1위'라는 부끄러운 멍에는 좀체 떨어질 줄을 모른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우울증과 혐오 등으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은 요연하기만 하다. 부처님은 이 같은 무명중생들의 고통을 '삼계화택(三界火宅)'으로 비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문화가 바로 '힐링'이다. 나침반을 잃은 선장처럼, 지도를 잃은 산악가처럼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힐링사찰'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지역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사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뻗고 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이 지푸라기가 아닌 온기 가득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말이다.

지난 3월 1일, 삼광사는 부산과 경남 일대 시민들을 위해 지관전에서 '힐링치유문화 공감콘서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전문 패널들을 초청해 참가자들에게 힐링에 대한 참된 답을 제시하면서 명상다도체험과 자신을 찾아가는 만다라 체험, 다도 테라피 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봄의 시작을 시기하는 꽃샘추위로 인해 바람은 차고 거셌지만 부산 경남서 '힐링'을 찾아온 시민 300여 명이 지관전을 가득 채웠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패널로 삼광사 총무국장 도선 스님, 교무국장 자룡 스님, 김철민 박사(부산대학병원 항노화기술개발사업단장), 임윤선 박사(한양대 교육대학원 예술치료교육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콘서트는 먼저 힐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로 시작됐다.

도선 스님은 "힐링이란 것이 곧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잘 쓴다는 것은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바른 방법으로 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자 노력하고 잘 써야 한다"며 "마음과 몸은 이어져 있다. 욕심내지 않고 주위와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곧 힐링이고 건강의 비결이다"고 운을 뗐다.

김철민 박사는 "100세 시대이자 고령화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행복하려면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윤선 박사는 △한국인의 문화심리 특성 △한국사회의 심리문제와 현황 △심리치유의 필요성 △심리치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임윤선 박사는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상호의존적 집단중심문화'와 '체면중시 경향' '수동-공격성 성향'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 박사는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창작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을 표출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예술 치료를 권했다. 예술작업을 통해 대상의 문제점이나 상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예술활동 과정 속에서 내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설명을 들은 참가자들은 각자의 속앓이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한 참가자는 "나이가 60인데 남편이 지금까지 밖으로만 돌고 집은 외면한다. 자식들에게는 숨기기만 하고 내 속만 타 힘들었다"며 "최근에 친구에게 털어 놓고 실컷 울었더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이것이 맞는 방법인가?"라고 질문했다.

자룡 스님은 "잘하신 방법이다.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고 응원군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위로했다. 이어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밖으로 도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인정하며 서로를 위한 소통법을 개발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토크 콘서트 이후 참가자들은 삼광사 천태다도보존회에서 마련한 부대행사에 참여했다. 명상다도체험, 만다라 체험, 다도 테라피 등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만다라 명상은 참가자가 그림에 색칠을 하면 미술 치료사가 직접 감정상태 및 생각을 그 자리에서 분석해줘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평을 얻었다.

엄필수 불자는 "살펴보면 정신적으로 힘들고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 공감을 얻고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뜻 깊었다"며 "특히 다도 체험 등을 통해 마음이 좀 더 안정되고 차분해지며 잡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정숙 불자는 "오늘 들은 내용 가운데 핵가족화 되면서 소통할 대상을 잃고 마음의 병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 소통과 운동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했다"며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수업 강사로 일을 하다 참여했다. 체험해보니 이런 다도와 만다라 등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패널의 조언에 따라 주변인들과 교감하고 있는 콘서트 참가자들.



3월 1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열린 '힐링치유문화 공감콘서트'

"치유는 종교의 문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종교는 치유의 문화다. 삼광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힐링사찰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지 취임 당시부터 약속했던 것으로 신도들이 괴롭고 마음이 불편할 때 언제든 삼광사를 찾아 치유 받고 평화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힐링사찰로 자리 잡은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사진〉은 고통 받는 대중을 위한 종교의 치유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무원 스님은 "경내에 조성한 힐링숲길은 편백나무와 소나무 사이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다. 힐링길을 걸으면 자연이 뿜어내는 치유물질이 몸과 마음을 맑게 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힐링의 궁극적인 힘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영혼과 가피가 충만해진다. 그것은 곧 힐링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나온다"며 "사람들은 실천 없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만 부처님 진리의 말씀은 내가 실천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광사는 힐링사찰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3월 5일 '힐링숲길 개통식'을 개최했다. 백천공원에 마련된 힐링숲길은 108참회계단부터 행복길, 동행길, 하늘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하늘전망대와 편백나무숲, 차나무숲, 불두화숲, 무문원 등 묵언명상걷기를 체험할 수 있는 산책로다. 숲길은 삼광사 뒤편에 조성된 치유공간으로 백천공원에서 극락전으로 이어져 있으며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 10여분이 소요된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으로,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제 2기)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 회장, 꼴관상 신기원 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청화학술 박청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신석우박사, 정경연교수, 김인순박사, 김민재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힐링특강-가수 김태곤 박사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목(木) 18:30 ~ 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4월 7일(목) 18:00 ~ 미래학특강(미래로 보는 세상)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과정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봄보다 먼저 온 3.1… "만해를 기억하리"

제37회 만해백일장 대상 강민지, 시 '만만한 이름'

총 1386명 참가, 시 · 산문 뽐내
초중등부 줄고 대학일반부 늘어
장원 · 우수 · 장려 등 120명 수상
한영숙 여사 "만해 魂 이어받길"


3월 1일 동국대서 열린 만해백일장 시상식에서 대상수상자 강민지 양이 만해 스님 유족대표인 한영숙 여사(사진 오른쪽)에게 상장을 받고 있다.

자줏빛 암막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에 채색되는 곳.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개구리가 든 마취 병이 놓여 있다. 마취제를 듬뿍 적신 솜. 빈틈없이 꽉 잠긴 마취 병.

힘없이 누워 있는 개구리. 네 다리는 뾰족한 핀으로 고정된다. 원소기호 외우듯 나열되는 소문들. 낱낱이 조각나는 만만한 이름들.

아이들은 입을 크게 벌려 웃고 있다. 웃음소리는 해부용 칼보다 날카롭다. 아무렇지 않게 개구리 몸을 발라내고 있다.

해부용 가위가 개구리의 얇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비릿한 약품 냄새 나는 과학실. 한쪽 벽면에서는 이미 배가 갈라진 오징어와 닭이 전시되어 있다. 테이블 위. 개구리 대신 내 이름이 잘게 해부되었다.

- 대명여고3 강민지作 '만만한 이름' -

민족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민족애와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79년 시작된 전국만해백일장. 3 · 1운동 100주년을 3년 앞둔 제38회 전국만해백일장에서 대명여고 3학년 강민지 양이 만해대상을, 노은희 씨가 만해상을 수상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3월 1일 동국대 일원에서 '제37회 전국만해백일장' 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총 1386명이 참가, 예년에 비해 초 · 중등부 참가자가 줄고 대학일반부 참가가 늘었다.

대회에서는 시 · 시조 부문서 대명여고 3학년 강민지 양의 '만만한 이름' 이 대통령상인 만해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장상인 만해상은 산문 일반부 노은희 씨가 '만만한 것들' 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교원장상은 각각 흥승연 · 양원규 씨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시 · 시조와 산문 부문서 장원, 우수상, 장려상 등 120여 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만해대상을 수상한 강민지 양은 "만해백일장의 규모가 커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업적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며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조금 더 만해 스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의성 심사위원장은 "시인 임화의 시에 '봄보다 먼저 3월 1일이 온다' 는 구절이 있다. 만해백일장은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으로 발전했다"면서 "올해는 '만만한' 이라는 주제에 결코 만만치 않은 작품이 많았다. 재미있고 눈길을 끄는 작품들 덕분에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이번 만해백일장은 총 5개 글제를 발표한 뒤 진행됐다. 중등부 및 고등부의 경우 작품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의 감독 하에 강의실에서 작품 활동이 펼쳐졌다. 총 상금은 600여만 원.

시상식에서 만해 스님의 혈족인 자녀 한영숙 여사는 "아버님의 혼과 업적을 기리는 백일장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학생들에게 직접 시상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오늘의 젊은 주인공들이 어떠한 위험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신 만해의 혼과 정신을 이어 받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만해백일장은 1979년 3월 1일 만해 스님 탄신 100주년과 민족자주독립운동 60주년을 기념해 문을 연 행사다. 만해 문학을 재조명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는 만해백일장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었던 만해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교육 황무지에 자비의 씨앗을

로터스월드, 3월 1일 캄보디아 수원마을 중 · 고등학교 착공


(사)로터스월드는 3월 1일 캄보디아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에서 중 · 고등학교 착공식을 거행했다.

'캄보디아 프놈끄라옴-수원마을 3단계 지원사업' 을 공동 진행 중인 (사)로터스월드와 경기 수원시가 막바지인 3단계 사업에 접어들었다.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3월 1일 캄보디아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에서 중 · 고등학교 착공식을 거행했다.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 수원 중 · 고등학교는 지상 1층, 2개동에 6개 교실로 설계됐다. 부속동과 위생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 연건평 8,375㎡ 규모다.

이번 신축 사업은 (재)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총괄하고, 로터스월드가 시공을 맡았다. 수원시와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 프놈끄라옴-수원마을 3단계 지원사업' 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로터스월드 측은 "문화재보호구역인 프놈끄라옴 수원마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012년부터 4년 간 문화재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압살라청 및 시엠립 주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전통 압사라 양식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빗물 활용 시설,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착공식에는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원장 지우 스님, 양진하 경기 수원시의원, 분 타리트(Bun Tarith) 시엠립 주정부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로터스월드는 2월 24일 라오스 씨엥쿠앙 덕캄마을서 '덕캄 초등학교 도서관 기증식' 도 실시했다. 지난 1월 씨엥쿠앙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지역 아동들을 위한 교육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로터스월드는 백천문화재단 지원을 받아 덕캄초등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했다. 약 300㎡ 부지에 총 2칸(72㎡) 규모다.

로터스월드 측은 "그동안 덕캄초등학교는 도서관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여 권 도서가 전부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독서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학생들이 양질의 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대학전법지원단 · 50주년 기념사업 박차

대불련총동문회, 올해 세부계획 결의
백효흠 회장 연임… "최선 다하겠다"


대불련총동문회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17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제27대 회장에 현 백효흠 회장이 연임됐다.

대불련총동문회는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 선출 및 올해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다뤘다.

회의에서는 백효흠 현 26대 회장이 27대 회장에 추대돼 연임하게 됐다. 백 회장은 지난 2013년 전임회장 선출과정서 불거진 조직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백 회장은 "여러분의 회장 연임 결정은 모두가 스스로 동문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믿고 새 집행부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이면 동문회 창립 50주년이다. 따라서 올해에 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대불련총동문회는 회의를 통해 올해 △대학전법지원단 구성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준비사업단 발족 · 50년사 편찬 · 동문회관 건립 추진 등) △사회복지활동 참여 △재정 확충 △젊은 불자 육성 △홍보 활성화 등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학전법지원단은 캠퍼스포교 공모사업 실천을 통해 대불련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각 포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어려움을 지회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불련의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불련총동문회는 3월 중 대학전법지원단을 출범하고 2차에 걸쳐 각 지회 복원프로젝트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전개해오고 있는 3 · 3 · 3운동(3000명 동문 추가 발굴, 300개 대학동문지회 설치, 대불련 · 총동문회 · (사)대불의 삼위일체)의 확대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원사업으로는 대학생 불자와 동문회원이 연대할 수 있는 전국동문대회(8월 6일 예정), 청춘토크 파티 · 명사 초청강연회(혜민 스님의 '연애도 붓다와 함께' 등)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장학사업과 군포교 지원사업, 53명찰 순례 등도 추진한다.

윤호섭 기자

하얀코끼리, 미얀마서 자비행 펼치다

2월 19~25일 해외봉사단, '쉐구지 학교' 준공식도

불교계 국제교류협력NGO (사)하얀코끼리가 미얀마로 해외봉사를 떠났다.

(사)하얀코끼리(이사장 영담)는 2월 19~25일 미얀마 해외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봉사활동 기간 동안에는 지난 10월 착공한 바고 지역 '쉐구지 학교' 준공식도 개최했다.

봉사활동은 양곤 외곽의 딴린 지역 및 바고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특히 딴린 지역 수투판 학교에서는 페인트 시공, 시설 개 · 보구, 보건위생교육, 환경교육 등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식료품 및 학용품, 의류, 컴퓨터, 축구공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해외봉사단에 합류한 최재희 씨는 "3년 전부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몸은 힘들지만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정말 즐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하얀코끼리는 2월 19~25일 미얀마 해외봉사를 실시했다.

하얀코끼리 측은 "앞으로는 7일 간 봉사활동을 넘어 연중교류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이라며 "내년부턴 현지 밀착형 봉사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과 문화교류 장을 형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4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한번 그 여자 그 남자 / 채널A 현장르포 특종세상 / MB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 tvN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찾기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가능

▶ 개강 : 3/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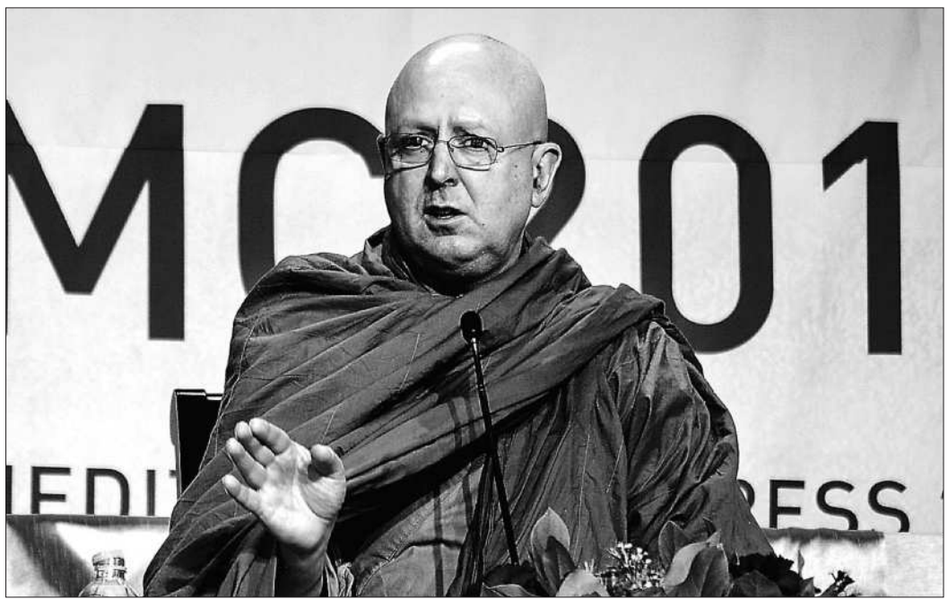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조화 속에서 지혜롭게 욕망하라

2016세계명상대전 법문 지상중계

아잔브람(호주 보디냐나 명상센터 수도원장)

금세기 최고의 불교성자들을 모시고 직접 명상수행을 지도받는 '2016세계명상대전'이 2월 25~28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홀서 봉행됐다. 이번 세계명상대전은 아잔간하(태국) · 심도선사(대만) · 혜국 스님(한국) · 아잔브람(호주) 스님 등이 부처님 가르침이란 테두리 안에서 각 나라의 수행법을 전했다. 세계명상대전 진행은 불교성자들마다 수행지도 및 질의응답 그리고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아잔브람 기조법문을 시작으로 각 불교성자들의 가르침을 지상중계 한다. 〈편집자 주〉



아잔브람은 … 파란 눈을 가진 세계적인 명상스승이며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도 출신이다. 동양의 참선을 서양으로 전파한 위대한 영혼의 성자이자 호주불교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서양인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호주의 보디냐나 수도원장으로 주석하고 있으며, 현재 수많은 서양인들에게 초기불교에 근거한 실천적인 정통 수행법을 전파하고 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불교국가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전생에 업 때이겠지요.(웃음)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부처님 법을 펼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입니다. 작년 이맘 때 소프트웨어 기업인 페이스북과 구글에서 강연을 했는데 현대사회에서 명상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에서 불교는 멋지고 쿨(cool)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세련된 불교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상을 18살에 배웠습니다. 영국 명문대인 캠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3년 후 물리학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데 친구나 가족, 선생님들은 저에게 좋은 성적이 미래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지금처럼 스님이 될 거라고 했다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웃음)

그때는 1972년으로 오전 3시간, 점심 1시간, 오후 3시간 시험을 봤는데 6일 동안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학생들에게 비해 유리한 것은 명상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점심시간에 30분정도 명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큰 혜택을 봤습니다. 오늘 그 당시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명상을 통해 뇌를 쉬게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부좌를 틀자, 제 머릿속에는 오전에 봤던 시험문제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답은 제대로 했나' 등 이제는 더 이상 답을 바꿀 수 없는 시험에 대해 생각한 겁니다. 과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를 내려놓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본 시험은 머릿속에서 내려놓고 앞으로의 오후 시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잊자 또다시 오후에 볼 시험에 대한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 머물기'이며 쉬면서 오후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으니 불안에 떠는 제 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제 몸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면 건강에 대한 걱정도 덜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병을 앓아본지는 26년이나 됐습니다. 지금도 바쁜 삶이지만 몸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제 몸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힐링 할 수 있는 겁니다. 2년 전 심한 식중독에 걸렸는데 진짜 아팠습니다. 제 토굴에서 병원은 멀었고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을 했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면서 고통이 심해졌다, 덜해졌다하는 변함을 알아차렸습니다. 고통을 컨트롤하려하니 몸은 더 아팠습니다. 알아차리다보니 피드백을 해준 겁니다. 알아차림으로 매 초마다 고통이 줄어들더니 식중독이 20분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과학도 출신입니다. 세균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세균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내 몸 장기 안에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세균과 나 사이에 순행하고 있다는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몸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캠브리지 대학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몸이 떨리는 것을 알아차리니 '내 두뇌가 피곤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물리학 시험을 보면 두뇌 연료가 급속도로 소모됩니다.

사실 많은 현대인이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동을 강요당합니다. 늘 피곤하기 때문에 회복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서 재충전 합니다. 미국 하버드에 '시간에 투자함'이란 논문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고요하게 앉아 뇌를 재충전하면 명상 후 2~3시간을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캠브리지에서 뇌를 맑게 하려고 명상 후 오후 시험을 준비했고 그 덕분에 졸업시험을 아주 잘 봤습니다. 내 경험을 토대로 '명상이 세속의 삶에 큰 성공을 이루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불교 성장세가 아주 빠릅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이는 제가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웃음)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서양서 불교 성장세 두드러져
개인의 욕망 바른가 고민하고
내려놓으면 행복 찾아오기 마련
"좋은 욕망이 멋진 세상 만든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법문을 못할 정도였지만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 기를 빨리 충전시키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주 제자들은 저를 보고 슈퍼 스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아내, 남편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결혼하면 행복해지나요? 힘들죠.(웃음)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네 다리를 가진 코끼리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동양에서는 앞다리를 남편, 뒷다리는 아내라 비유하는데 점차 그 코끼리는 뒷걸음질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부인이 결혼 생활을 리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으니 애들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애를 낳으면 아이들이 언제 말을 할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언제 입을 닥치나 생각하지 않으세요?(웃음) 이 모두가 갈망입니다. 애들을 부양하려면 일을 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행복은 몇 년 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과연 행복해 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찰과 교회에 많이 다닙니다. 죽고 난 후 행복해지시겠습니까? 이 행복은 닿을 수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갈망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멈춰서 내려놓으면 행복이 나에게 옵니다.

제 친구가 영국에서 복권에 당첨된 기사를 보내줬습니다. 4100만 파운드였습니다. 복권당첨자는 런던 남부에 대저택을 사고 1년도 못되어 큰 손해를 봅니다. 이 집을 왜 팔았을까요? 집이 크다보니 부인과 아이들 모두 각자 방에서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가족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사람을 찾을 수 있는 GPS를 서비스를 받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집이 크다보니 남편이, 부인이,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집이 가족을 파괴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살을 맞댈 수 있는 작은 집에서 함께 사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른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태국에서 수행할 때 일입니다. 주지스님이 아침 예불을 위해 대웅전에 들어갔는데 도둑이 시주함을 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은 도둑에게 "원하는 게 뭐냐. 돈이면 여기 시주함의 열쇠가 있다"고 손을 주머니에 갖다 대려 하자 도둑은 "지금 나를 속이려는 거지"라고 하며 칼을 들이댔습니다.

주지스님은 온화한 말로 "언제 밥은 먹었느냐"고 묻자 도둑은 "알아서 뭐하게"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시주함 위에 천장을 열면 음식이 많다"고 하자 도둑은 천장을 열고 음식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경찰에 전화하지마"라고 합니다. 스님은 이어 "내가 시주함 열쇠를 주고 음식도 줬는데 경찰에 연락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다른 집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 겁니다. 도둑은 10년 동안 스님을 잊지 않고 있다가 출소 후 그 대웅전에 갔습니다. 도둑이 주지스님에게 "저를 기억하십니까?"하고 묻자 스님은 "기억하지! 열쇠 여기 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저는 훔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스님을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제가 태어난 최초로 친절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음에도 필요한 돈을 가져가라고 했고, 제가 배고픈 것을 눈치 채시고는 음식도 가져가라 했습니다. 다시 스님에게 훔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스님에게서 친절, 자비, 지혜를 훔치러 왔습니다. 저를 스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친절이고 평화이며 관심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욕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지혜롭게 욕망하는 법을 가치는 겁니다. 각성 스님(2016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장)이 초청했을 때 이곳에 오고 싶었는데 이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강원도도지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런 만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조화 속에 함께 일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화 속에 일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저는 상좌부 출신이고 백인입니다. 인종도, 종파도 다르지만 여러분들을 친구나 가족이라 부릅니다. 불교의 어느 종파이건,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 욕망을 놓지 마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한 욕망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종교라는 경계, 세계라는 경계를 넘어 다리 50억 개의 코끼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얼마나 멋진 세상이 되겠습니까?

청중과의 질의응답

▲죽고나면 의식은 어떤 상태인지요. 그리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고나면 여러분의 의식이 아닙니다. 내 소유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마차코다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 했는데 부처님이 답하시면서 기름램프 비유를 들었습니다. 램프에 불꽃이 켜지기 위해서는 기름, 심지, 열 등 3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만 없다면 불꽃이 꺼져버립니다. 이 불꽃이 꺼지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집니다. 의식도 그와 마찬가지 입니다. 욕망이 없어지면 불이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지 어디로 가는게 아닙니다. 사실 불꽃은 본래부터 없었습니다. 3가지가 같이 만나 이루어 졌을 뿐입니다.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수행으로 극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신분열자들을 어떻게 치유할까. 단지 정신분열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분열증 이외의 것을 치료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없습니다. 단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정신분열증의 증상에만 집중하면 병이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정신분열증이 아닌 다른 부분에 집중하면 정신분열증을 눌러버립니다. 너무나 자비롭고 불교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매에 들면 통찰이 일어나는지요?

집중하면 통찰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물결 한 점 없는 맑은 호수는 해와 달을 진실되게 비춰낼 수 있습니다. 호수에 물결이 치면 아마도 그 이미지가 왜곡됩니다. 팔리어로 부처님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면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기 2560(2016)년

선암사 부설 태고경남전문강원 4기생, 경전 연구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에서 전문강원을 운영중이며
4기생 및 경전 연구반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4기생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6년 3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초발심,사미율의,치문	서장,도서,선요,절요

경전 연구반

■ 모집인원 : 00명
■ 수강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5시 30분까지**
■ 응시자격 : 태고종 승려, 타 종단 스님 가능
■ 접수기간 : **2016년 3월 1일 부터 ~**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입학원서(종무원 비치)
■ 수 강 료 : 한 학기 30만원(교재비 별도)
■ 강주스님 : 운범 스님

※ 경전연구반 : 학장스님과 면접 후 결정

과정 \ 학기	1학년	2학년
교 재	기신론	원각경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종무원 ☎ 전화 055)298-3634 / 팩스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양덕동) 현대오피스빌딩 1201호

태고총림 선암사 부설 경남전문강원 학 장 법성
경남전문강원 강원장 설 운 합장

세계 불교학자들의 학문 태도 비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3차 세미나 개최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 세불연)는 3월 12일 오후 1시 동국대 서울캠퍼스 다향관세미나실에서 '세계 불교학자들의 학문과 방법: 비교와 조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3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세계불교학연구소가 개소 이후 세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대표적인 인문학자 및 불교학자들의 학문태도와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다.

고영섭 교수가 '영호당 박한영과 상현 이능화의 학문과 방법'에 대해, 일본 도쿄대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유식 동국대 강사가 '하다니 료타이(羽溪了諦)와 후카우라 세이분(深浦正文)'에 대해 살펴본다. 스리랑카 캘라니아대 박사 김한상 동국대 세불연 연구교수는 '말라라 세케라와 자야 틸라케' 이병욱 고려대 철학과 외래교수가 '에드워드 콘즈와 램버트 슈미트하우젠' 문진건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상담심리학과 초빙교수는 '도널드 로페즈와 루이스 고메즈'의 학문과 방법에 대해 각각 고찰한다.

또 황순일 동국대 교수,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배경아 동국대 세불연 교수, 최경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고승학 능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석해 불교학의 보편적인 문법과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노덕현 기자

불교 교학과 응용 방법을 논하다

불교학연구회, 12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서

불교 교학과 응용 방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은 3월 12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2016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의 교학과 응용'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조윤경(서강대)의 '삼론종의 이원적 범주 연구' △박오수(동국대)의 '화엄발보리심장의 고찰' △곽뢰(동국대)의 '신라 화엄신앙의 확정과 오대산 문수신앙' △이경하 (능인대학원대학교)의 '유식학과 분석심리학의 마음구조에 따른 심층심리치료연구'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남수영(동국대), 김영진(동국대 경주캠), 박보람(동국대), 박서연(동국대), 오인 스님(중앙승가대), 박광연 (동국대), 안환기(서울대), 정은해(성균관대) 등이 참가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미술사硏, '불화와 산수화' 강좌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불화와 산수화' 미술사 강좌를 연다.

총 12강이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 고연희 서울대 규장각 교수, 박은순 덕성여자대 교수, 신은미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김현권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정병모 경주대 교수, 유미나 원광대 교수, 유경희 국립박물관 학예사 등이 강사로 나서 불호의 의미와 성격, 불화속 산수화 답사 등 다채로운 강의를 진행한다. 수강신청은 3월 21일까지다. (02)3673-3426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한국선학〉 43집 원고모집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한국선학〉 43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 주제는 선불교 관련 수행, 사상, 역사, 문학, 어학, 문화예술 등이며 원고 마감은 3월 15일까지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120매 사이로 120매를 초과하면 소정의 초과게재료가 부과된다.

작성 및 투고요령은 한국선학회 홈페이지(www.seonstudy.org)의 논문투고 안내 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제출은 한국선학회 JAMS 홈페이지(seonstudy.jams.or.kr)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한국선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이번 43호는 4월 30일 발간 예정이다. (010)7476-3416

노덕현 기자

"불교건축보면 불교의식 변화 알 수 있어"

〈불교문예연구〉 6집서 불교건축 고찰 논문 눈길

건축가 르꼬르뷰제는 '건축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다. 불교건축물은 불교의 생활과 그 속의 의식이 반영된 특별한 종교건축물이다. 이런 불교건축물과 불교의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대거 발표돼 눈길을 끈다.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가 2월 펴낸 〈불교문예연구〉 6집에서는 '불교의례와 공간미학'을 주제로 김봉건 최건업 정명희 구미래 등 6명의 학자들의 관련 논문이 실렸다.

먼저 김봉건 서울대 객원교수는 '불교의례와 건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17세기 이후 불교의례는 대부분 실내화로 변하게 된다"며 "그 결과 불단의 위치, 기둥구조, 바닥재료, 천장구성방식이 변화하고, 창호의 개방성이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단이 주변에 벽을 친 방식에서 현재와 같이 개방된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불단이 전각의 중앙에 위치 하던데서 후면으로 이동해 중앙부분에서 의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바닥 재료도 전돌에서 나무마루로 교체됐으며, 전체적으로 창호가 많이 쓰여 밝은 실내를 꾀하게 된다.

그렇다면 왜 불교의례는 실내에서 진행되게 됐을까. 김 교수는 "조선이 건국되며, 국가행사로 야외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던 불교의례가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하는 정도로 위축되고, 결국 불전 내부서 행해지는 간략한 의례 위주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조선시대 불화와 의례공간'을 통해 이런 주장에 대해 조선시대 오히려 건물 내에서의 다양한 의례가 발달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정 학예연구관은 "조선시대 예배공간이던 주불전이 다양한 법회와 의례가 개최되는 공간으로 변모했고, 그로 인해 전각 내부의 의식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불화가 봉안됐다"며 "수륙재가 삼단의례로 저변화됐고, 상중하의 불단이 갖춰지고, 각단을 상징하는 불화가 기본조합으로 탄생한다"고 설명했다.

정 학예연구관은 "전각 외부의 의식에 쓰이는 괘불 외에 감로도가 전각 내부 불화로 바뀌었으며, 의식 전용 불화도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최건업 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은 해인사 상선원을 중심으로 선수행과 선원건축의 관계를 고찰했다. 최근 명상센터와 템플스테이 관련 건축이 유행하지만 불교건축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최 연구원은 '선원건축의 공간미학'에서 "해인사 상선원, 남양주 화개선원, 봉암사 선원 등은 공통점이 있다. 백골건축이라 불릴 정도로 단청이 생략되고, 건물 사면이 문과 창호, 복도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 불단이나 불상 등의 어떤 상징물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는 수행공간을 평등의 공간으로 만들어 수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선원은 수행자의 공간이요, 진여가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기에 보기에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건축이 우선된다"고 말했다.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 연구교수는 '탑돌이와 연등의 종교민속적 의미'를 통해 불탑신앙의 전통문화화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 연구교수는 "탑은 하늘과 우주와 땅의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연등과 함께 어우러진 종교민속의 상징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구 연구교수는 "탑을 도는 것은 지신밟기, 세절밟기, 성밟기처럼 돌기와 밟기가 결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이라며 "달, 탑, 돌기, 연등은 불교를 포함한 한국인의 종교적 정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 상징성에 대한 주목이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봉건 "의례 실내화로 건축도 변화해"

정명희 "의식 수요 다양해져 불화 발달"

최건업 "선원건축, 평등 · 수행정신 반영"

구미래 "불탑건축, 하늘예경사상도 포함"

문화재지킴이 연합 단체 출범

신라문화원 등 34개 단체 모여… 2월 29일 기념식

신라문화원 등 불교계 문화재 단체들이 참가하는 문화재지킴이 연합 단체가 출범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설립 허가한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조상열)의 출범식이 2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연합회 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참여해 단체 대표들을 격려했다.

대전에 새롭게 둥지를 튼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전국 34개 문화재지킴이 단체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으로, 문화유산 보존 · 교육 · 홍보 등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 단체와의 교류 · 협력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됐다.

주요 참여 불교계 단체로는 신라문화원을 비롯해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있다. 회장은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이사장이, 부회장은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연복흠 충북문화유산지킴이 대표, 김호태 안동문화지킴이 대표가 맡는다.



신라문화원 등 문화재지킴이 단체들의 연합 단체인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가 대전 서구 사무소에서 2월 29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는 "문화재지킴이 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통해 문화재를 최일선에서 지키는 데 매진하기로 뜻을 한데 뭉치고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를 발족했다"면서 "이번 출범식을 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과 가치 확산이라는 소명의식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문화융성 실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부산 最古 목조건축물 보물 됐다

문화재청, 2일 '운수사 대웅전' 보물 승격 지정

부산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목조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부산 운수사 대웅전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91호 '부산 운수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96호로 지정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부산 운수사 대웅전은 2013년 전면 해체 수리 당시 종도리(宗道里)에서 발견된 2개의 묵서명(墨書銘)에 의해 1647년 공사를 시작해서 1655년 완공됐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운수사 대웅전은 부산 지역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임을 알게 됐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단아한 주심포(柱心包)계 맞배지붕 건물로, 우주(隅柱)의 하부에는 기둥 높이의 1/2 정도까지 원형 돌기둥을 세워 목재 기둥을 받고 있다. 이는 범어사 대웅전, 범어사 일주문 등 부산 동래지역 건축물에서 다수 확인돼, 내륙지방에 비해 태풍이 잦고 비가 많은 데 따른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보물 제1896호로 승격 지정된 부산 운수사 대웅전 전경.

건물의 시대성을 볼 수 있는 공포는 배면이 정면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있다. 배면 공포의 소박한 살미와 결구방법은 조선 중기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양산 신흥사 대광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동일한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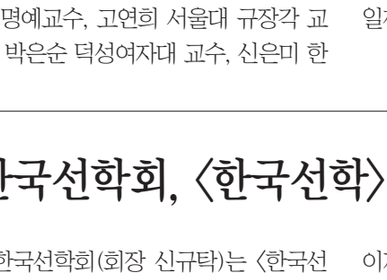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운수사 대웅전은 조선 중기 이후 불전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흔치 않은 귀중한 불교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면서 "운수사 대웅전이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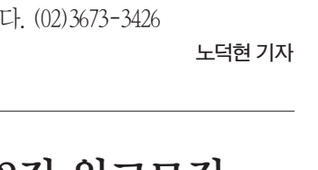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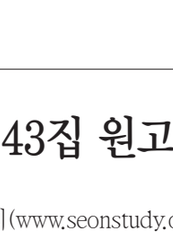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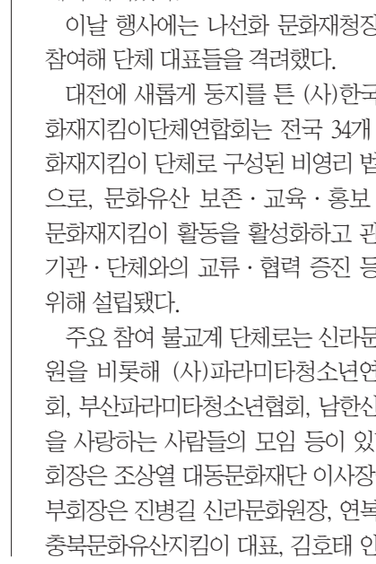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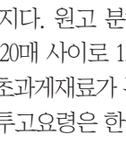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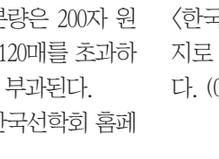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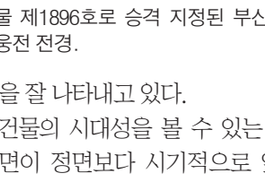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마음 심소 공부하자”

각묵 스님, 김해 보리원서 3월 22일부터 총 10강 진행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이 ‘마음의 심소(心所)’에 대한 강의를 개최한다.

경남 김해 장유 보리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3월 22일~5월 24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총 10회 진행된다.

교재는 〈아비담마 길라잡이(상)〉이다.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상좌부 불교를 대표하는 교리서 〈아비담마타상가하〉를 옮긴 것으로, 마음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각묵 스님은 이번 강의를 통해 마음(心, citta)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각묵 스님은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는 ‘심학(心學)’이라 불리기도 했다”며 “그러나 한국불교에서 ‘마음(心, citta)’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도 드물 것”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상좌부 불교는 부처님 원음을 고스란히 전승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적통성을 자부한다. 또한 아비담마의 엄정한 교학체계를 통해 이 마음을 89가지로 상세하게 해체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많은 동참을 독려했다. 문의 (055)321-8579

하성미 기자

부산불교, 호국 100년史 돌아보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호국 불교 100년사를 돌아보는 ‘부산불교100년사’를 발간한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3월 1일 범어사 상마마을 항일운동 유공비 앞에서 〈부산불교100년사〉 원만 발간 기념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박대성 사무총장, 부산불교108인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은 “독립운동을 위해 몸 바친 불교 호국사상을 새롭게 조망하고,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한다”며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부산불교100년사〉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2019년 3월 1일까지 부산불교 100년 역사를 담은 책이다.

하성미 기자

“마음공부, 유치원부터 시작합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2월 28일 유치원 기공식

지상 2층 · 지하 2층 규모 오는 7월 31일 완공 예정 대행 스님 유지 따른 인재불사 “마음법 널리 펴 지구촌 밝아지길”



부산 한마음선원은 2월 28일 경내 유치원 신축부지 앞에서 기공식을 거행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유치원 교육 도량의 첫 삽을 들었다. 이에 부산 한마음선원은 ‘마음 도리를 아는 참된 인재 육성’에 더욱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부산 한마음선원(지원장 혜도)은 2월 28일 경내 유치원 신축부지 앞에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유치원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번 유치원 불사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종합해 배우면 기술 · 과학 분야에서 ‘첨단을 걷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는 대행 큰스님의 유지(遺志)를 잇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건축 면적은 1992㎡(600평) 연면적 8067㎡(2450평)으로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이며, 완공은 7월 31일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은 ‘화합재’를 시작으로 불교도의 노래 및 한마음선원가 합창, 유치원 건립 경과보고 등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사부대중은 대행 스님의 법문을 통해 인재불사의 방향과 원력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유치원 건립 불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의 기념사 및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의 인사말, 박해일 신도회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혜수 스님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큰스님 가르침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며 “큰스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심성을 키워야 앞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로 보면 유치원 불사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인재불사요, 인성불사, 마음불사다. 마음공부를 위한 불사 터에서 세상을 향해 밝은 빛을 비추는 아이들이 자라나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 한마음선원 지원장 혜도 스님은 “큰스님께선 마음법을 널리 펴서 지구촌 전체가 밝아지도록 염원하셨다. 이를 위해 부산지원은 인재불사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건립 불사가 시급히 진행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참석한 사부대중의 염원이 함께 모여 원만 불사가 될 수 있길 발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유치원은 2013년 12월 27일 부산시 서부교육청 교육환경 적합 평가를 시작으로 2014년 4월 14일 유치원 설립 승인을 받았다. 2014년 4월 9일 공사 설계를 시작해 2015년 2월 12일 건축허가를 받아 2016년 2월 시공회사로 ㈜대야건설, ㈜태성 인터내셔널을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부산 한마음선원 지원장 혜도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각 지원 지원장 스님 및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사부대중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나눔으로 따스한 봄기운 전해요”

부산 불교계, 자비행 펼치며 훈훈함 더해

부산 불교계에는 불자들의 나눔 실천이 이어지며 따스한 봄기운이 만연하다.

부산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정초 21일 기도’를 회향하고, 자비나눔 실천으로 3월 1일 경내 법당서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천불정사는 이날 (사)생명나눔실천 부산본부에 쌀 20kg 30포, 장전3동 동사무소에 쌀 20kg 20포를 각각 기부했다. 특히 생명나눔 부산본부에 기부된 쌀은 후원 환자 및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천불정사 주지 고담스님은 “매 기도마다 나눔으로 그 공덕을 회향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며 “나눔 공덕에 아낌없이 동참해주는 신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재)일념장학회(이사장 이영채)는 2월 25일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묘광선원에서 ‘2016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일념장학회는 부산대 의과대학생 1명을 비롯해 대학생 3명에게 각 100만원, 중 · 고등생 5명에게 각 30만원 총 4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 불교계가 나눔행을 실천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사진은 3월 1일 정초 21일 기도를 회향하며 쌀 전달식을 진행한 천불정사.

이날 이영채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남을 생각 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971년 신행활동과 인재불사를 위해 결성된 일념장학회는 경봉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성 불자들의 모임인 ‘일념회’가 그 시초다. 1995년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매년 15여명의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20여 년간 부산지역 학생에게 수여된 총 장학금은 1억 5000만 원 이상이다. 다음 달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해 보리암(주지 능원)은 3월 2일 진주 동명고 제65회 입학식에서 신입생 5명에게 각 100만 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주동명고는 주지 능원 스님의 모교다.

능원 스님은 이날 입학식 축사를 통해 “자신이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늘 주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며 “부처님 유훈인 불방일(不放逸)을 기억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능원스님은 앞서 2월 17일 진주 동명고 제62회 졸업식에서도 졸업생 3명, 재학생 7명 총 10명에게 각 1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하성미 기자

보현사신협, 자산 500억 원 달성

2월 26일 26차 정기총회서 밝혀…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 자산 500억 원을 달성했다.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성)은 2월 26일 대구 프린스호텔 2층 리젠시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기념식에는 보현사신협 이사장 지성 스님과 부이사장 원각(문종래) 등 직원 및 조합원 일동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2월 26일 대구 프린스호텔 2층 리젠시홀에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성 스님은 우수 조합원으로 이종수(사업가)외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지성 스님은 이어 진행된 기념사를 통해 “1987년 ‘대한불교 승가신용협동조합(가칭)’ 창립총회가 개최된 후 30년이 된 지금, 자산 500억 원을 달성했다”면서 “이는 지역승가와 사부대중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 대중 살림에 더욱 보탬이 되는 보현사신협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2부 본회의 부의안건심의로는 2015년도 사업보고 · 2016년도 사업계획서 · 임원선출 등의 건이 승인됐다.

한편 보현사신용협동조합은 1990년 8월 가칭 “보현사신용협동조합” 창립총회 이후 2000년 10월 자산 100억 달성, 2016년 500억 원 자산을 달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12년 전국가족찬불가 경연대회 개최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많은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경찰들의 수행 이끄는 한해로”

3월 3일, 부산경찰청 경승단 회의

부산경찰청 경승단이 ‘2016년 경승단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3월 3일 부산지방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부산경찰청 경승실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상식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경찰청 경승단이 3월 3일 부산지방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2016년 경승단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정기법회 강화와 수행을 통한 경찰 포교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경승 총무 심산 스님은 “그동안 없었던 경찰 법회를 새롭게 만들고, 매달 2 · 4주 화요일 저녁 6시 법회를 봉행해 왔다”며 “경승 스님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다. 2016년에는 경찰 포교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경승실장 수불 스님은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경찰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경승 스님들과 경찰들이 서로 상생 · 발전하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 대보름 한마당 펼쳐

2월 24일 1000여 명 참석

대구 달서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2월 24일 청록공원에서 대보름맞이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은 달서구 내 32곳 경로당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곡밥 대중공양, 윷놀이 한마당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학장 도경 스님과 홍지만 국회의원, 곽대훈 달서구청장 등과 1천여 명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복지관에 1,020만 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은 2월 24일 청록공원에서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나주 심향사 회주 성오 스님이 안전운전 기원을 담은 축수의식을 하고 있다.

미륵사, 로드킬 희생동물 천도재

차량 안전운행 기원 축수의식도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로드킬'로 희생된 야생동물을 위한 천도재가 열렸다. 무등산 미륵사(주지 혜법)는 2월 27일 경내에서 한 해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로드킬 희생 동물을 위한 천도재와 차량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올해 2회째 열린 이날 행사는 성오 스님(나주 심향사 회주),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이범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혜법 스님은 인사말에서 "동물들은 인간들과 달리 자신들이 다니는 길만 다닌다. 도로개발로 동물들의 길이 차단되지만 동물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로 다니면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천도재에서는 운전자들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법회 의식도 이어졌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한국로드킬예방협회 주관으로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전시회도 열렸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행사 참가 차량들의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축원과 축수의식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광사 사회복지법인 '송광'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꿈앤카페 완주떡메마을'을 열었다.

송광사복지법인, '완주떡메마을' 개소

장애인 고용 창출 확대 이바지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고 운영하는 '꿈앤카페 완주떡메마을'이 문을 열었다.

완주 송광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광'(대표이사 법진)은 2월 25일 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서 '꿈앤카페 완주떡메마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카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완주떡메마을'에서 생산된 전통떡류와 즉석조리식품, 국산 차, 커피 등 각종 음료를 판매한다. 특히 모든 식재료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대전 죽림정사 주지 광진 스님, 송광사 총무 상견 스님,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진 스님은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민관합동 작품인 카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인력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 2명과 시간제근로자 등 총 4명이며, 향후 3년 이내 6명의 장애인을 확대 채용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꿈앤카페는 국비와 군비 등 총 7000만원이 투입돼 30㎡ 규모로 지어졌으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완주군이 선정한 사업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3·1정신으로 한반도 평화 기원

장수 죽림정사 3·1절 97주년 기념법회

민족대표 헌화·독립선언문 낭독
용성조사 탄생지에 울린 독립정신
민족 독립 힘쓴 선조 정신 되새겨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만들자"


백용성 스님의 탄생지 전북 장수 죽림정사는 3월 1일 3·1만세운동 97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참여한 백용성 조사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에서 기미년 3·1만세운동 97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3월 1일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봉행된 기념법회는 조실 도문 스님, 주지 법륜 스님, 정토회지도법사 유수 스님, 신봉수 용성조사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민족대표 유가족, 정토회 회원 등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선열들의 3·1만세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법회는 △반야심경 △국민의례 △애국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민족대표 33인 헌화 △3·1절 경과보고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삼일절 노래 및 온겨레의 노래 제창 △기념사 △축사 △법어 △신독립군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일제에 항거하면서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과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3·1만세운동을 주도한 백용성 조사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

이 자리에서 도문 스님은 법어를 통해 "기미년 3·1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불교의 우주관인 33천을 상징한다"며 "용성 조사는 3·1만세운동의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막후 역할을 하고, 대한제국의 부흥이 아닌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립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기념사에서 "3·1만세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며 "3·1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독립운동이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전 세계로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강대국에 의해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통일은커녕 상호 협력하는 평화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슬픈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등 우리 운명이 남의 나라 손에 달린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법륜 스님은 "3·1만세운동을 이끌고 그것을 위해 활동한 백용성 조사님의 유훈을 계승하는 불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 국민의 희망을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성 스님은 한국 현대불교 기반을 닦은 선지식으로 종로 한복판에 대각사를 창건하는 등 불교를 도심으로 내려오게 해 생활불교, 바른 불교의 기풍을 마련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계 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우리 민족을 독립케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안 보타락가사 해수관음보살상 점안

일면 스님 초청 법회, 2천여 명 참석


해수관음성지 태안 보타락가사는 3월 1일 경내에서 해수관세음보살상 낙성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충남 태안 보타락가사(회주 법진)는 3월 1일 해수관세음보살상 낙성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2천여 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헌화 및 헌공, 영산재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사로 초청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前동국대이사장)은 법문을 통해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등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일수록 관세음보살님에 의지해 일념으로 기도정진해 보실 것을 적극 당부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는 기도정진하다가 배가 고파서 창자가 끊어지더라도 밥을 구하는 마음이 안 들도록 일념으로 기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타락가사 회주 법진 스님도 "멀리 이곳 태안반도까지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러 오신 불자님들에게 점안한 공덕의 가피가 대대손손 이어지시길 바란다"며 "해수관음성지인 보타락가사는 관음기도 정진 소리가 1년 내내 끊이질 않는 성지인 만큼 오늘 행사서 얻어진 신심으로 각 가정에 돌아가서도 꾸준히 기도정진에 임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타락가사는 회주 법진 스님이 관음성지 조성불사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매일 정오(낮 12시)에 웅장한 찬불음악소리와 함께 대웅전 지붕 위에서 잠깐 관세음보살님이 현현 하신다는 점이다. 보타락가사를 찾는 불자들을 위해 회주 법진 스님이 기획한 일종의 깜짝 이벤트다. 이번에 조성된 해수관세음보살상은 바닷가쪽 사찰 마당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 절서 빼놓을 수 없는 전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와불전이다. 그 안에는 금불로 만든 길이 10m의 '열반와불상'이 모셔져 있다.

태안 보타락가사=김주일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이리불교대학 25기 졸업식

졸업생 14명 배출

익산지역 불교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이 25기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2월 28일 익산 관음사 3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은 김진수 부학장, 송동기 능인회장, 김지구 마한거사림회장, 가릉빈가 합창단, 졸업생 가족 및 동문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강현숙 불자 등 14명의 불자들이 1년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과 '부동' 품계를 수지했다. 특히 학업성적이 우수한 불자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김영옥 불자가 포교원장상, 원귀순·정점석 불자가 17교구본사주지상, 박노준·박영주 불자가 학장상을 수상했다.

덕림 스님은 "지난 1년간 불교대학을 통해 배우고 익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나가 펼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혜의 눈을 뜨고 원력을 발휘하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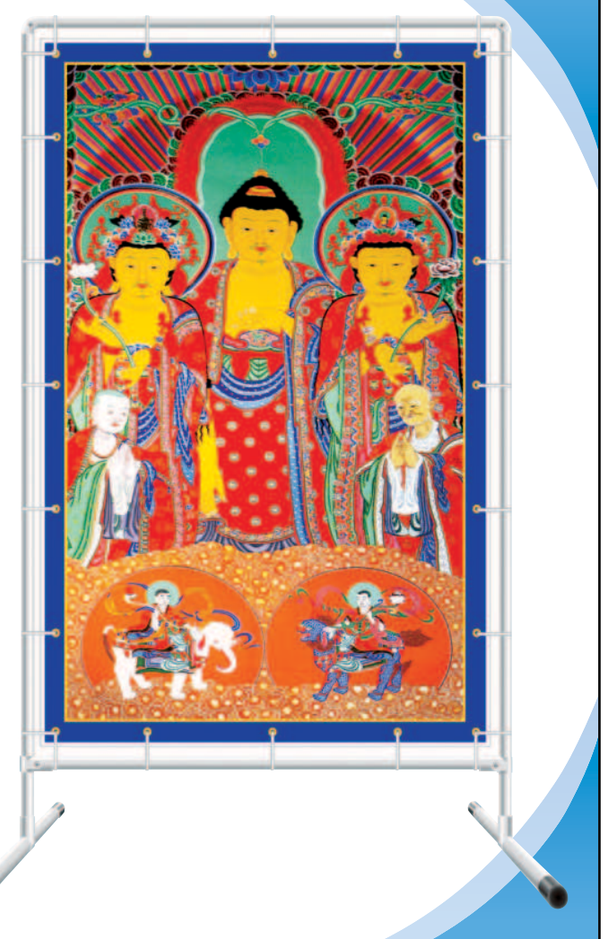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괘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자기를 잘 안다는 착각부터 던져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㊳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소고



그림 · 최주현

자기와 자기가 서로 다툰다! 이거 정말 큰 문제죠. 그게 극단으로까지 치달으면 정신분열로 가는 건가요?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와 자기가 서로 다투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라고 부르는 경우지요. 내적인 갈등을 격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내적인 갈등 가운데 가장 흔하게 오는 경우가,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하는 경우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중의 욕구가 충돌하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욕구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적인 갈등은 흔히 겪으시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시지요?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꼭 그 때에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경우가 오면 계속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습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업이 되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미래의 삶을 규정합니다. 맹자는 좀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도덕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인이 되고 소인이 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상황에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 도덕을 지향하는 마음 쪽으로 선택을 하면 대인이 되고, 개인적 욕망 쪽으로 선택을 하면 소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 도덕적 선택을 하게 되면 기상이 탁 트이고 펴져서 호연지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계속 도덕에 반하는 개인적 욕망을 선택하게 되면 자꾸 기상이 움츠려들고 쪼그라져서 소인이 된다는 거구요. 쉽게 넘기기 힘든, 좀 켕기는 마음이 생기는 대목이지요. 어떤 상황에서 도덕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께름칙합니다. 그것을 맹자는 "호연지기가 굶주린다"고 표현하지요. 그렇게 계속 호연지기를 굶주리게 만들면, 완전히 기상이 쪼그라붙은 소인배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겉보기에도 뭔가 움츠려들고 쪼그라든 소인배의 모습이 되고 싶지는 않네요. 가능하면 마음이 후련한 선택을 계속하여 호연지기가 크게 펼쳐진 대장부가 되고 싶네요. 그러면서도 눈앞에 어떤 이익을 취할 일이 있으면 바로 거기로 손이 나가는 나의 모습…. 이것이 참으로 문제라면 문제로군요.

이야기가 유교(儒敎)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구요? 뭐 어떻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잘 살자'는 이야기인데, 유교와 불교를 그리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이야기가 내적인 갈등과 선택의 문제이지, 지금 손오공이 쫓겨나는 대목과 같은 분열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갈등과 선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거니까, 나와 내가 서로 등 돌리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손오공이 삼장법사에게 쫓겨나는 대목은 좀 더 심각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갈등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서유기의 독특한 상황을 말하기 전에, 우선 일반적으로 나와 내가 다투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기로 하지요. 정말 아주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 나가서, 나와 내가 다투는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다투는 나와 나를 진정한 친구로 만드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모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이해하시나요? "음, 당연하지!"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신데, "어? 내가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나?"하고 생각에 잠기시는 분도 있군요. 이렇게 반응이 엇갈린다는 데 벌써 문제가 드러납니다. 참되게 사랑하는 것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우선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구를 참되게 사랑한다면, 그 친구를 참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음을 던져 보기로 하지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능이라던가 적성에 관해 구체적인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성격유형 검사는요? 혹시 MBTI 검사라는 건 아세요? 단순이 "이럴 거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 자신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뭐 그런 검사 같은 걸 꼭 받아야 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받아보고, 그것에 꼭 얽매이지 않으면서 참고로 할 수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신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기준은 될 수 있으니까요. 주관적으로 "나는 이럴 거야"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니까요.

갈등과 선택은 인생의 필수과정
자기집착서 벗어난 바른 선택 필수
자기자신의 친구가 되는 성찰 중요

이런 물음을 던진 것은 꼭 그런 검사 같은 것을 받으시라고 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인 자기에 대한 이해부터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이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요. 그리고 그러한 집착이야말로 벗어 던져야 할 것이며, 진정한 자기 사랑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요.

삼쾌선생의 자기 사랑의 참된 방법, 나름대로는 좀 그럴듯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여기서 조심스럽게 펼쳐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와 진정한 친구가 되기입니다. 자기와 자기가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구요?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가 반복되겠군요. 자기를 잘 안다는 착각부터 벗어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와 친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바로 보고, 그 동안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 다루어왔던 자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와 사귀어 나가듯 조심스럽게 자기를 다시 사귀어 나가자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를 해 볼까요? 만약 당신의 친구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 매우 의기소침해서 우울해 한다면 어찌 하실 건가요? 쥐어 박듯이 "이 바보야! 무슨 일을 그렇게 하니!"하고 야단치실 건가요? 그렇게 해 보세요. 그날로 친구 관계 끝나는 거겠지요? 또 그렇게 하는 친구는 애초부터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만일 당신이 그런 경우를 당해서 매우 의기소침해서 우울해하는 경우,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하나요? "아이구, 바보! 난 왜 이럴까?" 하는 식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당신 자신이 당신을 버리게 됩니다. "평소에 네가 그렇게 날 다루고 훈련시켜와서 그런 꼴이 된 건데, 이제 와서 결과만 보고 날 구박해?" 그러면서 절교선언! 당신과 당신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답은 앞에 말한 대로 좋은 친구가 되어 나가자는 겁니다. 친구가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좋은 친구는 어찌하는가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달래겠지요?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지 마! 누구나 그런 잘못 범할 수 있는 거야. 또 그 잘못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니? 앞으로 잘 해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번 일이 어떻게 되어 잘못되었는지를 잘 살펴서, 다음에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새로운 힘을 내도록…. . 그렇게 충고하고 다독이겠지요?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 보자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사람들은 대부분 조증의 상태이거나 울증의 상태인 경우가 많죠. 그것이 심리적 균형을 깨뜨리고 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친구는 적당히 균형을 잡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무언가 조그만 성취에 도취해서 방방 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막 달려 나가려 하면 적당히 말려줘야죠. 칭찬도 하고, 또 어르기도 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되는 조건이 있죠. 바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섣부르게 충고하거나 도와준다고 발 벗고 나서면 어찌되는지 아실 겁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정말 피곤해지죠. 나를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중심으로 막 충고를 해대고, 자기 방식으로 돕겠다고 팔 걷고 나서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런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자신과 참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수순을 차분하게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면 자신에 대해 정말 좋은 충고도 할 수 있고, 지나치게 우울해하거나 지나치게 나댈 때 적절하게 어르고 북돋을 수도 있게 되겠지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고 녀석이 말 잘 안 듣거든요. 친구라고 해도 결코 쉬운 친구가 아니거든요. 걸핏하면 토라지고, 시도 때도 없이 칭얼대고 짜증내고 하는…. 그렇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알아나가다 보면 참 좋은 구석도 많은, 아니 알아 나갈수록 더더욱 멋있고 신비한 친구지요. 이 친구의 그 멋있고 신비한 면을 알게 되면 홀딱 반해버릴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 정말 버릴 수도 없고 버려서도 안 되는 '자기'라는 친구를 잘 보듬어 나가보시지 않을래요? 하루 이틀 점점 알아가고 정들어 가면 나중엔 눈빛만 보아도 통하는 친구가 되었다가, 결국 일심동체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친구 하나만 제대로 사귀면 백 친구 아니 천 만 친구 부럽지 않다는 것을, 삼쾌선생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바입니다.

헛! 삼쾌선생의 이름이 그리 무겁지는 않다구요? 그리고 갑자기 내적인 갈등의 문제 이야기하다 자기와 친구되는 이야기는 좀 중간을 건너뛴 거 같다구요? 애고, 저 혼자 기분에 취해서 제 얼굴에 개금불사 하면서 헤맸나 보네요. 앞의 이야기와 연결을 제대로 지으면서, 또 서유기의 손오공 가출, 아니 축출 사건과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짚어보아야 할 것 같군요. 우선은 내면적 갈등에 대한 성실한 성찰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으면서 자신을 살피는 성찰이 자기를 알아가는 출발점이요, 자신과 친구되는 첫걸음이라는 이야기로 앞의 이야기와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손오공 추방 또는 축출은 좀 특수한 경우니까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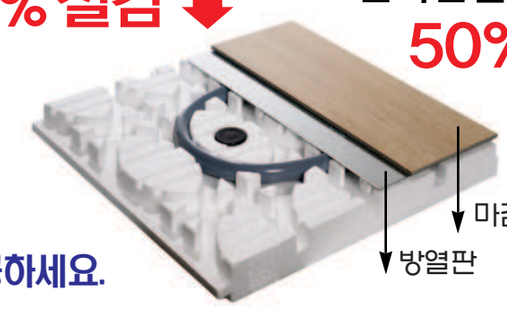
그래도, 삼쾌선생이 좀 헤매니즘으로 주절거린 점은 있지만, 자신과 친구되기는 한번 걸어볼 만한 길이라는 걸, 무겁지 않은 삼쾌선생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그 절집의 빛

⑤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윤장대, 법 체험의 수레바퀴


향좌측 윤장대 여덟면 몸체에 베푼 통판투조 꽃살문 중 여섯 부분.

대장전, 장경각, 판전의 건물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부처께서 깨쳐서 드러내신 반야, 곧 진리 그 자체다. 부처님은 생애 45년 동안 중생제도를 위해 법을 설하고 몸소 전도하셨다. 연기법과 사성제, 팔정도(八正道) 등에 대한 부처님의 반야바라밀행을 일컬어 '법의 수레바퀴를 구르셨다' 고 표현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전법륜(轉法輪)' 이라 부른다. 장엄미술에서 법륜은 보통 중앙에 원형의 연판을 갖추고 팔각의 부채살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수레바퀴 형태다. 부처님 입멸 후 무불상시대에 법륜은 만(卍)자 문양 등과 함께 붓다를 상징하는 조형언어였다. 순환과 회전의 기하학적 상징을 통해 진리법의 영원불멸성과 광대무변을 일깨웠다.

부처님의 법은 삼장(三藏)에 갈무리 해뒀다. 삼장은 경장과 율장, 그리고 그를 해석한 논장을 담은 '트리 피타카' , 즉 '세 개의 광주리' 다. 그 세 개의 광주리 일체가 대장경이다. 경전을 펼치면 8만 4천의 법문에 이른다. 그 일체의 경전세계의 집대성이 팔만대장경이다. 경전은 전파와 유통을 목적으로 목판으로, 혹은 책으로 펴낸다. 목판본의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건축이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이다. 장경판전 역시 팔만대장경의 규모만큼 장대하다. 그런데 한 사찰 단위에서 새긴 경전 목판, 혹은 책자형태의 경전은 그 수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보관장소의 규모도 3×2칸, 또는 3×3칸의 크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대장전' 이나 '장경각' , '판전' 의 편액을 단 건물들이 그것이다. 대장전은 예천 용문사, 김제 금산사에 남아있고 서울 봉은사는 '판전' 의 이름으로, 여주 신륵사에는 '대장각' 의 비명기록이 남아 있다. 장경각은 순천 선암사, 양산 통도사, 풍기 부석사, 남양주 불암사(지장전) 등 서너 곳에 현존하고 있다.

윤장대, 경전 보관하는 국내유일 회전책장

그런데 예천 용문사 대장전은 대단히 희귀하고 특별한 전각으로 손꼽힌다. 용문사 대장전에 갈무리한 대장경은 서적으로 펴낸 경전류다. 용문사 소장 대장경 간행기를 볼 때 〈문수경〉, 〈묘법연화경〉, 〈80화엄경〉 해설서 등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용문사 대장전의 특징은 그 서적들을 보관하는 책장 장치에 있다. 그 장치가 '전륜장(轉輪藏)' 이라고도 불리우는 '윤장대(輪藏臺)' 다. 불단을 중심으로 좌우에 1기씩 2기가 있다. 윤장대는 간단히 말하면 대장경 서적을 보관하는 회전식 책장이다. 건축기능을 살린 구조적 형태의 독자성과 함께 종교장엄의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로 유일하다. 물론 문헌기록이나 절터 발굴과정에서 몇 군데서 대장전 터가 나오고, 윤장대 시설을 갖춘 흔적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 영동 영국사와 양주 회암사지에서 대장전 터와 윤장대 시설 유구가 발굴 된 바 있다. 또한 15세기 조선의 학자 남효온의 금강산 기행문에는 금강산 장안사에 삼단으로 만든 회전식 대장경함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윤장대의 사례는 용문사 것이 유일하다.


향좌측 윤장대.

대장전은 일종의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윤장대는 그 도서관에서 경전을 쌓아 두고 있는 회전식의 서가시설이라 할 수 있다. 용문사에 대장전과 윤장대를 설치한 연유는 1972년 대장전 보수공사 당시 발견된 '중수상량문' (1767년)에서 밝히고 있다. "일찍이 서역의 구담씨가 팔만대장경 경전을 용궁에 안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대장전이 세워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인도사람 구담씨(구답마)가 팔만대장경을 용궁에 안치하였듯이 사찰명이 '용문(龍門)' 인 용문사에 대장전을 세웠다는 것이다. 불교설화의 인연 따라 시설하였다는 서사적 플롯이 흥미를 끈다. 용문면 인근이 용궁면이라 인연이 특히 기이하다. 그에 앞서 〈중수 용문사기〉(1185년) 비명에는 조응스님과 자엄스님의 발원에 의해 고려중기 명종 3년(1173년)에 윤장대 두 좌(座)와 그를 안치할 건물 3칸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서로 긴밀한 유기적 일체형으로 동시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윤장대는 1621년에 대대적으로 중수한 17세기 양식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1621년의 중수 사실은 윤장대 내부의 묵서기록을 통해서 확인된다. 윤장대가 400년 된 국보급 성보문화재임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윤장대 내부 모습.

용문의 인연 따라 대장전 세운 설화
연화대 위에 극적으로 조성한 윤장대
회전축, 마루바닥 밑에서 천정까지 관통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회전개방

윤장대 돌리면 경전 독송한 공덕과 같아

그런데 윤장대의 건축적 미덕은 보관장치 개념보다는 경전함을 회전시키는, 곧 경전을 구르는 전륜장의 개념이 보다 본질적으로 다가온다. 튼튼한 손잡이를 달아 신분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나 윤장을 구르게 한 종교적 추체험의 방편지혜가 빛난다. 티벳의 마니차(경륜)에 담긴 대승적 상징과 일맥상통 한다. 윤장대를 돌리는 것은 그 내부의 경전을 독송한 공덕과 같다고 한다. 글을 모르거나 글은 읽어도 그 심오한 뜻을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에겐 대단한 반가움이 아닐 수 없다.


윤장대 하단부. 연꽃 위에 윤장대를 시설했다.

유희와 같은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진리를 구하는 복전의 공덕을 쌓을 수 있다니! 그러나 지금은 아무 때나 돌릴 수 없어 아쉬움을 준다. 음력 3월 3일인 삼월 삼짓날과 9월 9일 중양절에만 돌릴 수 있다.

용문사 대장전의 윤장대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 회전 구동력을 갖춘 하단부와 통판투조 창호를 갖춘 팔각기둥형의 몸체부, 그리고 공포구조를 갖춘 목조건축 지붕의 상륜부가 그것이다. 윤장대는 먼저 마루바닥에 팔각 구멍을 뚫고 마루 밑 지반에 화강암 심초석을 구축했다. 심초석은 회전축의 기반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원통형의 회전축은 느티나무 재질의 목재로 지름이 28cm이고, 높이가 4.2m에 이른다. 목탑의 심주(心柱)처럼 마루바닥 밑 초석에서 천정까지 관통한다. 회전축이면서 동시에 목조건축의 중심 코어인 찰주(刹柱) 역할을 한다.

그러한 기반시설과 중심을 마련한 후, 마루바닥 위로 불상대좌처럼 연꽃 받침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윤장대가 연화화생하는 극적인 장면이다. 윤장대에 담은 기물이 부처님의 설법을 담은 경전류의 성보이므로 연화좌의 형식은 합리적이지만, 발상에서 대단히 기발해서 감탄을 자아낸다. 하단의 8면은 넝쿨문을 새긴 낙양장식으로 칸칸이 분할하였고, 각 면은 아래가 좁아지는 역삼각형 형태다. 면마다 벽사적 성격의 용의 정면 얼굴을 베풀어서 신성을 부여했다. 팽이처럼 아래가 뽀족한 윤장대의 건축외형은 회전체의 속성을 환기시켜 주는 심리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즉 전체 디자인부터 대상이 가진 물리적 속성을 이미지화 하는데 뛰어난 조형감각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 기능에서 여전히 회전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종교장엄의 의장에서도 세련되고 정교하다. 그런 점에서 장인의 조형감각은 대단히 전통적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이다. 명작의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여덟 면의 아름다운 통판투조 꽃살문

윤장대의 몸체는 팔각기둥 양식이다. 여덟 면마다 통판투조 창호, 혹은 빗살창을 베풀었다. 2기의 윤장대 중에서 향좌측의 몸체에는 통판투조 꽃살문을, 향우측의 윤장대에는 빗살문을 냈다. 마치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처럼 하나는 고전주의 양식으로 단순, 간결하고, 다른 하나는 낭만주의 경향으로 자유분방하고 다채롭다. 문양은 연꽃, 국화, 삿자리 등 현실의 이미지를 빌려 종교적 거룩함의 관념으로 승화시켰다. 반복과 복제라는 기하학적 패턴을 통해 단순함 속에 깃든 숭고함을 일깨운다. 여덟 면의 창호 중에서 실제로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창호는 두 곳 뿐이다. 그 중 하나인 연꽃밭의 세계를 담은 장면은 대단히 뛰어난 수작이다. 색채, 형태, 구도에서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프레임을 갖췄다. 색채 운영에서 전통적인 바림기법을 통해 그라데이션의 풍부한 색조를 풀었고, 현대적인 음영의 명암법도 구사해서 입체감을 운영한 점도 놀랍다. 하나의 프레임에 여덟 층이 켜켜이 쌓였다. 위에서부터 붉은 연꽃, 푸른 연잎이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층층을 이룬 단청의 세계이자, 연화장의 세계다. 어떤 연꽃은 활짝 피고, 덜 피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위로 피고 어떤 것은 아래로 꽃송이를 드리웠다. 연잎의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네모진 잎을 비롯해서 타원형, 바람에 오므린 잎까지 다양하다. 물고기들이 연지를 유영하는 여름철의 한 때, 화면에는 생동감 있는 생명력과 조화로움이 충만한 화장세계다. 꽃들은 일승의 진리법에 젖은 법열의 기쁨으로 표출된 상징관념일 터이다.

윤장대의 내부는 회전축의 심주를 둘러싼 사천주가 위로 뻗치고, 그 둘레에 팔각의 서책 진열대를 빙 둘러 가설해서 경전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 윤장대 내부 천정에는 용틀임하는 역동적인 용이 보주를 움켜쥐고 있다. 경전을 용궁에 안치한 설화의 구현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화엄경의 기원으로 회자하는 '용궁장래설(龍宮將來說)' 을 조형으로 확인하는 순간 같다. 용궁장래설은 문수보살께서 편찬해서 용궁에 보장한 화엄경을 용수보살이 암송하고 돌아와 세간에 유통시켰다는 설화다. 윤장대는 진리의 보장처이고, 사부대중이 몸의 감각으로 진리법의 법비와 훈습에 젖는 추체험의 수레바퀴다. 윤장대를 돌리고 나오는 그 사람이 우리 시대의 소박한 용수들일 터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탱화청동불상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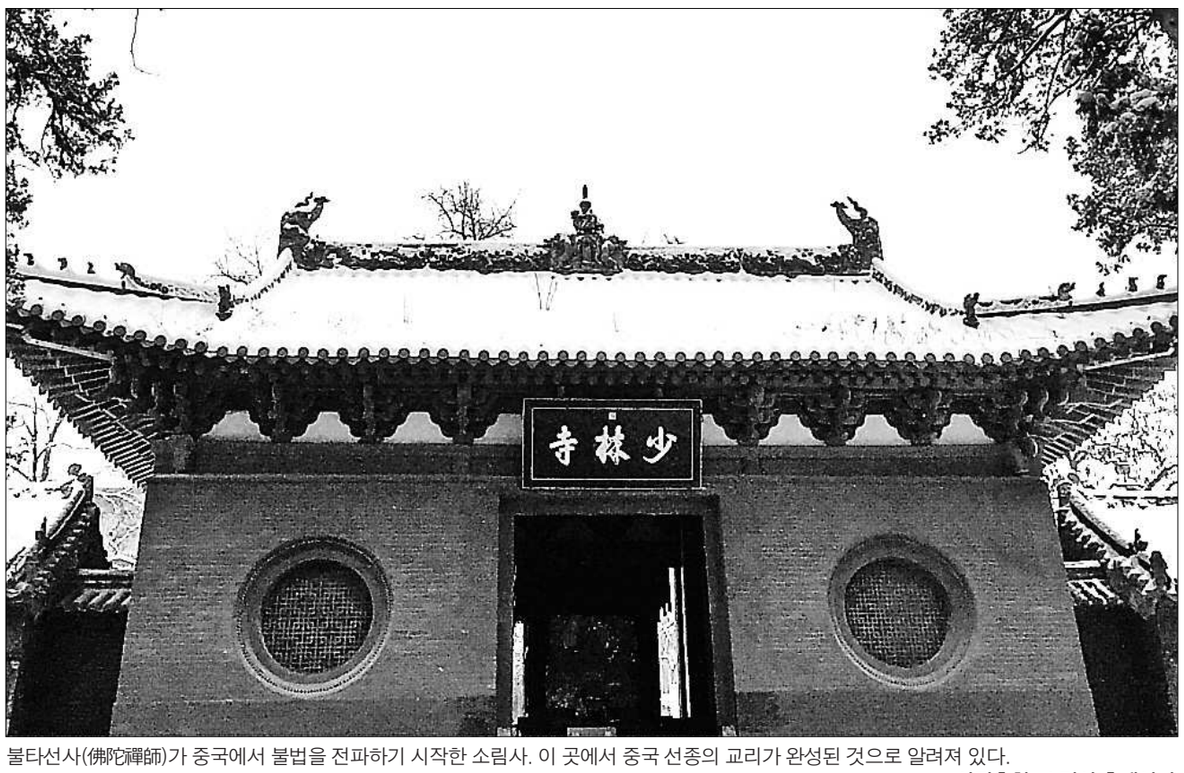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교학 정립 현실화 보여준 禪 논쟁

29. 19세기 선·교의 이중주



불타선사(佛陀禪師)가 중국에서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한 소림사. 이 곳에서 중국 선종의 교리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출처=소림사 홈페이지



전북유형문화재 제122호 선운사백파율사비(禪雲寺白坡律師碑). 한때 교학에 힘쓰던 백파는 교를 버리고 선의 우월성을 천명하면서 초의와 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세기에는 선의 분류와 우열 관계를 둘러싸고 거의 100년간에 걸친 선 논쟁이 펼쳐졌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3종선 분류를 주창한 백파 긍선이었고, 이에 대해 초의 의순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거시적 관점에서 선 논쟁은 교학의 성행, 특히 18세기 화엄교학 이해의 심화가 선종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결과를 낳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그렇기에 선 논쟁에서는 선의 종류를 나누고 상호 관계를 설정하면서 선에 대비되는 교, 그 중에서도 화엄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화 되었다.

선 논쟁의 불씨를 지핀 백파 긍선(1767~1852)은 교학에 힘쓰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교를 버리고 선의 우월성을 천명하였다. 그는 선운사에서 출가한 후 지리산에서 당대 최고의 화엄종주였던 설파 상언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어 구암사에서 설파의 문손 설봉 거일의 법을 전해 받았으며 백양사 운문암에서 개당한 후 강학에 전념하였다. 45세 때에 문득 법의 진제가 문자 밖에 있음을 깨닫고는 강안을 거두고 선 수행에 몰두하였다. 이후 백양사에서 선지를 현양하고 구암사에서 선강 법회를 여는 등 호남 선문의 중흥자로서 명성을 떨쳤다.

백파는 격외의 선전뿐 아니라 화엄 법문에도 정통하였고 또 계율을 잘 수지하였기에 추사 김정희가 쓴 그의 비문 제명은 '화엄종주 대율사 대기대용(大機大用)'이었다. 그렇지만 백파의 관심은 오로지 선에 집중되었고 특히 임제 간화선의 종지를 강조하였다. 그의 저술 면면도 〈선문수경〉 〈법보단경요해〉 〈오종강요사기〉 〈고봉선요사기〉 〈선문염송사기〉 등 선종 서책에 대한 주석서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처럼 그는 선종 우위론의 색채를 강하게 가졌고 그가 남긴 '수선결사문'에서도 그의 실천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백파의 법맥은 문손 설두 봉기를 거쳐 근대의 학승 박한영으로 이어졌다.

백파는 주저 〈선문수경〉에서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선을 조사선, 여래선, 의리선 등 3종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앞의 조사선과 여래선은 비록 차등은 있지만 모두 격외의 선이며, 이에 비해 뒤의 의리선은 가장 낮은 차원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그 이유로 의리선이 교학적 이해와 문자의 습기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임을 들었다. 나아가 3종선의 순차적 배열을 위해 부처의 삼처전심이나 임제종 조사 임제 의현의 3구 등에 입각하여 해석을 붙였다. 또한 선종 5가 가운데 임제종을 가장 수승한 단계로 평가하였는데, 앞에서부터 임제종, 운문종, 조동종, 위앙종, 법안종 순서로 배열하였다.

백파의 새로운 주장에 반기를 든 것은 초의 의순(1786~1866)이었는데, 그는 〈선문사변만어〉에서 백파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비판의 요지는 근기의 우열에 따라 선을 차등적, 배타적으로 나눈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초의 또한 방편에 있어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조사선과 여래선, 법을 기준으로 격외선과 의리선으로 구분할 수 있음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간의 우열이나 차등이 없으며 조사선과 여래선, 격외선과 의리선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다고 보았다. 또한 조사(격외)선과 여래(의리)선을 같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 통설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는 부처의 마음(선)과 언설(교)이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

초의는 선에 대한 혹자의 질문에 "근기가 뛰어나지 않으면 선에 전념하는 것과 교에 전념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 내 어찌 힘들여 그것을 하겠는가"라고 답하였다. 또한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인데 입으로 언설만 하면 교뿐 아니라 선의 언구도 모두 교의 자취에 들어가며, 마음에 직접 투철하여 얻으면 선뿐 아니라 교학이나 일상 언어도 모두 향상일규이다"고 설파하였다. 즉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관건이며 선과 교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선 분류·우열 두고 100년 논쟁
'선 수승 주장' 백파에 초의 반박
中 없는 '진귀조사' 관념 계승돼
禪과 敎 병렬구도 한동안 이어져

백파와 초의는 모두 편양파의 주류 계보를 이었다. 이들의 공통 조사인 환성지안은 〈선문오종강요〉에서 선종 5가의 요체를 적시하고 6조 혜능 이후 선종 종파 중에서 '기용(機用)'을 밝힌 임제종이 가장 수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임제종 우위의 선종관을 백파가 계승하여 새로이 3종선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초의는 선교겸수 전통과 화엄을 비롯한 교학 중시라는 시대사조에 부합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즉 이들의 논쟁은 임제법통과 간화선, 선교겸수와 화엄교학이라는 조선후기 불교사상의 양대 흐름 속에서 파생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선 우위론과 선교병행론이 경합을 벌인 선교 판석과 해석의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선 논쟁은 단순한 선의 분류 및 우열 문제가 아닌 조선후기 불교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둘러싼 사상사적 논쟁이었던 것이다.

전통을 포괄적으로 계승하려 했던 초의 의순은 학예일치적 삶을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연담 유일의 문손으로 대둔사의 13대 종사가 되었고 선과 교에 모두 정통하였다. 그는 영암 월출산 정상에서 보름달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며, 대둔사에 일지암을 짓고 40여 년간 교육과 저술에 전념하였다. 저술로는 〈선문사변만어〉 〈초의시고〉 〈일지암문집〉 등이 있고 조선의 다도를 일으킨 〈다신전〉과 〈동다송〉도 현존한다. 그 밖에 조선중기 호남에서 '석가의 화신'으로 추앙된 진묵대사(1562~1633)의 행적을 밝힌 〈진묵조사유적고〉도 지었다.

초의는 당대의 명유들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동년배인 추사 김정희와는 시, 예, 차를 함께 나눈 평생의 지음이자 지기로 지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38통의 편지에는 차에 대한 언급과 함께 불교 교리에 대한 고증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초의 또한 추사의 제문에서 42년간의 '금란지교'를 떠올리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도를 논한 사실을 회고하였다. 이 밖에도 1801년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 정약용으로부터 시와 주역 등을 배우기도 했다. 초의는 시와 서예뿐 아니라 불화와 범패, 다도와 원예 등 다방면에서 일가를 이루었는데, 남종화의 거두이자 추사의 제자인 소치 허유도 그에게 시서화와 다도를 3년간 수학하였다.

백파와 초의가 일대 논쟁을 펼친 후 이들의 설을 계승하거나 자신의 견지에서 비판하는 논의들이 이어졌다. 먼저 우담 홍기(1822~1881)는 〈선문증정록〉에서 초의의 설을 지지하면서 조사선=격외선, 여래선=의리선의 구도를 재차 확인하였다. 이어 백파의 문손인 설두 봉기(1824~1889)는 〈선원소류〉에서 "선론에는 교외별전의 선지 외에 선의 종류별로 요약 가능한 선전이 있다"고 하여 백파의 선종 분류를 지지하며 보완 설명하였다. 그는 화엄의 법계를 3종선에 배당하여 사사무애와 이사무애를 각각 조사선과 여래선에 비정하기도 했다. 이 또한 백파가 제시한 조사선-여래선-의리선의 차등적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선 논쟁의 대미를 장식한 서진하(1861~1926)는 〈선문재정록〉에서 기존 논쟁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른 각도의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백파가 의리선을 교로 본 것은 이사즉융의 원돈교를 선에 배정했다는 점에서 잘못이며 3종선 모두 '교외'의 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의리선은 '격'에 매인 것이고 조사선과 여래선은 '격외'라는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고 보았다.

선 논쟁의 내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귀조사 관념이 계승되었다는 점이다. 진귀조사는 부처에게 조사선을 전수한 이로서 중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인식이었다. 현존 문헌 중 진귀조사설을 처음 제기한 것은 고려 후기 천책이 지은 〈선문보장록〉이다. 여기서는 신라의 선승 범일국사가 선과 교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진귀조사의 교외별전을 언급하였다는 사실을 〈해동칠대록〉이라는 책을 인용해 소개하고 있다. 고려 후기에는 임제종 간화선풍이 직접 수용되면서 교와 대비되는 교외별전의 선의 입장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진귀조사의 교외별전설은 당시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청허 휴정 또한 '선교결'에서 부처가 진귀조사에게 별도로 선을 전수받았음을 강조하였고, 18세기 후반 충허 지책도 교는 연등불이 석가에게 전하였고 선은 진귀조사가 세존에게 전수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진귀조사설은 조선후기에 통용되었고, 선 논쟁에서도 진귀조사설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조선후기는 간화선 우위의 선교겸수를 수행상의 기조로 삼았고 18세기에는 교학이 매우 성행하여 화엄교학과 조사선을 같은 위상으로 파악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조사선=선, 여래선=교의 이해에서도 확인되는데 19세기의 선 논쟁은 바로 선과 교가 중첩된 전통의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백파는 교학을 중시하는 교계의 분위기에 반기를 들고 선, 특히 임제종의 우위를 재차 천명한 것이었다. 그는 여래선을 조사선과 같은 격외선으로 파악하고 의리선을 그 아래 단계로 설정하여 교로부터 여래선의 자격을 박탈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초의는 선과 교의 근원적 일치라는 전통적 통념을 전제로 격외선=조사선, 의리선=여래선의 병렬적 구조로 파악한 것이었다. 결국 선 논쟁은 선에 대한 분류와 차등의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선종과 교학을 아우르는 선교 판석의 의미를 가졌고, 선종 우위의 관점과 선교 전통의 동시 계승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나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조선후기에는 조사선=격외선, 여래선=의리선의 조합이 대체로 통용되었다. 그리고 전자는 선, 후자는 교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조사선의 우위를 주장하거나 조사선과 여래선의 근원적 일치를 주장하는 등 관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선과 교를 병렬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졌다. 이는 간화선 우위의 선교겸수 지향과 강학 및 화엄교학의 성행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파생된 특성이었다. 조사선과 여래선을 모두 격외선에 포함시키고 의리의 교학을 낮은 단계의 의리선으로 규정한 백파의 구상은 청허 휴정의 사교입선과 같은 선 우위의 입장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조사선(선), 의리 여래선(교)의 병렬 구도는 선교겸수의 추세와 지향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간화선 우위의 임제 법통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조선후기에 선과 교의 위상을 둘러싼 일대 논쟁이 펼쳐진 것은 교학 전통의 정립과 계승이 실제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상사적 의미를 가진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 (3개월 선납시 10% 할인)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니까야서 길을 묻다 8. 오늘날 필요한 계(戒)①

계(戒)는 '떳떳함'의 힘

'도덕적 완성의 지향'을 '계(戒)'로 정의하면, 종교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나 금기사항 정도로 불교의 계율을 잘못 이해하는 수준은 넘어설 수 있다. 곧 계(戒)를 지킨다는 것은 특정한 규율이나 금기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의심 없이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정신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의 본연을 살펴, 확신에서 비롯하는 마음가짐을 언제나 지켜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학의 존재 이유, 즉 스스로의 확신에 따라 도덕적 완성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를 분명히 하려면 '계(戒)'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생명체라면 무엇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바람을 토대로, 스스로 살아있음을 한껏 누리고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바람을 지니고 있음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를 '존재감'이라고 이름 붙여보면, 존재감을 언제나 맛보고 싶어 하는 소망은 생존과 생식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바람만큼이나 매우 강력한 에너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존재감을 또렷이 맛보며 사는 데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더 인정받는 일터와 지위, 더 많은 연봉, 더 매력적인 이성과의 만남, 더 많은 소유와 소비생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과 부러움의 시선 등이 내 것으로 만들어질 때 더욱 커진 존재감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얻기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의 존재감에서는 바라던 것을 성취하는 순간의 강렬한 느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정신적인 성숙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존재감은 남다르다. 정신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의 시선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찰지향형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지성, 견해, 안목, 품성, 공감능력 등의 면모를 끌어올리는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으로의 도전과 실험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 어떤 '자리'를 얻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며, 다른 이가 잘 해내지 못하는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품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외부 대상에 기대는 쪽이 아니라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해나가는 쪽을 주로 택한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존재감은 쉽게 바뀌어 사라지거나 시들어버리는 성격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계(戒)의 의미 있음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림 · 양경수

〈율장〉 '대품(大品)'에는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다섯 가지 공덕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 중 세 번째 공덕으로 제시된 "계율을 지키는 자는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확신이 있고, 주저함이 없다"는 말에서 오늘날 누구에게나 '계(戒) 지킴'이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임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데는 남다른 안목과 확신, 강력한 열정과 의지, 지속적인 노력 등의 자산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가면 너무나 든든한 또 다른 길동무가 바로 '계(戒)'라는 선언이자, 정신적인 성숙을 조건으로 기대하는 존재감에는 '떳떳함'이라는 마음의 요소가 필수라는 설명인 것이다. '계 지킴'의 의미는 '떳떳함이 없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를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다. 바로 이와 같은 떳떳함을 갖추기 위해 일상의 행위를 스스로 조심하고, 단속하고, 제어하는 일로 꾸려가는 공부의 길이 바로 계학(戒學)인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모두가 평등한 도반 공동체…



(주)마인드디자인은… 2011년 불자 청년 김민지 씨의 1인 기업 'mim'이 시작으로 2012년 불교박람회 기획 및 운영사로 선정되면서 지금의 '(주)마인드디자인'으로 법인 전환됐다. 2016년까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획 · 운영사로 활동 중이다. '전통문화 일상화'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청년들로 구성된 회사로, 운영방침은 불교 수행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할 청년 불자 사회적 기업이다.

道伴의 향기

(주) 마인드디자인

2011년 창립… 5년간 꾸준한 성장세
김민지 대표 등 모든 임직원은 '도반'
수행은 기본, 대중공사 · 자자 · 포살 등
승가 공동체 규약을 그대로 도입 · 운영
"행복 · 꿈, 동시 이루는 기업 만들겠다"

2011년 4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법륜 스님의 2030 멘토링 콘서트 '방황해도 괜찮아' 현장. 한 여성 불자가 질문을 한다. 선재수련원에서 인도 봉사를 갔었는데 그곳 사람들을 보고 전통문화를 지켜주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경청한 법륜 스님은 당시 친절한 설명과 격려를 직문직설해줬다. 자본주의에 멍들어가는 제3세계 전통문화 정체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대중 앞에서 당당히 밝혔던 여성 불자는 진짜 '전통문화 일상화'를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을 창립한다. 그 기업이 바로 '(주)마인드디자인'이다.

"우리 것은 원래 세련돼"

(주)마인드디자인은 김민지 대표의 '전통문화 일상화'라는 원력에서 시작한다. 제1회 조계종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2등에 입상한 김 대표는 자신의 불교 주얼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2011년 1인 기업 'mim'을 만든다. 사찰에 발품을 팔면서 성공적인 매출을 올리던 김 대표는 2012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획과 운영을 맡게 되면서 (주)마인드디자인을 출범시킨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칠석데이 등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 △명상 펜던트 등 문화 상품을 진행 · 출시하면서 회사를 발전시켰다.

처음 자본금 제로에서 시작해 매출 11억 원, 직원 15명으로 성장시킨 바탕에는 김 대표의 열정과 원력이 있었다.

김 대표는 "대학 디자인과에서 전통 문양 디자인 등을 과제로 제출해 발표하면 대부분 반응이 시큰둥했다. 하지만 인간문화재가 꿈이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런 생각은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로 편입하면서 더 강해졌다"면서 "스님을 알고, 사찰을 알고, 불교를 알아갈수록 안에 담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전통문화 일상화'는 김 대표의 화두이자 (주)마인드디자인의 목표다. 이런 마음과 목표를 가지기까지 바탕에는 불교가 있다. 김 대표가 선재수련원에서 수행할 당시 인도에 봉사활동을 다녀올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이 한국 봉사단을 부러워하는 것을 봤다. 이는 한국이 인도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이었다.

김 대표는 "자본주의가 이곳(인도)에 들어오면 자신들이 가진 전통문화 정체성이 망가질 게 뻔한 일이었다. 자본주의 안에서 전통문화 정체성을 지키고 이를 일상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필요했다"면서 "(주)마인드디자인의 시작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자본주의 안에서 전통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가 있어서 성장하는 기업

1인 청년 기업으로 시작한 (주)마인드디자인은 이제는 불교계에서 유수의 청년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과 (주)마인드디자인은 '불교'가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던 인물이고 회사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2등을 했던 경력으로 시작했던 불교 주얼리 상품 개발 사업도, 이를 베이스로 시작한 사회적 기업도 모두 도전이었다. 불교에 전혀 기반을 가지지 못한 김 대표는 불교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웠고,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는 "너희가 왜 사회적 기업이냐, 불교 기업이지"라는 무시아닌 무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끊임없이 불교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무작정 사찰에 찾아가 자신이 만든 명상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모습. (주)마인드디자인이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주)마인드디자인의 문화상품 '숨'. 부처를 형상화한 향꽂이 이다.



2015년 칠석데이. (주)마인드디자인을 대표하는 이벤트 행사로 자리잡았다.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불교 전통문화 일상화가 목표”

펜던트 등 주얼리 제품을 보여주고 납품을 허락받았다. 이를 위해 공양간에 가서 설거지를 하며 공양주 보살들과 친분을 쌓고 스님들이 오시는 시간을 들었다. 3일 동안 기다린 적도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교에 기반을 두고 영업활동을 했던 것은 모두 ‘불교는 문화의 보고’라는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반만년의 한민족 역사에서 불교가 가진 위치는 매우 높습니다. 전체 지정 문화재 중 절대 다수가 불교 문화재이고, 지금도 유 · 무형의 문화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은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문화산업 측면에서 보면 불교는 그야말로 보고이며, ‘전통문화의 일상화’라는 기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서울국제불교박람회”라며 “불교 주얼리 상품을 들고 패기 하나로 찾아왔던 저를 돌려보내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줬던 스님들과 저의 견문을 넓혀줬던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현재 (주)마인드디자인을 있게 해준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는 3년안에 사찰 2곳의 브랜딩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모두 수행하고, 모두 평등한 공동체

(주)마인드디자인 구성원 모두 ‘전통문화의 일상화’라는 기치 아래 모였다. 창업 초기에는 대부분 불자들이었지만, 규모가 커지니 종교도 다양해졌다. 입사 경로도 다양하다. 지인 추천부터 페이스북 지원, 김 대표의 강의를 듣고 인턴으로 지원한 사람까지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직급이 아닌 수행과 도반이라는 개념이다. 김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창립하면서 승가 수행공동체의 대중공사, 자자, 포살 등을 회사 운영에 적용했다. 일반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대중공사는 반성의 시간, 자자와 포살은 장단점 이야기 · 선물 주는 시간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보통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IT계열 대기업 회사들의 업무환경이 이슈가 된다”며 “한국에서 일도 잘하고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려면 일하는 곳이 꿈을 꾸는 곳이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마인드디자인은 호칭부터 자유롭다. 외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부르지만, 내부에서는 직급과 상관없이 이름에 ‘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모두 평등해야 한다는 회사의 운영 기조가 담겨 있는 것이다.

복지제도에는 ‘마음 쉼’이라는 일종의 안거제도가 있다. 스스로 수행을 원하면 30만원 한도에서 수련비와 4박 5일간의 수련 휴가가 지원된다. 꼭 불교 수행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개신교인은 기도원, 가톨릭 신도는 피정을 해도 된다. ‘수행하는 평등 도반 공동체’를 표방하는 (주)마인드디자인이라 가능한 복리후생이다.

임직원들의 호응도 좋다. 수행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에 종교가 달라도 큰 부담이 없다. 수행이란 ‘스스로 깨닫고 성장 · 발전하는 것’이라는 김 대표의 생각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주연 지원부 부장은 “보통 회의에 들어올 때 바삐 오느라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회의 시작 전 짧게나마 명상을 하며 스스로를 추스르는 시간을 갖는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으니 업무와 자아성찰, 모든 부분에서 효과적”이라면서 “또한 승가 공동체의 계율과 청규와 같은 공동의 약속 등을 정해 스스로 변화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 제외하면 전통문화 이야기 못해
박람회, 불교 산업 가능성 보여주는 곳
사찰 브랜딩 사업통해 일반과 가교 역할
“불교 산업은 블루 오션, 가능성 무궁해”

김 대표의 강연에 감명 받아 인턴으로 입사해 올해 정직원이 된 사원 김재연 씨는 종교가 가톨릭이지만 승가 수행 공동체같은 조직 분위기에 거부감이 없다.

김재연 씨는 “(주)마인드디자인은 저에게는 첫 회사”라면서 “(주)마인드디자인은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이 한 개의 프로젝트를 맡고 있지만, 경쟁은 없다. 서로 협업하고 함께 상생하는 도반과 같다”고 설명했다.

나를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주)마인드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전통문화 일상화’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진하려 하는 사업 중 하나가 ‘사찰 브랜딩(Branding)’이다. 사찰 브랜딩 사업은 사찰 아이덴티티(일명 Temple identity, T.I)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사찰별 특별한 문화상품 ·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다. 3년 안에 사찰 2곳의 브랜딩을 완성하는 것이 (주)마인드디자인의 목표다.

김 대표는 “불교적인 요소를 기반해 전통문화가 세련되게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주)마인드디자인은 사찰과 일반문화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통문화 허브공간과 연구소를 통한 교육 사업,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소외문화보존 구호 사업 등을 하고 싶다”고 비젼을 밝히기도 했다.

구성원들도 스스로를 밝혀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스스로를 발전시켜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을 공동된 목표로 삼고 있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일하는 재미가 있는 회사가 됐으면 합니다. 재미있는 삶과 사회의 큰 뜻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청춘의 도반이 됐으면 합니다.”〈이주연 부장〉

“(주)마인드디자인은 저에게는 첫 회사입니다. 이곳에 오면서 이 회사는 어느 분야에서든 한 획을 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붓에는 여러 무수한 말총들이 있어서 글이 써집니다. 한 획을 긋는 붓의 말총 중 하나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김재연 사원〉

(주)마인드디자인은 젊다. 그래서 밝고 활기차다. ‘정년’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린다. 이 젊은 부처들은 불교 전통문화의 일반화라는 불국토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수행’과 ‘도반’이라는 기치 아래서.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전법일기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천주교 수녀님과 강연 차 강원도에 가는 길이었다. 대관령을 넘어 갈 즈음 폭설로 차가 멈췄다.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은세계가 펼쳐졌다. 창문을 조금 내리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흘러들어 왔다. 멀리 산에서 무언가 꼬물꼬물 내려와 지켜보는데 수녀님이 먼저 소리쳤다. “어머나, 토끼예요!”

배가 고파 먹이를 구하러 내려왔을까, 폭설에 길을 잃었을까, 어디로 갈지 몰라 경중거리다 멈춰 서서 귀를 쫑긋거리는 토끼를 보고 저마다 귀엽다는 듯 눈을 떼지 못했다. 그때 차에 동승한 누군가가 말했다. “통통하니 맛있겠는걸요.”

듣기 거북했지만 농담이려니 하며 조금 웃고 말았다. 토끼고기를 먹어본 이는 이었다.

또 부처님은 육식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셨다. 첫째, 몸이 아플 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둘째,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공양한 것은 먹지만, 일부러 청해서 먹지 말라. 셋째, 삼정육을 먹어라. 삼정육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고기로, 죽이는 모습을 보지 않고, 죽어가는 소리를 듣지 않고, 특별히 나를 위해 죽인 것이 아닌 경우이다. 육식에 대한 이런 기준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과 부합하여 ‘고기를 먹지 말라’는 대승보살계율이 제정되었다.

육식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찰음식을 말할 때 육식이냐, 채식이냐에



그림 · 박구원

토끼를 맛으로 기억한다. 바로 업(業)의 결과이다. 업이란 인과관계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는 이치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품이 만들어진다. ‘어떤’은 음식의 종류만이 아니다. 음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생각하는가. 이는 삶의 태도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닿아 있다. 부처님께서 고민을 상담하러 온 이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라고 물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보통 ‘사찰음식’ 하면 채식을, 고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 번도 채식을 장려하고, 육식을 금하지 않으셨다. 부처님 시대, 수행자들은 탁발을 했다. 발우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얻어 생활하는 수행방식이다. 신도들이 보시하는 대로 먹어야 했기에 간혹 고기도 먹어야 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먹고 남은 음식은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주었다. 내일을 위해 먹을 것을 남기지 말라는 가르침이었다. 이렇듯 탁발은 아집을 버리고 절제하고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행

지나치게 갇혀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채식과 육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식(小食)’이라고 하셨다. 욕심에 대한 경계이다. 채식만 고집하는 것도, 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는 것도 모두 집착과 욕심이다. 이것이야말로 고(苦)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격이다. 사찰음식의 근본은 마음속 깨달음을 지향하는 선식(禪食)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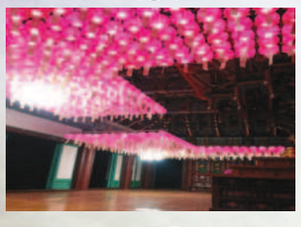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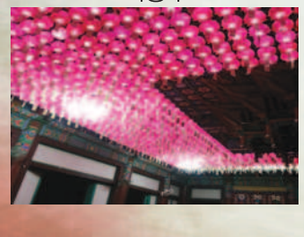
내가 진행하는 사찰음식 강의는 보통 1년 과정이다. 시작할 때는 수업 동기를 묻지 않지만, 끝나는 날만큼은 꼭 소회를 묻는다. 이번엔 한 분이 이런 소감을 말해 괜스레 콧등이 시큰해졌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겠다고 선재 스님 사찰음식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어느새 저는 삶의 수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처음 사찰음식을 배우겠다고 스스로 찾아왔듯, 앞으로도 스스로의 행복, 나아가 세상의 모든 인연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행복을 함께 열어가는 보살이 되기를 바란다.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사찰고급연등 · 자동승하강시설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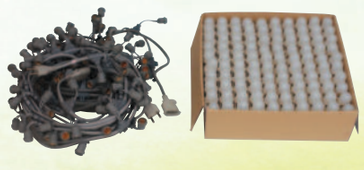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가야 공단등 : 다홍, 보라 8cm

▶비닐만월등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마음이 생기니 法이 생긴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신라 때 원효 스님의 일화가 있다. 의상 스님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에 노숙을 하게 된 원효 스님은 한밤중에 잠을 자다 갈증이 일어나 잠에서 깼다. 어둠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다 마침 조그마한 웅덩이에 고인 물이 손끝에 감지되어 입을 대고 마셨다.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잠을 잔 뒤 이튿날 깨어 길을 떠나려다 보니 어젯밤에 마셨던 웅덩이의 물은 해골에 썩어 고여 있는 물이었다. 갑자기 원효 스님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세가 올라옴을 느꼈다. 그 순간 원효 스님의 뇌리에는 한 생각이 섬광처럼 번쩍하며 스쳤다. 해골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안 탓으로 비위가 상한 것이었다. 모르고 지나쳤다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인데 해골을 봄으로써 기분 좋지 않은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장난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마음이 생기니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니 가지가지 법이 없어지는구나.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요, 만법이 인식하는 생각에 좌우되도다.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달리 구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독백한 원효 스님은 가던 길을 되돌아 신라로 돌아오고 말았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는 말은 〈능가경〉에 설해져 있다. 〈기신론〉

신라 원효대사 해골물 일화
마음에 '생각' 일어나는 것
오염에 본래청정 변치 않아

은 〈능가경〉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많다.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에 생각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기신론〉에서는 의식을 설명하면서 상속식과 분리식을 말한다. 의식이 집착을 일으켜 사물에 대해 '나(我)'와 '내 것(我所)'이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식이라 하고, 또 육근(六根-眼·耳·鼻·舌·身·意)이 육진(六塵-色·聲·香·味·觸·法)을 대하여 경계를 분리시키면서 번뇌를 일으키므로 분리식(分離識)이라 하며, 안팎의 모든 사물의 양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분별사식(分別事識)이라 한다. 또 의식은 견애번뇌(見愛煩惱)에 의해 증장되어 커진다.

견애번뇌란 견(見)은 지적(知的)인 것이고 애(愛)는 정적(情的)인 것이다. 이론적인 면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생기는 의심이나 오해 따위를 합쳐 견애번뇌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번뇌의 종류를 이치에 어두워 생기는 것을 견혹(見惑)이라 하고 행위의 측면에 어두워 생기는 것을 수혹(修惑)이라 한다.

이치를 바로 깨달아 가는 길인 견도(見道)와 윤리적 실천을 완성해 가는 수도(修道)의 단계를 구분하여 견도위(見道位)에서 끊는 번뇌를 견혹, 수도위(修道位)에서 끊는 번뇌를 수혹 또는 사혹(思惑)이라 하는데, 이지적(理知的)인 견혹은 끊기 쉬운 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번뇌는 끊기 어렵다고 보았다. 예로부터 견혹은 '돌을 깨듯이 단박에 끊을 수 있다'(頓斷如破石)고 하였고, 수혹은 '헝클어진 실을 풀듯이 점점 끊는다'(漸斷如藕絲)고 하였다.

식(識)은 원래 무명의 훈습(薰習)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이다. 〈기신론〉 본문에서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일어난 식(識)은 범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이승들(성문(聲聞)·연각(緣覺))의 지혜로도 깨닫지 못한다. 법신보살들이 처음 바른 믿음을 내고 발심하여 관찰해서 법신을 체험하더라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며 나아가 보살의 마지막 지위에 이른 이라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무명의 훈습에 의하여 일어난 식은 최초의 본식인 아뢰야식을 말한다. 이 식은 가장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것(細中細)으로 부처님만이 능히 끊는 것이라 하였다. 마음의 본체 각(覺)은 불가사의하다. 맑고 깨끗하면서도 때로는 물들어져 오염이 되고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염(染)·정(淨)·동(動)·정(靜)은 상대적인 별개의 상태지만 결코 개체적으로 분리되는 별개의 것이 아닌 비일비이(非一非異)이므로 알기 어렵다. 마음의 자체성품은 본래 청정하지만 무명이 있기에 무명에 오염되어 오염된 마음이 있게 된다. 비록 오염된 마음이 있으나 본래의 청정함은 변하지 않는다. 이 이치를 부처님만이 안다고 하였다. 다시 미혹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전일적인 한 법계를 통달하지 못하므로 본래 그대로의 참 마음과 상응하지 못해 홀연히 망념이 일어난 것을 무명이라 한다"고 하여 무명의 정의를 다시 '생각이 일어난 것'(念起)이라 하였다.

자비 보시 공덕은 한량이 없으니…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⑩ 자비로운 보시의 공덕

為己施一切 得報如芥子
(위기시일체 득보여개자)
救一厄難人 勝餘一切施
(구일액난인 승여일체시)
眾星雖有光 不如一月明
(중성수유광 불여일월명)
眾生垢心重 所施恒為己
(중생구심중 소시항위기)
菩薩悲心施 如灰去眾穢
(보살비심시 여회거중예)
救濟慈悲施 普為群生類
(구제자비시 보위군생류)
如是慈悲施 功德無窮盡
(여시자비시 공덕무궁진)
如此微妙施 安樂諸眾生
(여차미묘시 안락제중생)

번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체에 보시하는 것은 개자(겨자) 씨만큼의 과보를 얻을 뿐이지만, 한 명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나머지 일체에 보시하는 것만큼 수승합니다.

뭇 별들이 비록 빛을 내지만 하나의 달의 밝음 같지 않듯이, 중생에게 번뇌심이 거듭되는 것은 늘 자신을 위해 보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보시하기에 중생의 번뇌가 재처럼 식었고, 자비로운 보시로 구제하되 두루 모든 중생들을 위해 합니다.

이와 같은 자비의 보시는 공덕이 한량이 없고, 이와 같은 미묘한 보시는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합니다.

해설

초의선사가 이르기를, "중생이 중생인 것은 욕심이 많아서다. 그러나 욕심으로 치면 부처만큼 욕심 많은 이가 없다"고 했다. 놀라운 직관력이 아닐 수 없다. 부처만큼 욕심 많은 이가 없다니! 온갖 중생을 다 구제하시려는 부처님의 원력(願力)을 '욕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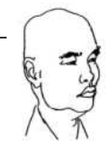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중생에게 번뇌가 거듭됨은
자신을 위해 보시하기 때문

제바라 보살의 가르침은 좀 더 직접적이다. '중생에게 번뇌심이 거듭되는 것은 늘 자신을 위해 보시를 하기 때문입니다(眾生垢心重 所施恒?己)'라고 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원력(願力)'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다. 불자들이 원력이라는 말 대신에 '기도(祈禱)'라는 말을 즐겨 쓴다. 기도는 신께 바라는 바를 비는 일이다. 소원을 비는 일이며, 또한 비는 의식을 이르는 말이다. 불교에 있어 '기도'라는 말 보다는 '원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다. 원력의 근본은 중생구제에 있다. 원력은 곧 보살심이자, 보살행을 다짐하는 마음이며 실천이다.

대표적으로 불자들이 예불 때마다 독송하는 〈천수경〉이 원력을 발원하는 내용이다. '개경게'부터 이미 발원의 문장이 시작되고 있으며,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 계청'을 시작으로 관세음보살님께 발원하는 문장으로 경이 시작된다. '여래십대발원문'이 그렇고, '사홍서원'도 모두 발원문이다. 즉, 불자의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불법을 배워 지혜를 얻고, 방편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마음의 자비로운 보시라야 공덕이 한량없고,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한다. 그러면 번뇌심이 거듭되는 자신의 중생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구제가 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바람 부는 날

눈이 쌓이고 있다. 싸락눈이다. 한결 바람도 차갑게 느껴진다. 오후 5시 반, 산사엔 어둠이 빠르게 찾아든다. 산자락에 어둠이 깃들 이 때쯤이면 산은 텅텅 빈 채로 내게 말을 걸어온다. 비어있음의 적멸의 의미를 일깨워주며 적조로움의 편안함을 내게 안겨준다. 슬프나 슬프지 않고, 쓸쓸하나 쓸쓸하지 않게 비워둠의 여유를 일깨워 주고 있다. 습관처럼 나무침대에 앉아 졸고 있지만 화두는 새가 되어 추억의 숲을 날고 있다.

어린 시절의 코흘리개 아이가 절집에 온 후, 잔심부름으로 시작해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장만하며 길고 긴 5년이라는 세월을 넘기게 된다. 아이의 얼굴이 태어날 때부터 수상쩍게 생긴 탓도 있지만 승려 될 수 있는 기회를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자인 잘 생긴 행자들에게 우선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트고 터져

코흘리개 아이는 이제 회향할 나이 됐다
山 텅텅 빈 날엔 바람 불면 울고 싶다

도, 매 끼니마다 쌀 씻어 밥 지으며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울먹였다. 김칫독에서 포기김치를 꺼낼 땐, 김치 국물이 터진 손등에 스며들어 외마디 비명을 지를 만큼 뼛속까지 파고드는 아픔이었다.

쌀뜨물에 김치 국물에 트고 터진 손등이 아리고 부어 왔지만 그럴 때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먹였고, 고향집이며 어머님을 찾고 부르며 베갯잇을 적시는 일이 일과처럼 되어 있었다. 손등에 바르는 약은 멘소래담, 약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를 일이나 멘소래담도 아껴서 발라야 할 만큼 행자시절은 아프고 시린 추억으로 남아있다.

질기고 긴 행자 수업을 마치고 통도사 강원에서 경전 속의 어려운 한자 익히기를 한동안 하다가 깨달음을 위해 해인사로 오게 된다. 성철 스님이 방장으로 계신 해인총림의 선원은 대장부들의 활기참이 가득한 열려 있는 도량이었다.

그런데 내겐 화두 몰입이 쉽지 않았다. 온갖 망상번뇌가 바람에 날리는 벚꽃처럼 순서도 절차도 없이 날아다녔다. 앉아있는 한 시간이 지루했고 어떤 때는 남아있는 5분도 지겨워 벽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원망하는 일도 많았음을 고백한다.

3개월 동안 누워 잠자지 않고 앉아서 정진하는 여섯 명에 뽑혀(사연이 길지만) 조사전에서 용맹 정진하는 일도 있었다. 나는 요령껏 앉아서 졸았고 사물이 둘로 셋으로 보이는 착시현상과 환시(幻視) 환청으로 정신이상증을 일으켜 한 달반 만에 조사전 선원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 뒤 군에 입대해 3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불교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심부름을 하게 된다. 불교신문사와 총무원에서 10여 년을 허송세월한 후 늦게야 철이 든다.

영혼이 있는지, 내생이 있는지, 부처의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 인도에서 3년, 네팔에서 2년, 티베트에서 3년, 중국에서 7년을 합쳐 15년을 해외에서 치열한 구도자로 머물게 된다.

인도에서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을 통해 영혼과 내생에 대해, 깨달음의 내용에 대해 온갖 의혹이 일시에 풀리게 된다.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의 좋은 스승, 착한 벗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이후, 티베트에서는 죽음을 예견하는 죽음의 자유로움을 익히게 된다.

중국의 7년은 이, 얼, 싼, 쓰로부터 시작해 중국의 고어(古語)를 배우며 아함부와 망등부의 경전내용을 살피게 된다. 수행과정을 드러낼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일이지만 '참봄(見)', '참앎(知)'을 이루었다면 비밀스럽게 사라질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회향을 해야 한다.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살되 법거량을 즐긴다. 꾸밈과 조작됨이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상이 평화롭고 행복하다. 헐떡임과 흔들림을 줄여 자유인으로 살고 있다.

이제 한 수행자가 늙디 늙어 마침표 찍을 날을 기다리며 추억의 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오늘 저녁처럼 싸락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고 산이 텅텅 비인 날에는 바람만 불어도 울고 싶다. 바람 부는 날엔 죽음도 앞당겨 어디론지 한 점 바람으로 떠나고 싶다.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불교실전의식 학인 모집

범음.범패.작법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수복불교대학에서는 포교활동 및 포교원.
사찰개원을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각 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와 교학등을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1년 과정)
◇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
◇ 천도재. 49재
◇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등
◇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홍고 등)
◇ 기초교리 및 교학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장 소 : 수복불교대학
※ 1년 수련 후 법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수 복 불 교 대 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7-49(이수역 10번 출구 부근)
연락처 : 명선 010-8588-2816 / 묘련 010-2250-7499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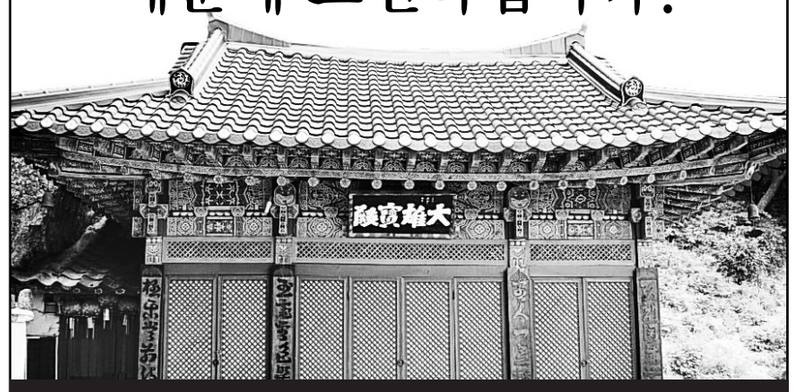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 경상도 : 010-4187-0062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경기·영서 목불 제작 1인자… S자형 옷주름 특징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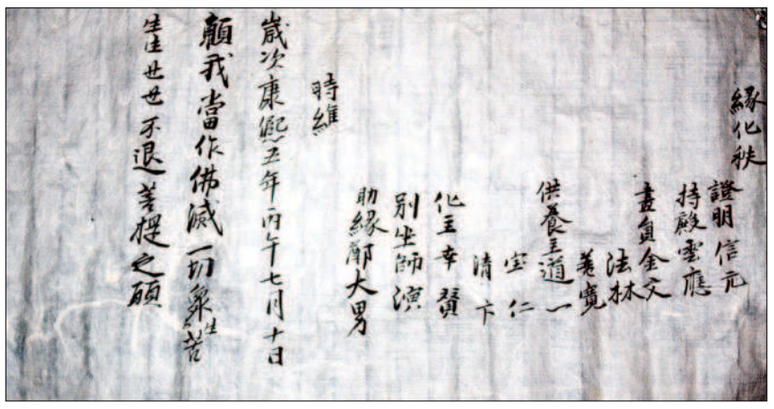
④ 금문(金文) 스님

17세기 후반 활동한 조각승
호남 색난, 영남 승호와 다른 계보
목불을 주로 조성

문헌 통해 활동 시기·지역 가늠
경기와 영서 중심으로 활동하며
조각승 혜희를 계승한 직계 제자
상주 운봉사 괘불 조성 시주



17세기 후반 조각승 금문 스님의 대표작 안성 봉덕사 석가여래좌상. 나무로 만든 목조불상으로 두꺼운 대의가 오른쪽 어깨에 완만하게 사선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다.



안성 봉덕사 봉안 목조석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 내 조각승들. 불상 조성을 담당했던 스님으로 금문 스님이 기록돼 있다.

17세기 후반에 호남의 색난(色難) 스님, 영남의 승호(勝湖) 스님 등과 같은 시기에 중부지방인 경기(京畿)와 영서(嶺西)에서 활동한 금문(金文)스님은 17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혜희(惠熙, 慧熙) 스님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彫刻僧)이다. 금문 스님은 스승 혜희와 마찬가지로 주로 나무로 불상을 제작하면서 불교공예품 등을 중수였다. 현재 금문 스님이 우두머리가 되어 만든 목조불상은 전국에 걸쳐 3건 20여 점이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금문 스님은 언제 태어나서 열반에 들었는지 등 조각승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불화 화기 등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와 지역, 조각승의 계보,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할 수 있다.

금문 스님이 제작한 가장 오래된 작품은 혜희 스님을 도와 1655년에 충북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에 봉안한 목조관음보살삼존상이다. 그때 금문 스님은 불상 제작에 참여한 21명 가운데 17번째 언급되어 불상 제작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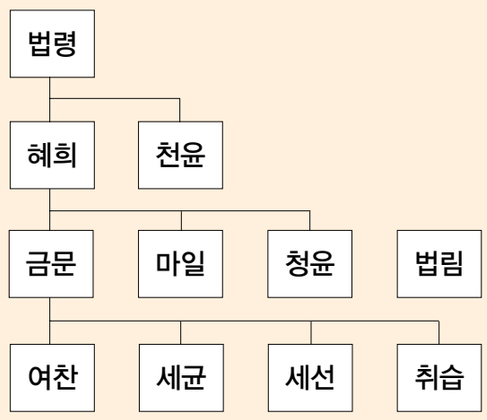
스님은 1662년 정월에 인조의 손자이자 소현세자의 셋째아들인 경안군 이씨와 그의 부인 허씨, 경자생박씨(庚子生朴氏)와 노씨(盧氏), 윤씨(尹氏) 등의 만수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궁인(宮人) 노예성(盧禮成)이 발원한 전남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을 혜희 스님과 만들었다. 이 시기 대부분의 중형불상을 최소한 5명 이상이 제작하지만, 이 보살상은 특이하게 두 명이 제작했다. 왕실에서 발원한 불상 제작에 혜희 스님이 금문 스님을 데리고 같이 작업한 것을 보면 가장 솜씨가 뛰어난 제자였을 것이다. 그 후 금문 스님은 수화승(우두머리)이 되어 제자들과 1666년에 경기 안성 봉덕사 봉안된 목조여래좌상을 제작하고, 1668년에 승일 스님이 제작한 경북 김천 직지사 비로전 석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제작에 참여하는데, 승일 스님은 혜희 스님과 조각승의 계보가 달라 금문 스님이 일시적으로 불상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76년에 혜희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전북 완주 대둔산 안심사 화장암 불상(김제 금복사 봉안)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금문 스님은 1686년 4월에 수화승으로 강원 횡성 봉복사 반야암 관음보살좌상을 조성했다.

또한 금문 스님은 1701년에 서울 강남 봉은사 법왕루 목조불패를 새로 고치고, 1703년 5월에 경북 상주 운봉사 괘불(문경 김룡사 봉안) 조성 시 복장시주(腹藏施主)로 참여하였으며, 6월에 부산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삼세불좌상을 중수하면서 개금하였다.

금문 스님은 1706년에 경기 안성 칠장사 지장전 불상을 2월 2일에 시작하여 5월 21일에 완성하였다. 17~18세기에 새로 명부전에 불상을 30여 점을 봉안하는데, 13명의 조각승이 대략 세 달 반이 걸려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금문 스님이 어느 지역 사찰에 주석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혜희 스님이 1650년경에 계룡산에 거주한 기록이 밝혀져 같은 지역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금문스님 계보의 조각승



이런 문헌을 통하여 금문 스님은 1635년경에 태어나 출가한 후 수련기를 거쳐 혜희 스님과 1655년에 충북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불상과 1662년에 순천 송광사 관음전 보살상을 조성하고, 1666년에 수화승으로 안성 봉덕사 봉안된 불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금문은 1668년에 수화승 승일(勝日) 스님과 경북 김천 직지사 비로전 불상을, 1676년에 수화승 혜희와 전북 완주 안심사 화장암 불상(김제 금복사 봉안)을 제작하였다.

이후 수화승으로 1686년에 강원 횡성군 봉복사 반야암(般若庵) 목조관음보살좌상(원주 구룡사 봉안)을 조성하고, 1701년에 서울 봉은사 목조불패를 개조하였으며, 1703년에 부산 기장 장안사 석조삼세불좌상을 중수·도금하였다.

그리고 금문 스님은 1706년에 경기 안성 칠장사 명부전 불상을 만들었다. 금문 스님은 주로 혜희 스님과 불상 제작에 참여하고, 혜희 스님이 살았던 충남 공주 계룡산 근방에 거주하면서 경기와 충청도 사찰이나 암자에 불상을 제작하였다. 1703년 이전에 종이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가선(嘉善)의 공명첩을 이름 앞에 쓴 것으로 보아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가에서 발급한 공명첩을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다.

금문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법령(-1615-1641-)→혜희(-1640-1677-)→금문(-1655-1706-), 마일(-1655-1701-), 청윤(-1684-1716-)→세균(-1703-1730-), 여찬(-1706-1746-) 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문은 경기 안성, 충북 횡성, 전북 완주, 경북 김천, 부산 기장 등의 사찰이나 암자에 불상을 제작하거나 중수한 것으로 미루어 그의 활동 지역이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금문 스님이 만든 안성 봉덕사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86.4센티미터로, 1933년 조만해 스님이 평택 포석면 수도사에서 모셔왔다고 한다. 불상은 얼굴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신체와 얼굴이 1:0.35의 비율로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불상보다 신체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가 표현되고, 정상부에 좁고 높은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가늘고 좁은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있다. 방형의 얼굴에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콧등이 평평한 삼각형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하고 있다.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고 바닥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다.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비스듬히 짧게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하반신에 펼쳐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각지고 정리된 느낌을 준다. 그 세부표현은 복부에서 한 가닥이 넓게 펼쳐지고, 끝단이 지그재그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한 혜희 스님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 마일과 청윤 등이 제작한 불상에서도 볼 수 있는 요소이다.

금문 스님이 만든 원주 구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높이가 61센티미터로, 중앙에 화불을 장식하여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고, 화염문(火焰文)과 화문(花文)으로 장식된 높고 커다란 보관(寶冠)을 착용하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넓적하며, 살짝 뜬 눈은 눈꼬리가 위로 약간 올라갔고, 콧등이 평평한 코는 삼각형을 이루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 보살상은 17세기 중반에 제작된 보살상보다 어깨와 무릎 폭이 좁은 편이다. 양손은 손목에 끼우게 제작되었고, 오른손은 가느다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어깨 높이까지 치켜들고, 왼손은 손등을 무릎 위에 얹고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대의는 오른쪽 어깨에 짧게 걸친 후,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오른쪽 어깨를 덮은 편삼과 겹쳐져 있다. 하반신의 대의처리는 두 가닥의 주름이 완만하게 펼쳐져 흘러내리고, 가장 안쪽의 대의 끝단은 반원형으로 둥글게 마무리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보살상의 대의 처리는 17세기 후반에 혜희(惠熙)의 계보를 이은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에서도 나타나는 요소이다.

금문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바깥에 걸친 두꺼운 대의가 오른쪽 어깨에 걸쳐 완만한 사선을 그리며 늘어져 있고, 왼쪽 어깨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대의자락 상단에 사선 방향으로 접힌 부분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1684년에 마일이 제작한 불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승인 혜희 스님이 제작한 목조불상에서는 오른쪽에 걸친 대의자락의 끝자락이 완만하게 늘어졌고, 왼쪽 어깨에 수직으로 흘러내린 깃 부분 상단에 자연스럽게 접혀 있어 금문 스님이 불상 제작에서 다른 조형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문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하반신에 걸친 옷자락도 끝부분이 각진 형태를 하면서 복부에 앞으로 넓게 펼쳐진 옷자락 끝단이 S자형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옷주름 처리는 같은 시기에 활동한 다른 조각승의 계보에서는 볼 수 없는 요소이다.

그밖에도 금문 스님은 암자에 봉안할 관음보살상을 주로 만들었고,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경기와 충청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금문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충북 괴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 충북 제천 무암사 목조여래좌상, 강릉 백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경북 봉화 중대사 목조보살좌상, 경북 고령 반룡사 목조지장보살좌상, 경북 문경 대성암 목조보살좌상이나 혜국사 목조삼존불좌상 등으로, 이들 불상은 양식적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 순도 99% 순금
- 작품크기 30㎝×2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2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128,000원 (액자 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78,000원 (액자 포함)
- 나한도족자 : 100,000원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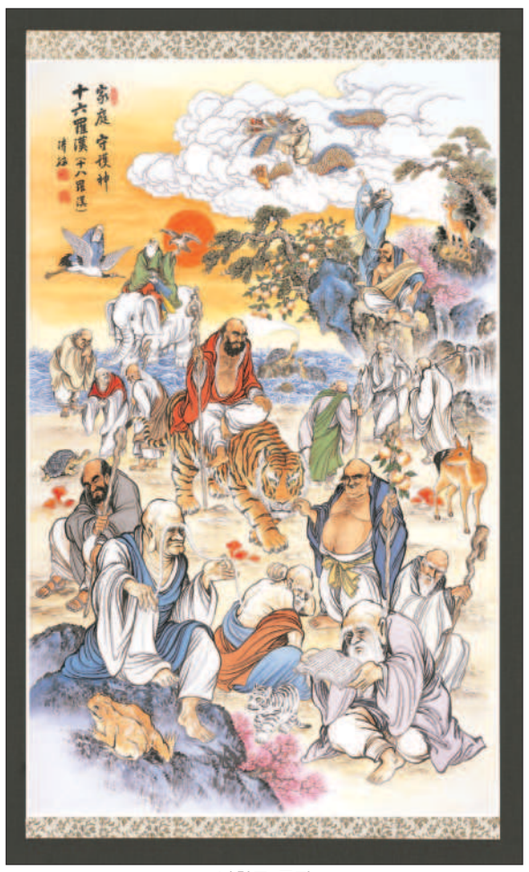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 소림 달마도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한도 족자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강조하였으며, 실제는 족자 완성품임.)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나를 보며 번뇌 내려놓으라는 '꽃부처'

조재익 작가, 3월 9~15일 '붓다-꽃이 피다' 展


'붓다-꽃이 피다VI' (조재익 作)


'붓다-꽃이 피다 I ' (조재익 作)

부처와 꽃, 존재 깨어나는 순간
유화물감 덧칠, 질감 깊이 표현

불교 공부하며 주변 고통 관심
"보는 이들의 마음 평온해지길"

캔버스 속 넙데데한 부처님 얼굴이 한없이 평온하다. 손을 뻗으면 어루만질 수 있을 것만 같다. 합장한 부처님 주위로 무수히 많은 꽃잎이 흩날린다. '꽃잎이 부처인가, 부처가 꽃잎인가.' 문득 꽃잎과 부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의 진리 속에 모든 것은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의 찰나를 표현한 그림에는 긴긴 여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불상과 절터 등을 소재로 10여 년째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조재익 서양화가의 제16회 개인전 '문득, 꽃이 피다'가 3월 9~15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부처와 꽃, 옛길, 오두막 등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림 15여 점이 선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붓다-꽃이 피다 I '. 주위에 흩날리는 하얀 꽃잎 사이에서 부처님은 합장한 채 고요히 미소만 짓고 있다. 활짝 핀 꽃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하고, 이내 '화무십일홍'을 절감케 하듯 나뭇가지와 작별하며 멸하는 꽃잎. 부처님은 마치 순리이자 진리인 반복되는 생멸의 연속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작가는 이를 통해 불교적 가르침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면서도 부처와 꽃을 '존재가 깨어나는 순간'으로 표현했다. 또한 번민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범부중생이 사바세계에 오롯하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돼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조재익 화가는 "불교를 공부하다보니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며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불상과 꽃을 조화시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했다"고 전시회 작품을 소개했다.

홍익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조 씨는 소싯적 치기 어린 마음에 남들에게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다. 자신의 우상들처럼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엔 '나'를 잃었다. 서른 중반에 찾아온 방황이었다. 그러다 불교 수행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2007년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얀마 쉐우민수행센터로 떠났다. 그곳에서 '위라담마'라는 법명을 받아 스님으로 살았다. 그리곤 잃어버린 '나'를 찾았다. '지금 이대로가 그 자리.' 한국에 돌아온 그는 작품 활동을 다시 이어갔다. 이때부터 그의 작품에는 그간 줄곧 내비쳤던 욕심이 사라졌다. 대신 부처님과 평온함을 전해주는 소재들이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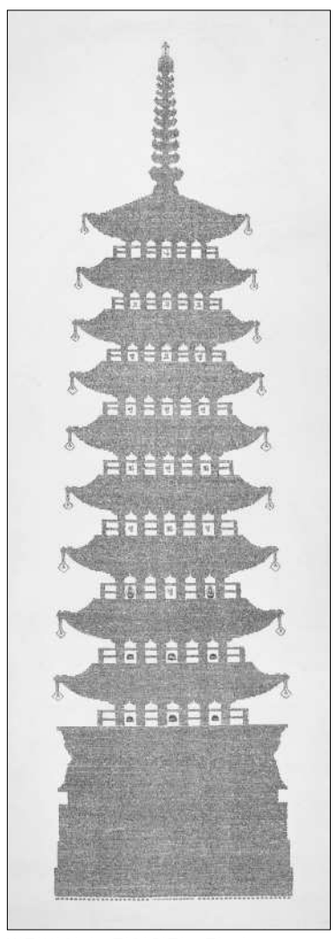
"수행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겪었던 많은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던 방향 자체가 없어졌죠. 어렸을 때부터 버리지 못했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듯이 이번 전시회가 관람객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잠시나마 위안을 얻는 기회가 되길 서원했다. 또 더 많은 불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라는 희망도 잊지 않았다.

"불상 앞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불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죠. 앞으로는 사찰이나 많은 불자들이 찾는 곳에서 전시회를 열고, 함께 소통했으면 합니다."

그가 선보이는 작품은 유화물감을 여러 겹으로 덧칠해 마티에르(matiere, 질감)를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들이다. 때문에 퍽 입체적이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 막연하게 좇기만 했던 우리네 행복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듯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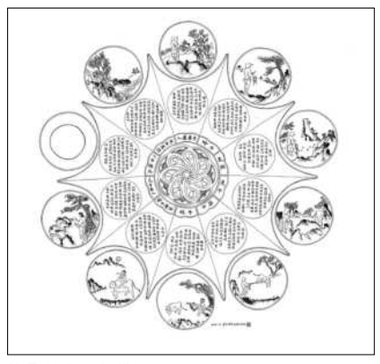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박경빈의 '묘탑연화경보탑도'.

미세한 붓끝서 만들어낸 佛心의 정수

매현 박경빈 사경전, 4월 30일까지 목아박물관서

6만9000여 자 담긴 보탑도 등 사경 작품 20여 점 전시 '눈길'


박경빈의 '심우도'.

수행의 일환이었던 사경(寫經)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경기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4월 30일까지 매현 박경빈 사경전을 특별초대전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박경빈 작가의 사경 작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가로 70cm, 세로 200cm 안에 〈묘법연화경〉 6만9384자의 경문을 담은 9층 보탑도는 압권이다. 이밖에도 부모은중경십게찬송을 변상도와 함께 한글로 사경한 병풍, 금강경 보탑도, 그리고 심우도 등도 눈길을 끈다.

매현 박경빈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전통사경 기능전승자인 외길 김경호 선생은 "백지묵서〈묘법연화경보탑도〉 작품은 가로 70cm, 세로 200cm의 한지에 약 7만 자의 경문을 9층 보탑의 모습으로 배치하여 서사해낸 수작"이라며 "경문 1글자의 자경은 2mm 내외이다. 이 안에서 각 글자의 모든 필획을 분명히 구사해낸 것은 심신의 혜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매산 김선원 한국교육서화협회 이사장은 "우리 문화의 정수는 불교에 있고 불교의 사경이란 우리 정신문화의 지대한 보고"이라면서 "매현 박경빈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천착해 온 것처럼 간단없는 정진으로 일관하면 마침내 산을 보고자하면 산이 보이고 물을 보고자하면 물이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현 박경빈 작가는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서예학을 전공했으며 여러 서예 단체의 초대작가,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해왔다. 2015년에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고 올해 1월 6일 ~12일 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의 기획 초대전 21세기 한국사경 정예작가의 일원으로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매현 박경빈 작가는 "사경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보다는 내면에 깃들어져 있는 올바른 정신세계를 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묵(墨)의 색깔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하얀 종이 위에서는 더도 덜도 아닌 그대로의 모습만 받아들인다. 이를 영롱한 법사리의 예술품을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031)885-9952~4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韓日 반가사유상 차이점은 무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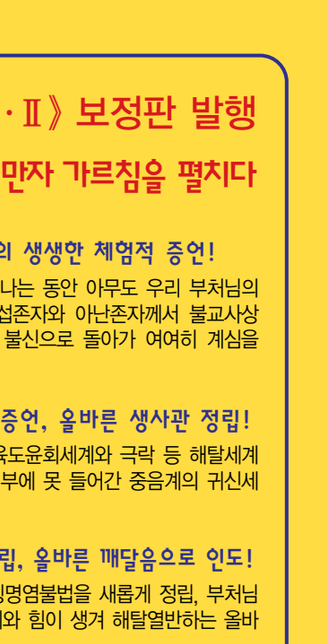
국립중앙博, 3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진행

한국과 일본 반가사유상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전시회 설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에 전시설명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3월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는 상설 전시관을 중심으로 불교 관련 프로그램이 대거 마련된다. 불교관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반가사유상(불교조각실, 3/16) △불상의 봉안과 의식(불교조각실, 3/23) △통일신라 철불(통일신라실, 3/30) 등이 진행된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보존과학 4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특별전 '보존과학, 우리 문화재를 지키다'(3/9, 3/16, 3/23, 3/30)의 전시 해설도 이뤄진다. 그동안 한국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켜온 과학적 보존처리 방법 및 복원 사례 등에 대하여 매주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말부터 개최하고 있는 기획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3/9, 3/16, 3/23, 3/30)의 전시 설명도 계속해서 진행된다.


불교조각실에 전시돼 있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02)2077-9000 **신성민 기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전하는 21세기 부처님의 메시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 철학서를 뛰어넘는 우주적 진리 신불교의 메시지!



보정판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부처님 계율 잘 지키고
대승경전 읽고 염불공부 잘 하면
금생도 다음생도 행복할 것이며
윤회생사도 벗어나고 왕생극락까지
하리라'고 가르치고 싶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보정판 발행

대승불교를 완성한 영산불교의 만자 가르침을 펼치다

1.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불교사상 최초의 생생한 체험적 증언!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하신 후 26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우리 부처님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불과를 이룬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께서 불교사상 처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절대계에 있는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 여여히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 사후 윤회세계와 해탈세계의 존재를 증언, 올바른 생사관 정립!
영산불교 큰스님께서 사후의 지옥 · 축생 등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를 직접 보고 그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못 들어간 중음계의 귀신세계도 있습니다.

3. 불보살이 되는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정립,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새롭게 정립, 부처님의 가피로 선정 · 삼매에 들어 눈이 열리고 지혜와 힘이 생겨 해탈열반하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4. 무아와 윤회주체간 논란에 종지부-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선언!
기존불교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토대로 윤회의 주체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 잡고 인간본체인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 인간과 우주만물의 지고한 탄생 비밀 처음으로 밝혀!
어떠한 종교 · 철학에서도 몰랐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비밀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겁이 되면 공의 힘과 창조 원리,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공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종자(공아자)와 물질종자(질료인)가 중중무진연기를 통해 인간이 되고 우주만물로 탄생하게 됩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2.24~2015.2.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한국인이가장좋아하는선문답	장웅연	불광출판사
3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4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5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6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톱텐최된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8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9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10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지금 우리는 붓다가 되는 실험할 때"

붓다 프로젝트

원담 스님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8500원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생겨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갈등이다. 그러면 이 갈등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에는 붓다식 해결법 등이 제시돼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욕망, 현대 사회의 모순 등을 비판하고 우리가 지향할 대안적 삶의 형태를 설명한다. 이 책의 초점은 후자쪽에 더 가깝다. 저자 원담 스님〈사진〉은 고따마 싯다르타라는 한 '인간'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이 책은 붓다의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따라간다. 그의 가르침을 프리드리히 니체, 칼 마르크스,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 알렉시스 토크빌 등 근현대 정치·철학가들의 사상과 견주고, 붓다의 삶을 체 게바라와 같은 혁명가의 삶과도 비교한다. 또한 영화 〈매트릭스〉 〈설국열차〉 등을 예로 들어 자본주의 체제와 그 안에 사는 인간들의 삶을 통찰하기도 한다. 저자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욕망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떠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한다. 개인의 마음은 사회적 조건에 뿌리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함께 가꿔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 원담 스님은 "절대 다수가 불행한데 어찌 자기 홀로 행복할 수 있으랴. 타인의 불행에 포위된 자기만의 행복이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지금의 현실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스님은 지금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아야 할 때, 우리 스스로 붓다가 되는 실험을 할 때라고 선언한다. '붓다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지극한 평화와 행복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트만 프로젝트 vs 붓다 프로젝트

'붓다 프로젝트'란 말은 켄 윌버의 '아트만 프로젝트'서 아이디어를 얻어 저자 원담 스님이 만들었다. 켄 윌버(Ken Wilber, 1949~)는 이 시대의 석학 가운데 한 사람으로, 23세에 〈의식의 스펙트럼〉을 저술한 이래 자아초월심리학이란 분야를 개척해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이다. 〈무경계〉 〈모든 것의 역사〉 등



붓다의 생애 연대기순으로 조명
에고 사라지는 고요한 경지 추구
"자기 초월해 내 삶의 주인공 되자"

한국서도 그의 책들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켄 윌버가 만든 용어인 '아트만 프로젝트'는 아트만(atman), 다른 말로 '영혼' '자아' '에고'가 자기를 실현키 위해 시공간을 무대로 인위적인 것을 창조해낸 활동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건립한 문명과 역사가 전부 아트만의 투사이며 아트만의 사업 즉 '아트만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그것은 '자기보존 욕구에 갇힌 에고'가 에고를 무한 확장해 '신적인 나' '우주적인 나' '영원불사의 나'를 누리고자 하는 활동이다. 전 세계의 자본주의화, 군사적 패권주의, 불평등의 심화, 환경파괴 등은 모두 이 아트만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붓다 프로젝트'는 이런 아트만 프로젝트와 대척점에 있다. 에고 강화를 위해 만든 장치들이 아트만 프로젝트 결과라면, 붓다 프로젝트는 에고가 사라질 때 완성되는 고요한 평화의 경지를 추구한다. 에고를 해체함으로써 갈등과 초조, 애씀과 자기소모, 헛된 열정과 투쟁이 완전히 사라진 고요하고 청량한 지복을 위한 실험이 바로 '붓다 프로젝트'의 의미이다.

요컨대 '아트만 프로젝트'가 '자기'라는 울타리와 한계에 갇힌 것이라면, '붓다 프로젝트'는 '자기'를 훌쩍 뛰어넘어 내 삶의 주인이자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다.

깨달은 전사, 붓다가 되는 실험

우리는 무엇을 더 갖고, 무엇을 더 이루고, 얼마나 더 많이 성공해야 이 허무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싯다르타, 이 사람을 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가졌다. 강인한 몸과 수려한 외모, 고귀한 가문과 혈통, 최고의 학문과 무예, 권력과 재력. 그런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선망하고 희구해 마지않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는 정들고 안락한 영토를 떠나 전인미답의 불모지로 탈주한다. 세계를 넘어서, 체제를 넘어서, 영토를 버리고 정신의 변경지대로 달려갔다. 그는 정신적인 개척자이며, 깨달은 전사다. 그와 함께 인류 새 실험이 시작됐다. 인류가 함께 깨어나기 위한 실험, 그것이 일명 '붓다프로젝트'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러면 싯다르타는 어떻게 '붓다'가 되었는가? 원담 스님은 싯다르타가 품었던 질문과 그가 자신의 삶을 걸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왜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만하고 부림을 당해야 하는가?' '붓다 프로젝트'는 이 같은 질문서 시작됐다.

자기 마음이 놓인 자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사는 세계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것, 답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무지(無知)와 무명(無明)이 아니고 무엇일까? 싯다르타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싯다르타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라는 울타리서 벗어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을 찾았던 것(붓다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저자는 우리도 붓다처럼 느껴보고, 붓다처럼 살아보자고 권한다.

붓다 프로젝트, 내 존재 자체가 되는 것

붓다를 신적인 존재로 포장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붓다 자신은 '정신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늘 경계했다. 붓다는 인간을 넘어선 지고한 존재, 세상을 등진 자, 신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저자는 싯다르타의 고행상은 경외심을 일으키지만 불교가 염세주의와 고행주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고행은 부처님의 일생 중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 고행상으로 부처님을 상징하거나 불교를 대표하는 일은 유익하지 않다. 저자는 오히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설법하시는 전법륜상을 불교의 상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주일 기자

초조하지 않게 살려면?… 〈금강경〉읽어라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

페이융 지음 | 허유영 옮김 | 유노북스 펴냄 | 1만 4500원



가장은 정년은커녕 언제라도 명퇴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학교를 졸업하고도 2년째 취업 준비중인 자녀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고, 생활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까 싶어 마트 계산원으로 나선 주부는 가스비, 자녀 교육, 남편 월급, 노후 준비 등 이런저런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들…. 세대와 성별, 직업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우리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불안,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간다. 그 불안, 걱정, 두려움은 마음에 초조함을 만들고, 그 초조함은 다시 일상을 옭죈다. 쉬고 싶지만 늘 죽도록 일해야 하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언제나 불행해질 일만 일어나고, 자유롭고 싶어 할수록 어쩐지 생활의 덫에 얽매이고 만다. 왜 그럴까? 2500여 년 전, 싯다르타도 같은 고민을 했고, 그의 생각이 담긴 오래된 책인 금강경에 그 이유와 대처법이 명쾌하게 나와 있다. 그의 깨달음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상 모든 행위가 고통을 일으킨다.
둘째, 우리가 고통스런 것은 어리석은 욕망 때문.
셋째,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고통없애는 유일한 방법.
넷째, 옳은 관념과 행동을 통해서만 고요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숙명처럼 안고 사는 초조함의 정체를 이 4가지 핵심 원리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후 나머지 인생을 이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데 보냈다. 부처님 지혜를 전하는 모든 불경 중에서도 금강경은 가장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책이다. 그렇다고 불교도를 위한 경전으로만 여기면 오해다. 실제로 한 경제학자는 순전히 경제학의 관점에서 금강경을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금강경이 없어도 이 세상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금강경이 없는 세상은 어지러운 혼돈 속에서 거칠게 덜컹거리며 움직일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헤쳐 나갈 때 꼭 필요한 나침반 같은 삶의 지혜가 금강경에 명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스승과 제자의 일종의 대화록인 금강경은 오로지 생과 사의 굴레에서 초조하게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해방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이해하기가 쉽고, 메시지가 명쾌하며, 무엇보다 대단히 현실적이다. 무려 2500년을 이어 내려 온 인류 최초의 자기계발서인 셈이다. 그만큼 영향력도 실로 강력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영혼을 깨달음과 자유의 길로 인도했다. 지금도 금강경의 지혜는 남녀노소 누구나,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나, 하는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누구나 삶의 나침반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 아니,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과부하에 걸린 현대인이기에 그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

금강경에서 세상은 고통의 바다이고, 인간은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 했다. 또 그 고통서 벗어나려면 올바른 관념과 행동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속세를 떠나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할까? 속세를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인은 온갖 인연으로 얽히고설킨 일상 속에서 어떻게 초조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르지 않는다"
초조함의 정체, 4가지 원리로 설명

그 비결은 금강경에서 안내하는 올바른 관념과 행동을 익히는 것이다. 그러면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초조하지 않게 살 수 있다. 먼저 이 세상과 삶은 갖가지 형상과 소리로 덧씌워진 껍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껍질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 어떤 것도 고정되지 않았고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사실이다. 자아의 이미지도, 타인의 이미지도, 우주만물의 이미지도, 시간의 이미지도 머물러 있는 게 없다. 있지만, 없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으니, 무엇에 집착한단 말인가! 모든 것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제 마음은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 내 삶 속에 힘든 일과 슬픈 일이 오고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이 오면, 그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 고통스럽거나 슬프고, 기쁘거나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임을 알기에, 그 감정에 집착하거나 머무르지 않는다. 그저 차분히 관조하면서 매 순간을 산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물론 금강경을 읽는다고 곧바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금강경을 읽으면,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주역과 불교의 융합과 회통! | 불법의 정수를 담은 최고의 논서!



주역선해
周易禪解

우익지욱 저 | 길봉준 역주 | 신국판 양장
1,248쪽 | 값 85,000원

유교의 최고 경전인 『주역』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한 유일무이한 책!

명대明代 4대 고승의 한 사람이자 중국불교의 마지막 완성자로 추앙받는 우익지욱 선사가 천태와 유식, 화엄사상 등을 종횡무진으로 응용하여 『주역』의 심오한 이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주역 및 선해 원문과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

용수보살의 불교대백과전서!

반야사상을 총괄한,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필수 길잡이!

신수대장경과 중국 고간본을 대조하여,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낸 역작!

대지도론
大智度論

용수 著, 구마라집 漢譯, 석법성 韓譯
전5권(총 4,000여쪽) | 신국판 양장 | 케이스
세트가 27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美 1세대 여성 불교지도자, 어떻게 행복 찾았나?

Lion's Roar, 샤론 살즈버그의 삶 조명

최근 서양인들 사이에는 초기불교에서 깨달음의 방법으로 사용한 '위빠사나(vipassana)'가 열풍이다. 서구에 불교가 전래된 후 서양인들은 초기불교의 각종 명상법을 현대 및 서구문화에 맞게 변형,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샤론 살즈버그(Sharon Salzberg, 1953~)는 미국의 제1세대 여성 불교명상 지도자다. 그녀는 미국 대표 명상지도자 잭 콘필드, 조셉 골드스타인과 함께 1975년 미국 동부 메사추세츠 주 바르(Barre)시에 통찰명상회(Insight Meditation Society, IMS)를 설립, 위빠사나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불교전문지 '라이언즈 로어(Lion's Roar)'는 최근 샤론 살즈버그와 인터뷰를 통해 그가 불교와 명상을 만나 행복을 찾기까지 여정을 소개했다. 현재 샤론 살즈버그는 자애명상 · 위빠사나 등 명상을 지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길을 안내하고 있지만, 그도 처음에는 고통 속에 살던 어린 소녀에 불과했다.

샤론 살즈버그는 어린나이에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한다. 9살 때 할로윈데이를 맞아 발레리나복을 입고 텔레비전을 보던 그녀는 어머니가 심하게 피를 흘리며 구급차에 실려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로부터 2주 후 어머니는 사망했고, 그녀는 조부모에게 보내졌다. 11살 때는 아버지마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이상증세를 겪는다.

살즈버그는 어린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지만, 어른들은 그녀에게 상실이나 비통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슴 속 고통에 귀를 기울이며 침묵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하다는 것을 배웠다.

살즈버그는 "외부 세계로부터 겪은 경험이 내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난 행복하지 않았고 얼어있었다. 아마 이런 감정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진실과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고통스런 기억
대학서 불교학 수강하며 치유
인도로 건너가 위빠사나 수행
美서 '통찰명상회' 공동설립 등
"마음챙김, 상업적 활용 안 돼"

16세에 버팔로 뉴욕주립대에 입학한 살즈버그는 더욱 극심한 좌절감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러나 2학년 때 불교학 과목을 수강한 것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인생은 고해'란 부처님 말씀은 누군가 제게 말해주길 간절히 원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똑같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부처님 말씀은 마치 '그래, 살즈버그 너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듯 들렸습니다."


샤론 살즈버그(Sharon Salzberg · 사진)는 미국 제1세대 여성 불교명상 지도자다.
사진출처=Lion's Roar

이에 평생 불교 공부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 살즈버그는 본격적인 학업을 위해 인도로 떠났다. 1971년 인도에 도착한 살즈버그는 보드가야에서 열린 '위빠사나 명상지도자 S.N. 고엔카(S.N. Goenka)의 10일 명상'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조셉 골드스타인, 람다스, 다니엘 골드만, 미라바이 부쉬, 크리쉬나 다스 등 불교 명상지도자이자 그녀의 평생지기 동료들을 모두 만났다. 당시 살즈버그의 마음은 환상적인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마술적이며, 초자연적이며, 또 비밀스러운 명상 기법을 접할 수 있단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한 수행법은 바로 자신의 호흡을 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이었어요."

호흡은 18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이었지만, 몸과 마음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살즈버그는 "당시는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호흡법만 배운 것이라 생각하며, 다음 단계에는 무언가 마술 같은 명상법을 배우게 되리라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던 중 살즈버그는 2명의 여성 명상지도자를 만났다. '주부들의 수호성인'으로 유명한 디파마(Dipa Ma)가 그 중 하나였다. 살즈버그는 디파마를 통해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더 큰 사랑과 자비로 승화시키는 살아있는 성인의 모습을 보았다"며 "초월적인 삶을 살았던 스승 디파마는 언제나 자비심이 넘쳐흐르며, 가장 고요한 평화를 간직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1974년,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콜로라도에 있는 나로파 인스티튜트(Naropa Institute)에서 조셉 골드스타인, 잭 콘필드와 함께 명상 지도를 시작했다. 이후 1976년 메사추세츠 Barre에 미국 최초 위빠사나 명상센터인 통찰명상회(IMS)를 공동설립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최근 서양사회에서는 마음챙김(Mindfulness)과 관련한 새로운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며, 다양한 적용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살즈버그는 이런 현상에 대해 "'마음챙김'이란 단어가 상업적 목적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며 "마음챙김이란 마음의 균형과 평정을 만드는 실천적 행위다. 통찰력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써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수행자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비명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마음 안의 분노와 고통을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심을 만나게 된다"며 "자비심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살즈버그는 현재 루빈뮤지엄 명상 워크샵, 티베트하우스, 오메가 센터 등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책 〈Real Happiness at Work〉를 발간한 바 있다.

그는 아직도 명상에 망설이는 이들에게 말한다. "더 중요한 순간은 자신에게 잡념이 올라왔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만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순간 우리는 사랑과 친절, 용서와 비움이라는 자비명상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형 객원기자

고래 몸 안에 '육도윤회'가 있다

동경대 졸업작품 '삼사라' 주목


동경대 예술대학원 이사나 야마다로 작품 '삼사라(Samsara:윤회)'
사진출처=이사나 야마다 공식 홈페이지

일본 동경대 졸업작품 전시회의 바다 속 고래의 몸에 '윤회'를 표현한 작품이 화제다.

일본 언론 '재팬투데이(Japan Today)'는 2월 5일 "동경대 졸업작품 전시회에 한 작품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사라(Samsara:윤회)'란 작품으로 고래의 몸에 6개의 윤회하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동경대 예술대학원 재학 중인 이사나 야마다로의 작품이다. 그는 탄생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의 모습을 6마리의 고래에 담았다. 바다를 담고 있는 고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레진(Resin)으로 이루어진 투명한 몸 안에 해저화산, 해골, 침몰한 범선, 운해 등의 오브제를 넣었다. 각 고래마다 천도 · 인도 · 수라 · 축생 · 아귀 · 지옥의 육도세계를 담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사나 야마다로는 "환경과 삶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불교의 윤회사상을 접목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티베트 승려, 中탄압 저항 '소신공양' … 현재까지 114명

같은 날 오전 16세 학생도 분신 시도
"티베트의 영원한 자유와 독립을 위해"

또 한 명의 티베트 승려가 중국 정부의 탄압 정책에 반대하며 '소신공양(분신자살)' 했다. 최근 5년 간 같은 이유로 목숨을 버린 승려와 신도만 114명에 달한다.

국제 방송국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이하 RFA)'는 3월 2일(현지시간) "티베트 승려가 중국 정부 체제에 반대하며 스스로 불길에 몸을 맡겼다"며 "이는 티베트 불교계의 올해 첫 분신자살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칼상 왕두(Kalsang Wangdu) 스님은 2월 29일(현지시간) 오후 4시경 쓰촨성 서부의 렛소카(Retsokha) 사원 근처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스님은 그의 몸이 타는 동안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을 목 놓아 외쳤다. 그 후 스님은 청두 지역 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했다.

중국에서 거주 중인 티베트인이 티베트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며 분신한 사건은 이로써 144번째로 기록됐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의 민족성 · 자치성 · 종교자유 · 권리 등을 억압하는 정책을 고수해 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탄압책에 대한 티베트인의 저항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칼상 왕두 스님이 소신공양을 감행한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경, 인도 북부 데라 둔(Dehra Dun) 지역에서도 한 소년이 분신이란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 도르제 체링(Dorje Tsering · 16) 군은 분신 전에 그의 부모님께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다면 티베트 민족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칼상 왕두(Kalsang Wangdu · 사진) 스님은 2월 29일(현지시간) 오후 4시경 쓰촨성 서부의 렛소카(Retsokha) 사원 근처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사진출처=Tibet Post International

'RFA'는 "그는 중상을 입긴 했지만 델리(Delhi)의 사프두르정(Safdurjung)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며 "전신의 95퍼센트 이상이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체링 군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티베트 자유에 대한 열망 의지를 꺾지 않았다. 'RFA'에 따르면 체링 군은 "나는 티베트 민족을 위해서라면 이 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다. 나는 달라이라마(Dalai Lama)의 무병 장수와 티베트의 완전한 독립을 꿈꾼다"며 간절히 발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호주에 사상 첫 불교 초등학교

멜버른 '호아니엥 초등학교' 설립

호주 멜버른에 최초로 불교 초등학교가 생겼다. 불교 고등학교는 1곳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개교는 사상 처음이다.

호주 지역신문인 '리더(Leader)'는 2월 22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스프링베일 사우스 지역에 최초로 불교종립학교가 생겼다"며 "올해 초 개원한 호아 니엥(Hoa Nghiem) 초등학교에는 16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6학년까지 반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학교의 창립자는 호아 니엥(Hoa Nghiem) 사찰의 스님인 틱 티엔탐과 여동생인 틱툭우옌 호아 니엥이다.

호아니엥 초등학교 교장 작키 보스만(Jacqui Bosman)은 "두 스님이 스프링베일지역의 불교 포교를 위해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원했다"며 "아이들이 자비심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적화 된 곳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개원한 호아 니엥(Hoa Nghiem) 초등학교. 사진출처=리더

한편 현재 호주에 있는 불교학교로는 이번에 개원한 호아니엥 초등학교와 데일포드에 있는 고등학교 2곳이 유일하다.

이보형 객원기자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워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 011-557-2773
fax : 0303-0958-4568
■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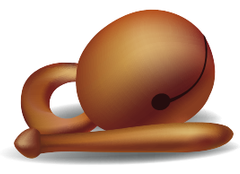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한 가지 가르침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후세를 생각지 않는 사람은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온다. 악(惡)도 화(禍)도 모두 오고 가며 보복(報復)의 지팡이는 네 머리 위에 내려진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17-1242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 매주 : 화,목 강의
2시~ 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51-245-5353
010-4876-5353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 학 마 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수강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 학생
(희비없음, 무료지도)
• 원장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 대구 길상사 주지
주소 : 대구 중구 대봉2동 744-21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 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運을 올리는 작명, 개명
• 이름과 숫자(은행비밀번호 등)가 運命을 좌우한다
• 아폴로13호 : 고장으로 귀환
• 2016년 5월 : 궤변이 예상됨
• 신생아는 진용일, 진용시에 출생신고 하여야 運이 크게 올라간다
작명제일 용님선원
010-2849-385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사찰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전남 장흥)
PC 가능 하신 분
011-596-474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대중반 ~ 50대 초반)
모든 것 전수해 드리고
절까지도 인도해 드립니다.
010-6674-1356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7311-5335

공양주 보살님
인연을 원합니다
(충북 옥천)
조용한 비구니 도량
043-733-9339
010-8019-9339

절 맡아 운영 하실 분
(비구니, 보살)
특권 : 다도, 선화, 염불, 시조, 시낭송 배울 수 있음
* 조건 없음. 성실하면 됨.
1. 공주시 계룡산. 천하제일 명산 (불교전통문화보존회)
2. 하동 쌍계사 옆 청석골 (토굴)
010-4233-3459 범옹 합장

신통력과 특수한 비법 33가지를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공양주 1명, 처사님 1명
(충북 단양)
010-5960-2085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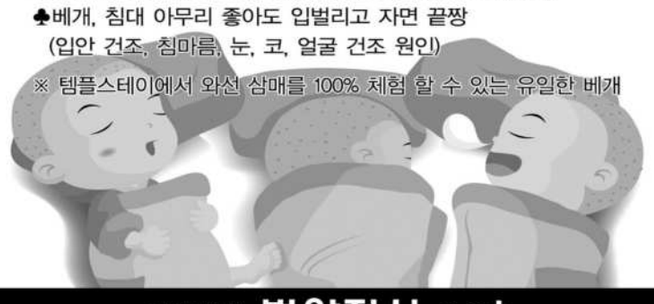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이것이 정통 풍수다!!
※ 산승이 수십년간 산야를 섭렵궁구해오다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짚어내며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태극혈맥지리에 달통 전수코자 합니다
방술회원 모집
◆모집자격 : 위 원리를 꼭 달통코자 할 분만 덕숭산 방술(평생)회원으로 접수 합니다.
◆강 습 장 : 절로암 참설당과 덕숭산내 간산 실습장
◆강습일정 : 3월초부터 강습예정 (혈맥이론 실습 병행)
수시강습(1:1 집중강습) 정기강습 및 간산 (월1~2회)
◆회원가입비 : 일정의 시주금(천년마애삼존불사)
◆교구재 무료제공 : 부교재, 패철, 혈맥기봉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1 (광천리 866)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지천공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자고로 사람들은 말이 많아도, 말이 적어도, 말이 없어도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았다. 비방하거나 비방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지난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부산시내 전통기와 사찰◀
- 위치 : 부산역 부근
- 총부지 : 230여평, 주차장 40여평
- 건물 : 법당(25여평), 요사채(방10개) 별채주택(전세 5천 받고 있음)
- 인수가 : 3억 3천만원(대출 4억 2천)

051-863-6622

▶시장부근 토굴◀
- 위치 : 통영(통영 중앙시장 3분거리)
- 총부지 : 약 100평(2종주거지역), 주차가능
- 건물 : 법당 20여평, 요사채, 기타
- 양도가 : 1억 2천만원

010-3560-8522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보유 사찰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청도시 추천 사찰 안내(www.이박사.com)

- 법당 100㎡, 요사채 100㎡, 토지 4000㎡
- 청도 IC근방, 풍수상 좋은터
- 산중조용하고 기도사찰로 적당함
- 가액 : 16억(융자 4억 포함) 조정가능
- 비밀보장, 방문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대지 : 65평 ◎ 대지 : 220평
◎ 법당 : 30평 ◎ 법당 : 40평
◎ 요사 : 40평 ◎ 요사 : 60평
◎ 양도 : 10억 5천 ◎ 양도 : 7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온천동 금정산
- 대지 80평, 법당24평, 요사채 22평, 산신각
- 정남향 뒤는산, 위치좋은 암자
- 가액 : 은행안고 2억 1,000만 인수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제 26320-2015-00027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임야 :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 조립식 16평
- 요사채 : 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대구부근(급)사찰

팔공산 기도 휴양사찰
- 토지 4,8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등 5동
- 전망과 위치좋고 산중사찰, 방사가 많음
- 주변산이며 기도와 선원사찰임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 : 벽돌조 독채 104.54㎡(32평)
- 대지 : 대로변 311㎡(94평) 문중개인소유(도지료 년35만)
- 내용 : 법당, 거실주방, 방2, 세면장 화장실
- 면소재 2차선 대로변 남향
- 교통좋은 포교지 법당 넓음
- 가액 : 4,800만원, 건물 개인등기

010-729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 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연등,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 평수 : 145평, 2층 전체
- 구조 : 주지실(욕실) 다실 외 방 3개(엘리베이터)
- 가액 : 1억 2천만원 월200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44-909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구서동 전철 2분거리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5평, 방3, 주방, 화장실, 도시가스 ● 삼존불, 지장
- 가액 : 2,000만원 60만원 또는 3,000만원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1-1750-404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 전망 뒤에는 산
- 귀농 귀촌할 분, 사찰 암자 휴양지 최적지
- 땅모양 좋음, 아주좋은 명당터
- 신축, 총면적 1025평, 대지 285평
- 신축 : 건평 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 보일러는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M 암반약수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458-2258

마음편한 시골집

- 위치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지
- 총 746평(대지 423평)
- 주택 25평 (등기필)
- 상수도, 전기, 지하수관정, 해우소
- 마당까지 포장, 20대 주차
- 가액 : 9,500만원
- 사찰불사 가능

010-4591-6200

도심속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지하철 걸어서 5분소요 버스는 1분정도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 사용공간 : 약 20~30평 공간있음, 세면실 별도 방 총6개<2개는 햇빛이 들어오고, 문열면 바로 밖> <종무소 친견실(넓음)>, 스님방, 빈방 3개, 다용도실 (넓음)
- 관리비 한달 50만원 가량, 주차는 얼마든지 가능
- 인체리어 시설완벽
- 부산시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넓고 큰 본인 사찰을 가질 수 있는 기회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및 전세"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 8천에 월 100만원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사자봉 송림숲, 가람조성 5년!
- 공찰소임관계로 급 양도함!
- 종교부지 650평. 산 1만 2천평
- 조립건물3동, 약사석불12자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①종교부지+시설물= 2억1천
②임야포함 3억2천(절충가)

010-8224-1688

아늑하고 양명한 절터

- 남쪽지리산 성짓골을 차지하여 양쪽으로 개울이 흐르고주봉에서 꽃잎처럼 둘러쳐진 산자락이 매우 양명하고 아늑한 중간사찰의 부지(2천5백여평)임
- "한국서정시연구회"를 검색하면 다음지도에 위치가 나옵니다
- 가격은 10여 년 전 가격 그대로 3억 5천에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4920-3203

은거토굴 안내

대명당
- 위치: 대구 동구 팔공산 중대동
- 평수 : 대지 200평, 2층건물
- 방3, 거실, 주방, 정남향
- 대명당에 기운으로 행정고시 2명 배출한 터입니다.
- 가액 : 5억 8천만원

010-9355-1779

포교원 안내

- 위치:창원시 마산합포구 사보이 호텔옆
- 평수 60평, 5층건물중 낮은 3층
- 방3개, 화장실, 법당, 베란다
- 겨울난방, 여름난방 필요없음
- 가액 :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추후 결정

010-6208-5555
055-242-65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만덕동
- 1층 약 40평
- 삼존불, 집기완비
- 몸만 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500만원(절충가능)

010-2426-1766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법당 20평, 목조 관음전
- 종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외부화장실 등등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5천 (스님 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 군립공원입구(달촌마을)
- 부지 1,759㎡(3필지), 요사채(방 4), 칠성각, 산신각, 심야보일러
- 산밑에(뒷산, 소나무울창), 도로인접, 앞냇가, 시내버스, 교통요지
- 인터넷 '사찰안내 가람참조' (사찰내외 사진25장 참조)
- 가액 : 3억원(융자 7천 포함 <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010-3149-4478
스님이주관계 010-864-8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승강장, 장소 최적
-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108소불, 주방, 욕실, 방1, 창고, 주차
- 에어콘1, 냉장고1,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 30만 시설비 1,000만원

010-4880-15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3길 124-5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4천만원(가격절충)

010-4564-8108
010-7161-21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시내 요지
- 평수 : 50평 3층 중1층 주차완벽
- 오존불, 소불 등 각단 평화 시설완벽
- 쑥뜸질방 2개, 쪽방2개 부엌겸 거실 큼
- 인근 5일장 새벽시장 3분거리
- 스님 환영,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300평, 대지 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가격조절가능)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30평, 삼존불, 법당1, 방3개, 화장실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 3층 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약사여래불 및 일광, 월광 보살, 신중, 산신, 용왕, 지장보살 모셔져 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8765-2655

사찰 터.전원 주택지

- 위치 : 자연경관 수려함(소나무 숲조성)
- 명산 거창 감악산(약수터접,수질최고)
- 진입도로 접함(전기,수도,접함)
- 340평, 1200평, 5000평
- 평당 7,000 ~10만원

거창코아루 사무실(부동산) 김옥순
제48880-2015-00001호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6. 상가동108호

010-4661-773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내
- 4층 건물중 2층 40평
- 삼존불,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0-8758-1313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약간

010-5018-333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0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40년 전통사찰 부산역 가까운 교통편리한 곳
- 큰 도로이면서 조용한 곳
- 대 645㎡, 건 230㎡
- 방 6,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9억(은행융자가능)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이찬수)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남로 버스정류장 대로변
- 상가 2층. 50평이상, 방 2, 화장실2, 주방, 각시설 완비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3700-3628

사찰 및 기타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산(국유지)
- 건물 : 건물 등기 24평 실평수(50평)
- 방5개, 주방, 전기, 수도 완비
- 자연경관 수려함, 큰강변 국도에서 진입
- 가액 :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3588-811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가격 절충)

010-2384-032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중앙동 요지
- 실평수 40평 3층, 방 2
- 욕실, 공양간, 도시가스설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337-7766
053-325-040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9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3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 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 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4370-0072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 2개, 화장실
- 총 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사찰(급) 안 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0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대구 포교원 임대

- 삼존불 지장 신중 탱화,외국부처님2분, 소불 60분
- 1층 넓은거실, 큰방1, 화장실1 2층, 법당, 스님방1, 작은거실
- 주방, 화장실, 냉온방기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500만원, 월35만원 시설일체 2,300만원

010-4296-8200
054-954-0904

불심깊은도시 경북 영주

포교원을 양도 합니다
- 3층 건물 2층(3층 주인 살림)
- 55평(방 2, 요사, 공양실, 화장실 2)
- 법당(단청,운각,6지장보살 봉안)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보시고 판단)

010-6472-5629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별장
- 가액 : 4억 8천(융자포함) 전세가능

010-4234-2536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 로젠버그 · 로라 짐머만(명상 지도자)

〈5〉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

"사는 동안 항상 깨어있으라"



명상의 일상화

지금까지 수행 센터에서 걷고, 머물고, 앉고, 누울 때 집중을 하며 깨어있는 수행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삶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수행센터 이외의 나머지 시간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수업을 듣고, 여행을 하고, 늦게까지 일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알게 되고, 관계를 맺고 끊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를 채우고 있는 삶을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운 명상이 일상의 삶에서도 도움이 될까? 의문들이 들 것입니다.

물론 그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깨어있기와 통찰은 진전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에서 전화 응대, 인터넷으로 국제회의를 주재하는 중에도 가능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여전히 수행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수행센터에 가야할까? 왜 매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고요하게 앉아 호흡을 알아차리고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을 해야할까?

수행 센터에서 배운 것이 일상에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조동종의 가르침을 위빠사나 수행자의 눈으로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나의 스승 중 한 분인 카타기리 선사가 수년 전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일본 조동종의 위대한 선사인 도겐 스님의 '요리사의 교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일화입니다.

도겐 스님이 젊었을 때 일본에서 배운 것에 만족할 수 없어서 참선을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도겐 스님은 나이 든 중국 스님 한 분을 보았습니다. 노스님은 일본산 버섯을 사기 위해 항구에 왔던 것입니다. 노스님이 선장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겐 스님은 그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겐 스님은 그가 텐조, 즉 사원의 주방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중국의 사원에서 음식 구입과 준비는 대단히 힘든 일이면서 상당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텐조가 원숙한 수행승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도겐 스님은 노스님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스님께 식사와 차를 대접해도 될까요? 불법의 미묘한 점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해 보시죠."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일본산 버섯만 사서 얼른 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있을 축제일을 맞아 스님들을 기쁘게 해 주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 중이거든요."

실망한 도겐 스님은 말했습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잠깐 앉아서 나와 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그 안에 담긴 뜻을 말하자면, "당신은 나와 법을 나눌 기회가 생겼다. 그래도 절로 돌아가서 요리나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노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군요. 실마리도 잡지 못했어."

도겐 스님은 우리 대부분이 그러듯이 '법(다르마)'이라고 부르는 것과 보통 '일상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겐 스님이 주방장 스님에게 배운 것은 수행과 생활이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붓다의 초기 가르침은 수행과 삶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붓다의 간단한 설법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행주좌와에서 항상 마음을 깨어있으라." 붓다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생각의 연장이거나 그 생각을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수행 따로? 일상 따로?

여러분들이 수행 센터에 와서 명상을 하는 이유는 괴로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삶이 만족스럽고 마음이 평온한데 왜 수행 센터를 찾아오겠습니까? 일단 당신이 이런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특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수행 센터에서 하는 안거처럼 일정하게 보호를 받는 장소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장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종종 수행 문화의 말버릇처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실제 생활로 돌아가려는 거야."

나는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위빠사나, 티베트 불교, 선불교, 또는 어떤 이름의 불교이든 모든 것에 앞서 단지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삶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특정한 것이 유용합니까? 그것이 특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해와 섬세함이 깊어지게끔 도와주는 소중한 수행 방법과 제도들입니다.

동시에 그런 명상이나 안거수행은 디즈니랜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또한 도전이 있습니다. 수행 환경에는 수행자가 해야 하는 일과 수행식의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면서도 사람으로 가득 찬 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특별한 측면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정리된 세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은 안거 수행이나 집중 수행에서 마음의 특별한 측면이 더 잘 계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명상 수행의 삶을 아주 깊이 평가합니다. 나는 좌선을 좋아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 좌선 수행을 했습니다. 좌선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통찰과 자비심이 늘어납니다. 이런 점에서 명상이 주는 선물은 특별합니다. 좌선과 사랑에 빠지면 평온해지면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합니다. 아직 충분히 맛보지 못했다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을 모든 삶 위에 놓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경우 강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행'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과 일상, 다른 것 아냐
모든 것 앞서 삶이 있을 뿐
일상에 집중 못해 괴로운 것
행동마다 깊은 관계 맺을 것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안거 수행을 하면서 초기 3개월의 안거 기간 동안은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머지 9개월은 다음 3개월의 수행을 위해 돈을 버는 시간일 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안거 수행의 완수는 마치 전쟁에서 훈장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안거 이후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봅시다. 아마도 수행하는 동안 당신은 아주 훌륭한 사마디 상태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들숨, 날숨,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오는 도중 차의 속도는 올라가지만, 당신이 애써 얻은 사마디는 내려갑니다. 주유소에 차를 멈추고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어머니의 주치의로부터 온 예기치 않았던 문자와 이웃 사람의 화난 이메일이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릅니다. 사마디는 사라지고, 사라진 사마디에 당신은 실망합니다. 의심이 생기고, 마감일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두려운 날들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마음챙김하면서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수행의 길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실망도 삶의 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챙김이 없다면 수행센터의 명상과 일상 삶에 대해 절망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을 가장 의미 있게

전 시대와 문화를 통틀어서 대개 인간은 주어진 일이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우리 시대에 더 지독하게 보입니다. 갈수록 번잡해져 가는 세상에서 당신이 어느 순간 지루해지면 그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심풀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마치 CNN 뉴스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도 종종 그러지만,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일종입니다. 그 채널에서 메인 뉴스를 보고 있는 동안 오른쪽 위 코너에 군 장성이 나타나서 말을 하면 나는 또 그것을 봅니다. 그 장성에 싫증이 나면 아래 자막에 눈길이 갑니다. 그 자막은 메인 뉴스나 그 장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자막에 흥미를 느끼는 순간, 바로 광고가 자막을 끊어 버립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시대가 요리사의 교훈을 일러준 주방장 스님과 도겐 스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우리들은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요리사의 교훈'은 지속적인 산만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리사에게 자신의 눈을 돌보듯이 그릇, 냄비 그리고 요리 재료에 신경을 쓰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자신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귀 기울이는 일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를 안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발 끈을 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발 끈을 묶는 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행동조차에도 온전한 마음을 들인다는 것은 당신 삶에 대한 존중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흡 알아차림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순간에 충분히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면 작고 단순한 활동들을 의미 있는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집중되고, 평온해지고, 그리고 깨어있게 됩니다.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서서 약 10초 내지 15초 동안 자동차의 라디오를 트는 대신 그곳에 머무르면서 단지 호흡을 느끼십시오. 식당에 가서도 식사를 하기 전에 접시 위의 음식을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세요. 샌드위치를 보고 호흡을 거기에 맞추고, 샌드위치를 집어서 입에 넣으면서 호흡과 샌드위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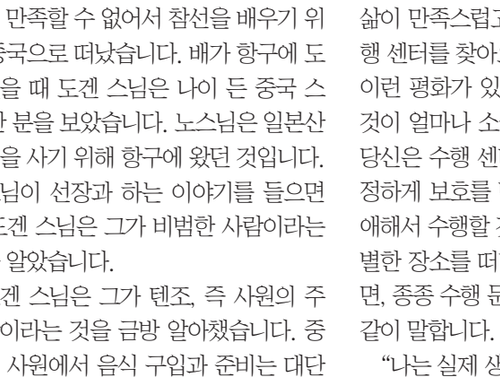
승강기를 기다리면서 호흡을 느끼십시오. 공원에 앉아서 호흡을 알아차리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세요. 의사를 기다리면서 잡지를 집어 들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 당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호흡과 함께 머무십시오. 인내는 불교 가르침에서 십바라밀 중 하나입니다. 대기하는 동안 호흡을 이용해 불안을 잠재우거나 또는 인내하지 못함을 바로 보아 인내심 있는 환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호흡은 '숙제'가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마음을 챙겨 호흡하는 것을 잊었다고 해서 자신을 질책하거나 당신의 삶에 고통을 더 가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젠가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기술이 녹아들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일에 집중하고, 섬세한 마음가짐으로 흥미롭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박아름 기자

이 글은 〈호흡이 주는 선물〉(나무를 심는 사람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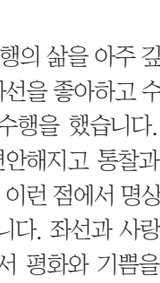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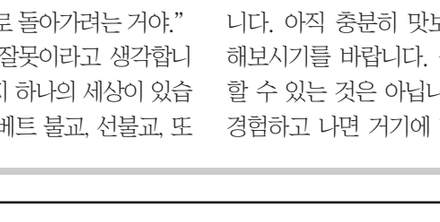


실외 양초 공양집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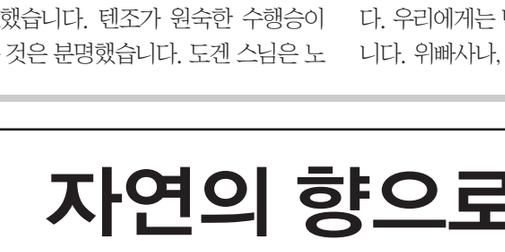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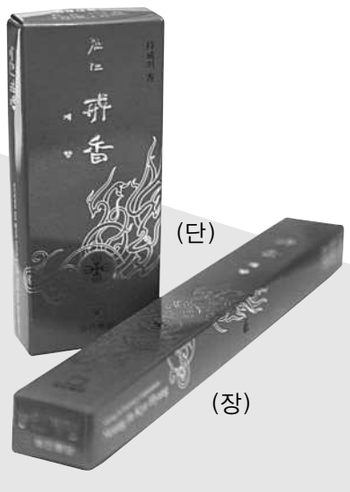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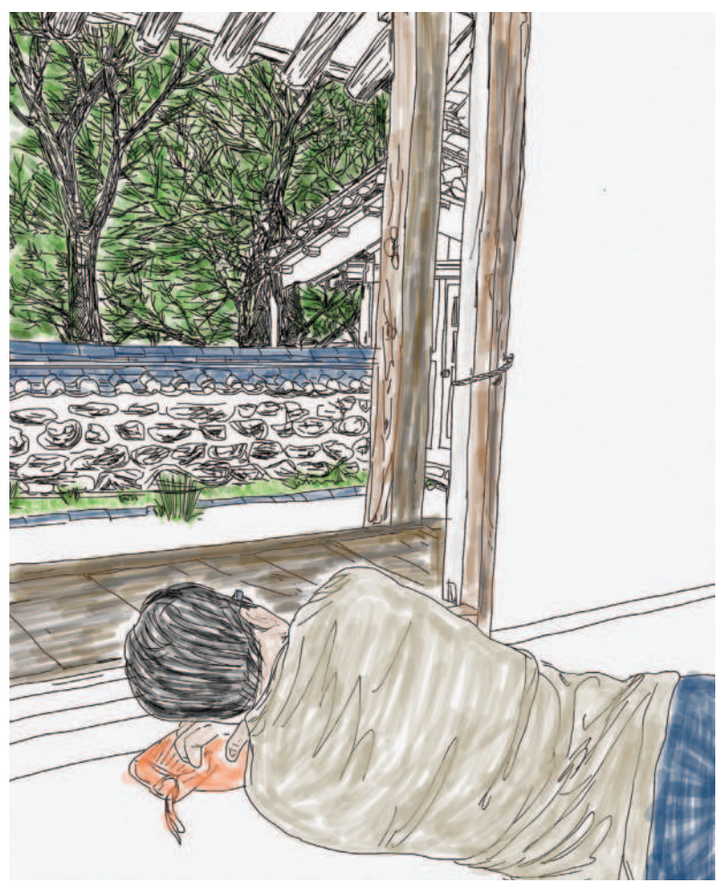


배종훈의
명상카툰

절집에서의 시간

절집에 들어가 가방과 옷을 아무렇게나 내려두고 방문을 열었다. 시원한 산 공기를 깊게 마셔본다. 냄새, 맛 등에 크게 민감하지 않지만 확실히 도시의 공기와는 다르다.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소리, 밤새 소리, 풀벌레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지만 각각의 소리가 분명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음악처럼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언제나 이렇게 절집에서의 시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내 앞에 펼쳐든다. 오늘은 어떤 카드를 고를 것이냐고 느긋하게 달이 묻는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심술궂은 겁쟁이와 한심한 도깨비 ㊤

내 마음엔 도깨비가 살아요

이제 이 마을에서 내 편은 한 명도 없다. 내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유일한 사람, 담임선생님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선생님의 입술은 예전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차분하게 나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눈 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휑하니 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 보겠니?"

"저는 그냥 윤호가 태권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서 발차기를 하다가 실수로 얼굴을 찬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때리려고 했다면 왜 교실에서 그랬겠어요. 안 그래? 송윤호?"

눈이 마주치자 윤호는 얼른 시선을 내리깔고 고개를 숙였다. 아직 코피가 멎지 않은 모양이었다. 콧속을 틀어막은 솜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다. 윤호 티셔츠에도 교실 바닥에도 온통 피가 묻어 있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 왔다.

"윤호는 태권도 가르쳐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정민이가 먼저 발차기하는 거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재민이가 말했다. 재민이 저 녀석은 어째서 자기 일도 아닌 일에 끼어드는 걸까. 따지고 보면 아이들과 사이가 나빠진 것도 모두 재민이 탓이다. 사사건건 참견하면서 옳으니 그르니 하고 사과를 해라 어째라 했다. 그렇게 잘났으면 법원 가서 판사질이나 하라지. 왜 이런 촌구석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담.

"정민이는 운동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래? 선생님은 친구들 얘기를 더 들어봐야겠다."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선생님도 등을 돌리겠지. 나는 이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외톨이가 될 거야.

윤호가 학교에 터닝메카드를 가지고 왔다. 윤호 아빠는 윤호가 사달라는 것은 뭐든 사준다.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윤호는 제일 먼저 그걸 사 들고 왔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터닝메카드 트레인세트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야, 송윤호, 그거 좀 줘 봐."

사실 터닝메카드 같은 거 관심도 없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리즈가 나왔지만, 엄마는 단 한 개도 사주지 않았고, 나는 만화만 몇 번 보았을 뿐 작동법도 잘 몰랐다. 그냥 아이들이 재미나게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기 싫었다. 자꾸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는 터닝메카드가 싫었고, 그걸 사주는 윤호 아빠도 싫었고, 무엇보다도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꼴 보기 싫었다.

"어, 이건 안 되는데. 이거 어제 샀단 말이야."

"누가 뭘 어쩐다고 그러니? 그냥 잠깐만 줘 보라고."

"너는 맨날 잠깐만 달라고 해놓고 가져가서 안 주잖아."

재민이 녀석이 나섰다. 재민이가 나서면 일이 꼬인다. 나는 정말 멋진 발차기를 보여줄 테니 터닝메카드 트레인을 높이 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 내 발이 거기까지 닿으면 장난감을 빌려주고, 닿지 않으면 지금까지 빌려갔던 장난감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장난감도 빌리지 않겠다고. 윤호는 달달 떨면서 트레인세트를 한껏 치켜 올렸다. 그러고는 바보같이 내가 발차기



그림 · 강병호

를 할 때 점프를 해버렸다. 내 발은 윤호의 얼굴을 차버렸다.

"약속대로 빌려 간 장난감을 모두 돌려줘. 더는 너에게는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윤호가 코피를 줄줄 흘리며 말했다.

재민이와 영재, 주희가 교실에서 나왔다. 윤호는 아직 교실에 남아 있었다.

"선생님한테 모두 일러바쳤냐? 인제 보니 너희 모두 고자질쟁이였구나."

4학년은 모두 5명. 그중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들이었다. 그 애들 사이에 내가 낄 틈은 없었다. 내가 전학 왔을 때 아이들은 반가워하는 척했지만, 항상 자기들끼리만 어울릴 뿐 나에게 같이 어울릴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게 다 짜증이 났다. 전교생이 스무 명도 안 되는 촌구석 학교도 짜증이 났고, 구정물 줄줄 흐르는 얼굴이 까만 아이들도 싫었다. 구린내 나는 시골 공기도 싫었고, 다 쓰러져가는 외할머니 집도 싫었고, 밤늦게 퇴근해서 인상만 쓰는 엄마도 싫었다.

"네가 왜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알아. 그건 네가 겁쟁이기 때문이야. 겁쟁이인 걸 숨기려고 아이들을 겁주고 다니는 거지. 너희 집은 부자도 아니고 넌 태권도도 잘 못 해. 넌 그냥 망해서 시골로 전학 온 겁쟁이일 뿐이야."

재민이가 말했다.

"겁이 나서 선생님한테 다 일러바친 주제에 누구 보고 겁쟁이래?"

"겁쟁이가 아니면 증명해 봐."

마을 끝 산 아래에 무당집이 있었다. 폐가가 된 지 오래된 곳이라서 날이 어두워지면 어른들도 지나길 거리끼는 곳이었다. 재민이는 그 집 앞으로 밤 아홉 시까지 나오라고 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집에 혼자 들어가 마당에 있는 단골 나무에 묶어놓은 몽당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했다.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그동안 네가 우리에게 했던 일을 선생님께 모두 말할 거니까. 그리고 전교생이 널 겁쟁이라고 놀릴 거야."

"내가 가져오면?"

"그동안 네가 우리에게 했던 나쁜 일들을 모두 잊을 거야. 그리고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거야."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선생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일어나면 학교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문 앞에 서 있던 주희가 나를 말끄러미 보며 말했다.

"너 정말 무당집에 갈 거니? 아이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을 거야. 정민이 네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무당집엔 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거기엔 도깨비가 살아."

"거짓말. 도깨비 같은 게 어디 있어?"

"문방구 아저씨는 어릴 때부터 대머리였어. 아저씨가 그 집에 살았을 때 도깨비가 머리카락에 불을 놓았대. 궁금하면 문방구에 가서 물어보렴. 아저씨 어릴 때 찍은 사진도 보여주실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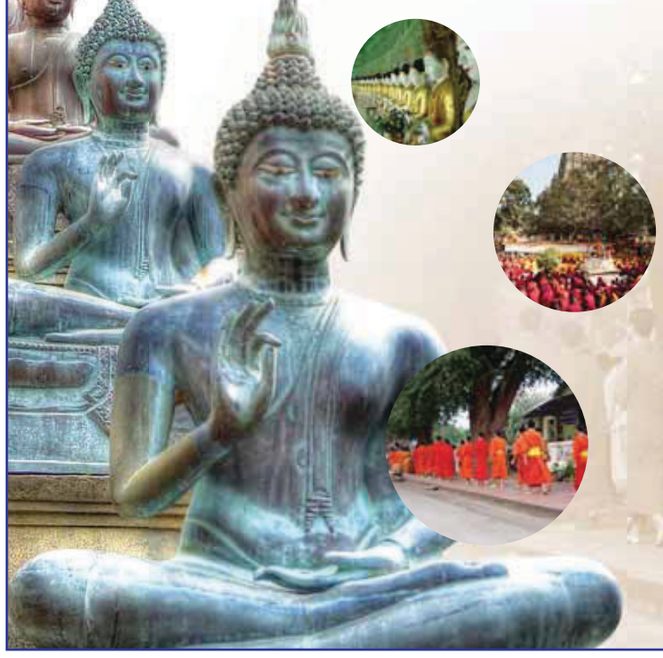
도깨비나 귀신같은 거 정말 무섭지 않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 부서지고 허물어져서 폐가나 다름없었다. 엄마는 일 끝나고 열한 시가 다 되어야 돌아오고, 나는 폐가나 다름없는 집에서 혼자 지냈다. 원양어선을 탄다고 나간 아빠는 몇 개월째 전화도 편지도 하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언제나 삐죽 튀어나와 있는 입, 골이 난 이마, 불만이 가득한 눈, 부어있는 볼.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것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콧잔등에 주름을 잔뜩 잡아서 사납고 심술궂은 표정을 지었다. "쳇, 도깨비 같은 거 나올 테면 나와 보라지!" 〈계속〉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긴급 모객 상품
서안 / 낙양 / 화산 5일
출발일 : 4월 15일
동참비 : 129만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천불 천탑의 신비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4대 불산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름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시–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87호 현대불교
2016년 3월 9일(2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에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스님,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모든 것을 일체 자기 마음에다 다 돌려놓고 생활을 하면서요, 모두 주인공한테 맡기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라든가 인간이 만든 어떤 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 주인공에다 일체 맡겨 놓고서 거기에만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만든 법이라는 건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서 그걸 치료를 같이, 주인공에다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 놓고 여여하게 걸어가야 되는지요.

큰스님 그거는 이런 게 있죠. 모든 게 한계가 있듯이 아마도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접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보약 하나도 안 먹고 자기가 생각에서 아예 그냥 보약을 먹고 있습디다. 모든 혈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자기가 생각해서 '아, 거기서 기운을 내게 해야지, 응? 거기서 기를 넣고 해야지. 피가 좋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보약도 그냥 부처님한테 자기 성의대로 갖다 놓고는 자기들이 해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을 먹으면서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을 아주 끊고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것이 되는 거지, 근기가 하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고정됨이 없어요.

그러니깐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유대로 하세요. 편리하게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하는 문제가 있다면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뭐 이런 거, 병으로 인해서 먹는 약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피로회복제도 좀, 간장약이 피로회복제라고 합디다. 그런 거를 좀 먹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냥 잡수셔도 좋고요. 거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또 병원에 갈 일이라면 병원에 가는 것도 참선이고, 그것도 법이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이것이 외려 해가 될 병이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것만 못하죠.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글쎄 넓적다리에 이렇게 부스럼이 났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그거를 악성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하고는 이렇게 잘라 내고 도려내고는 그걸 뭐? 뭐, 쬐는 거 뭐죠? 난 이름조차도 몰라. 무슨, 뭐요?

대중 가운데서 방사선.

큰스님 응, 방사선을 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방사선을 쐐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런데 방사선을 쐐 가지고 이 다리 하나가 그냥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울고불고 왔기에 그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선량하고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퇴원시켜라. 퇴원시켜 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다른 데로 가서 진찰을 해 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쬐는 데서 끌어냈죠. 끌어내 가지고선 얼마를 저거 하다가 그 안의 모든 것이 좀 유해지고 물렁물렁해지고 그런 연에 "야, 병원으로 가라, 인제. 딴 병원에 아주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하니까 이건 방사선 쬐지 않을 거를 쬈다 이겁니다. 쐐 가지고는 이게 살이 굳어져 가지고 도대체 마비가 되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자꾸 부어오르는 거예요, 살이.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다시 방사선기를 없애면서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인제 아물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스님이 그렇게 나오란 말을 안 하셨으면 얘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고맙다고 아까 아침에 전화가 왔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일에는 가야 하지만 안 갈 일에는 안 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데에 바로 그것도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가야 할 건지 안 가야 할 건지 벌써 자기가 먼저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기독교다 가톨릭교다 이런 걸 떠나서입니다. 부처님은 당시에 이런 공부를 그냥, 실상 속에서 실현을 하게끔 참선을 가르치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 주셨지, 무슨 육신을 고쳐 주거나 이런 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만 고친다면 육신의 병은 여러분이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병뿐만이 아닙니다. 업보성이나 유전성이나, 유전성도 무섭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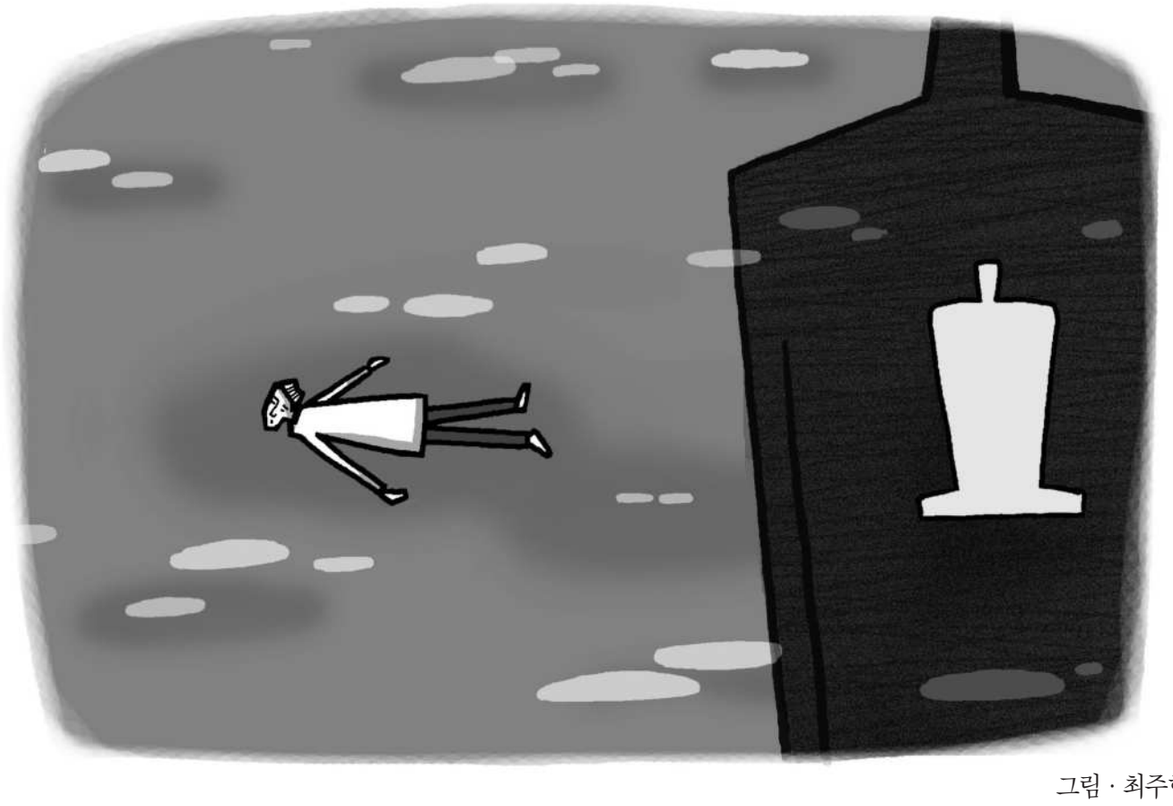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그거를 모르실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집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대대로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또 간질병 앓는 사람이 한 대에 있었으면 그 대에 또 나옵니다. 2대에 가서도 나오고 3대에 가서도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무꾸리하던 사람들, 무당 하던 사람들이면 꼭 그 대에 가서 며느리 아니면 딸, 허허, 그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유전성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위암으로 죽은 집은 위암이 또 생기고, 나가서 죽은 집은 나가서 또 죽게 마련이고, 물에 빠져 죽은 집은 물에 빠져서 또 죽게 마련이고, 차로 죽은 집은 차로 또 죽게 마련이고 이렇게 유전성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옛날 얘기 삼아 조금 길더라도 질문은 조금 있다 하고 한마디 하죠.

그전에 원주에 있을 때 얘깁니다. 가만히 보니깐 형제가 여럿인데요, 형이 싸움을 하고는 버스에다가 휘발유 붓고 버스 안에서 그냥 자살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에 가서 동생이 차만 자기 게 생겼다 하면 꼭 죽게 생겼어, 내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말렸습니다. "승진을 한다면 절대로 너는 안 된다. 더 위로 올라간다면 차가 나오니깐 차가 나왔다 하면 너는 생명이 위태해. 그러니깐 절대 그럭하지 마라. 나중에 스스로 올라갈 테니까 그때에 해라." 이랬거든요. 날더러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스님은 산 구석에서 이 사회의 물정을 모르십니다." 이겁니다. "모르시니까 나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아, 그러고 부득부득 우기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하! 어쩔 수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고 그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고 눈물이 주루루 흐르는 거를 참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연락을 해 보니깐 엄마 아빠가 벌써 떠났다는 겁니다, 승진이 돼서. 그랬는데 웬걸요, 사흘 만에 차가 뒤집혀서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즉사하고 부인은 머리 이게 산산조각이 나고 다리도 뼈가 조각조각이 나고 이 뒤꿈치는 뭉텅 잘라졌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 생각에 '자식들이 5남매나 되니 꼭 저 엄마는 살려서 자식들을 기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지키고 있는데 영 깨어나야죠. 보름이 넘어서야 조금 깨어나는 겁니다. (머리를 짚으시며) 이거를, 산산이 갈라진 거를 꿰매고 그랬는데 그때서야 깨어납니다. 인제. 그리고 여기 산산조각이 난 뼈가 모두 흩어지고 그런 거를, 뼈가 갈라지기만 했으면 모아서 이렇게 할 텐데 쪽이 떨어져서 부스러진 거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맞춰선 그, 뭡니까? 저어 깁스를, 날 자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깁스를 해 가지고선 있는데, 병원에서는 두 번 세 번 수술해도 이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얘깁니다. 뒤꿈치는 뒤꿈치대로 나가고, 뼈가 부스러져서. 두 달 만에 깁스를 해 가지고 떡 정신을 차렸으니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오는 게 어떠냐?" 하니까 "그럼 스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데었으니까. 인제 혼났거든. 생명이 위태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죽는다고 하셨더라면 안 그럴 걸 갖다가 그랬다고 그러니 아니, 내가 그럼 죽는 사람 "너 죽는다!" 이러나요? 생명이 위태하다면 좀 믿어 줬으면 될 걸, 내

☞ 26면으로 계속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앉고 서고 자고 뛰고 하는 게 전부 참선입니다

☞ 25면에서 계속

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덕을 보는 것도 아닌데 아, 진실하게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어디 목욕을 하러 갔더니만 미친 사람이 막 뛰어서 재무 스님이 저것 좀 고쳐 주라고 하도 그러기에 거기서 잠깐 그냥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당에서 막 뛰어요. 기도하고 그냥 나왔죠. 말이 기도지 기도입니까, 어디? 그냥 갔다 그이네들 보는 데 그냥 방편으로 앉았다 나온 거죠. 근데 그 내외가 나아서 그 이튿날 참, 뭡니까? 이, 빵 종류 뭔가?

대중 가운데서 카스테라.

큰스님 카스테라. 그렇게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허허허. 그래서 그거를 사 가지고 왔어요. 참 촌뜨기라 그런 거 잘 몰라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봤으니 사람이 그 지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곤 혼났으니깐 인제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대추하고 쑥하고 북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푹 고아서 그걸 국으로 국물을 자꾸 먹게 하고 나머지는 한 달이 좀 넘으니까 안되겠어서 그때는 강요했어요, 이 깁스 풀자고. 산에서 우정 거길 내려가 가지고. 그래 깁스 한 거 누가 잘라 줍니까? 그러니까 톱으로 썰어서는 이렇게 하고는 거기다가 다시금 베니어에다 솜을 두르고선 가제로 저거 해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대고선 묶어 놨죠. 그렇게 되면 이걸 쭉 뻗고라도 움죽거리죠. 아무래도 깁스한 거보다 움죽거려지죠. 그래서 고스톱이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제. 하이고 참, 기가 막히죠. 이거 말이니깐 그렇지 그 집 다섯 새끼가 말입니다, 옹졸옹졸 옹졸옹졸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불쌍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철부지는 글쎄, 아버지 제사상에 뭐 놓고 이렇게 하면요 아, 이거 맛있는 거 사 왔다고 좋다고 들고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럭하고선 동네 젊은 마누라들 한 너덧 명한테 일렀습니다. 매일같이 거기 가서 고스톱을 좀 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보살행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노냥 고스톱을 하니까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한 달이 가두 달이 가 석 달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딛기 시작을 하는데 이 뒤꿈치도 다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쪼끔만 좀 요렇게 됐지. 그러곤 뼈가 부스러져서 모자라는 거는 그 액이 말입니다, 액이 자꾸 이렇게 붙어 가지고는 그게 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받으니까 그냥 일어선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리 아파서 못 다니지는 않아요. 미국에, 지금 L.A.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지, 자유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지만 내가 이렇게 인도하는 거는 여러분의 근기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그렇게 해 나가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자기 스스로 원력이 생겨서 "아이고, 스님! 스님!" 하고는 그냥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왜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허허허. 아니, 지금 세상에, 까고 까고 까고 까고 이렇게 된 세상에 누가 이익이 없는데 날 찾아오고 좋다고 합니까? 아니, 밥을 먹으러 가자고 누가 그럽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돈 내버리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좋아하기는 하더라도 나를 믿지는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을 믿어라 하는 것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네 속에 가깝게 부처님이 계시다면 왜 바깥으로 부처님을 멀리 찾느냐 이겁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 마음에 있다.' 아까 노래도 하셨죠? 설법을 했더니 그거를 그냥 가사로 붙여 버렸어요, 글쎄. 그리고 지금 한마음선원에는 선법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거기에 다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법가가, 설법하는 데 이렇게 읊어 놓은 거를 다 그냥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질문자3(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 말씀 중에 '공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선하던 중에 아무 생각도 없는 적막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적막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무심의 상태하고 공에 빠진 상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큰스님 무심은 그냥 일을 하면서도 무심이지만, 공에 빠진 상태는 바로 이 내면세계의 노예가 되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러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어디? 공에 빠지면. 그러니까 안에도 속지 말고 바깥에도 속지 말라 하는 뜻은, 그래서 길잡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발견했다 하면 둘이 아닌 도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타의에서도 나를 괜히 으르릉거리고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을 하고요. 또 자의에서도 괜히 화가 나고요, 괜히 하나를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 나고요. 그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하, 이것이 거기서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러는구나!' 하고 거기다 다시 뭉쳐 놔야 될 텐데, 바깥으로 에이그, 저것이 그냥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떠니 저떠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길길이 뛰게 되죠, 아주. 분하게 되고 그냥 이거는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되죠. 안으로는 그렇고, 바깥으로 또 끄달려서 그렇게 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만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무기공에 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 움죽거리고 살면서 생활에서 그냥 그게 참선인 줄 모르고 아주 생활까지도 버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 그게 바로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생활 하나하나 하는 게,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하는 게 그대로 좌선이며, 좌선은 모든 걸 맡기고 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을 좌선이라 하고, 뛰고 앉고 서고 자고 하는 게 전부 참선이라 합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십시오.

> 내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켰으니까
> 내 주인공만이 내 무명을 벗기고, 아프지 않고
> 그렇게 그냥 무명을 벗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말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재주가 훌륭해서 여러분의 그 재료를 내가 가지고선 다 해결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애고, 그 괴로움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하시면서 지극한 정성과, 즉 말하자면 보이는 데서도 정성, 안 보이는 데서도 내 마음으로 정성, 항상 거기 놓고 그렇게 가고 그러면 훌륭한 자기 자력이 되고 또 식구들의 제삼자 하나하나가 바로 걷혀 들어갑니다. 모든 업과 모든 병과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어떤 때는 그럽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고, 다들 뭐 수정과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성이라 하는 것이 그 마음입니다. 나를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정성입니다. 자기입니다. 나를, 이 고깃덩어릴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런 정성이라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하나가 남 주는 게 아니고, 꽃 한 송이 갖다 꽂아 놓는 것도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겁니다. 자기 거기 때문에 하나 해 놓는 데 자기가 그 백분지 일이 없어지고 또 하나 하는 데에 또 없어지고, 하나 하는 데에 또 떨어지고 이렇게 왜, 봄이 되면 고드름 조금조금 떨어지는 거 있죠? 아주 얼어붙은 게 조금조금 떨어져서 녹아요. 그렇게 봄이 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거는 장담하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점이요.

질문자4(남) 스님,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신도들이 마음공부를 계속하다가요, 다 깨치기 전에 옷을 벗고 다음 생으로 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큰스님 그거 한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주인공이 나를 형성시켰으니까 내 주인공만이 내 무명을 벗기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무명을 벗고 가게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실험도 안 해 보고 날 가지고 뻔히 쳐다보고 '저 이가 미쳤잖아?'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험을 하시면서 경험을 얻고 체험을 얻고 이렇게 가정에서 하시는 겁니다. 뭐, 내가 무슨 장사꾼인 줄 아십니까?

하여튼, 그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 한번 할까요? 두 친구가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일주일 일주일 장이 서죠. 그래서 일주일 장을 볼 양으로 두 친구가 갔는데 아,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아이, 사기꾼이 말만 잘해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참 이 세상의 왕 같구나. 참 저 사람은, 내가 저 소릴 들으니까 정말이지 저 부처님을 잊을 수가 없구나.' 감동이 돼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한 사람은 술을 잔뜩 먹고 길에 쓰러졌어요, 주막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보니까, 새벽이면 옛날에는 우마차가 그냥 백 대 이백 대 이렇게 막 갔거든요. 그냥 거기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글쎄, 그 동네에서 그 둘이 장사를 하러 나왔다가 어떻게 혼자만 들어갑니까? 그 친구는 홀어머니가 계신데.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옷감을 산 보따리를 짊어진 채 강을 건너서 딴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자마자 보니까 그냥 양면으로 좌악 사람들이 서 가지고 인군을 뽑는 날이더랍니다.

그런데 인군을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인군을 태워 가지고 다니는 말 있죠? 말이 인군을 뽑는 겁니다. 그냥 금으로 금테두리를 하고 그럭하고선 말이 척 나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앞에 가도 탁 뿌리치고 뿌리치고 뿌리치고 이럭하고선 나오더니, 보따리 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앞에 이렇게 놓더니만 궁둥이를 탁 댄 거예요, 타라고. 이 다리를 꾸부리고 앉아서. 그러니깐 그 보따리 멘 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타려도 안 되고 그러더니 그 사람을 타라고 떡 올려놓으니까 착 일어나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궁으로. 그래서 인군이 됐어요.

그 생각하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한다면 자기는 망하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을 더불어 같이 이익 하게 생각을 하세요. 꿈을 꾸고도 이익 하게 생각하시고요. 생시에도 이익 한 생각을 하시고. 자식들한테도 함부로 욕하지 마시고 남편한테도 함부로 "망해라. 뭐 네가…." 싸움하고는 뭐 별소릴 다 합디다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그렇게 그냥, 그냥그냥 재깍재깍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진짜 사랑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주인공에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낯으로 이렇게 한다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그대로 간다면 이 세계에 아마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칠 겁니다. 그리고 한인 회관이 빛이 날 겁니다. 그뿐입니까? 불교인들이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될 겁니다. 아니, 불교인뿐만 아니죠. 기독교고 가톨릭교고 한국인들은 전부 한마음이 될 겁니다, 아마. 아니,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왜 갈라집니까, 한인들이? 아니, 그건 그것대로 믿고 이건 이것대로 자유지, 믿으면서도 마음은 왜 그렇게 갈라집니까, 또? 이상하잖아, 요상하고. 난 참 이상하고 요상해요. 그러면 인제 그만 끝내도 될까요?

여러분! 인제요, 꼭 명심하시고 모든 것에 아무리 아는 게 많으시다 하더라도,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하, 나는 관리인밖에 안 되는구나. 내 주인공의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돈이 한만히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이게 내 돈이라고 한다면 그저 쓸 데 안 쓸 데 그냥 자꾸 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쯤 아세요.

※위 법문은 1991년 3월 17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
(영화평론가)

영화 〈귀향〉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는 공허한 현대인의 마음을 채워주는 강한 주체의식 때문이라 본다.

소설가 토머스 울프의 작품 이름에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제목이 있다. 정신대에 끌려갔던 꽃다운 조선소녀들은 두고 온 고향에 다시 못 간다. 대신 그들은 더 큰 자각을 한다. 내가 태어난 고향엔 못 가지만 영원한 마음의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마음의 고향이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하다. 영화 〈귀향〉은 역사와 인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묻는다. 그래서 제목도 귀향(歸鄕)이 아니고 귀향(鬼鄕)이다. 영혼이 고향을 돌아간다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이 영화가 머금고 있는 근본 문제의식이다. 정신대에 끌려간 조선소녀들은 처참하게 찢기고 마침내 짧은 인생을 마감한다. 일제의 만행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관객들에게 거꾸로 피가 솟게 만든다. 이 영화는 일제의 폭압에 대해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억울하게 죽는다면 그 영혼이 차마 극락에 갈 수 있겠는가. 영화 속에서 소녀들은 지옥에서 살고 죽었다. 이 영화는 그들을 애도하고 묵념한다. 분노를 삭이면서 우주의 근본 가르침을 찬찬히 짚어보게 한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영화는 한 위안부 할머니의 현재 모습에서부터 시작하여 과거를 넘나든다.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현재와 과거를 잇는 두 개의 장치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어머니가 딸의 신변을 걱정하여 만들어준 괴불노리개이고 죽은 소녀들의 영혼처럼 등장하는 나비다. 이 둘은 영화의 은유적 기능을 해준다. 괴불노리개의 소유자는 현재의 위안부 할머니지만 그건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언니의 마지막 유품이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대신 죽은 것 같은 언니의 영혼을 추모한다.

나비는 산 자와 죽은 자 곁을 넘나들고 조선의 산천을 자유롭게 떠돈다. 나비는 자유를 상징한다. 이 영화에서 나비는 마치 장자의 나비를 연상케 한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서 장자가 된 것인지.

위안부 할머니 현재 · 과거 다뤄
일제 폭압 대한 분노 반영해
역사 반복되지 않는 염원 담아

〈장자〉에서는 장자와 나비가 분명 다른 존재라고 말한다. 그것을 물화(物化)라 했다. 물화는 경계가 있는 세상의 이치다. 하지만 물화가 분명치 않은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다. 영화는 삶과 죽음 두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죽음을 극복하고자 한다.

현재와 과거를 잇는 장치로 진도 씻김굿이 등장한다. 할머니는 굿을 통해 과거를 만난다. 무속을 통해 과거와 현재는 이어져 있다. 무속은 일제가 그토록 없애고자 했지만 없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민간전통의식이다. 한국인이 조선소녀의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되는 것이 무속의 세계를 통해서라는 설정은 흥미롭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영화는 죽음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설명한다.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 죽은 사람들을 등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등등의 의미다. 우리 할머니들의 역사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스며있다. 영화는 과거 선조들의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며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염원으로 되살아난다.

인간으로서 공감되는 사연을 담았기에 귀향이 주는 울림은 강하다.

사부대중 칼럼

고대 인도로부터의 한 교훈



조성택
고려대 교수

다원성은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다양한 문화, 종교, 가치관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객관적 척도나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객관'이란 관점 자체가 일종의 '폭력'일 수 있다. 다원성을 실천하고자하는 다원주의는 단순히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인식론적 관점이 아니라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실천 명제이기도 하다.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를 상대적 진리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원주의라 해도 모두 동일한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원주의적 태도에는 하나의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하여 다양한 색채로 분광되는 현상을 다종교적 상황에 대한 비유로 활용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한 관용과 인정이다. 따라서 다원주의는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실천적 덕목이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종교적 상황은 비단 현대사회만의 특징은 아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사회도 다종교 사회였다.

초기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시하장군의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바이샬리의 한 자이나교도인 시하 장군이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조금은 의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난다. 부처님과의 토론 끝에 시하장군은 불교로 개종하고자 결심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절을 한다. 거절의 이유는 시하장군이 자이나교의 큰 후원자였기 때문에 그가 불교로 개종을 할 경우 자이나교가 입을 사회적 경제적 타격 때문이었다. 몇 번의 거절 끝에 부처님은 시하장군이 계속 자이나교 승려들과 재가자들을 잘 대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것을 다짐받고서 그의 개종을 허락한다.

불교의 입장에서 자이나교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외도(外道)의 종교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도들을 없애고자한 것이 아니라 외도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를 넘어 보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다.

'객관'도 일종의 '폭력'
다원주의는 현대사회 명제
종교간 상호이해 · 공존 필요

고대 인도의 다종교 상황은 부처님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아쇼카 왕의 제12석주의 비문은 오늘날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와 공존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열렬한 불교도로 잘 알려진 아쇼카 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교로의 개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의 상호 이해와 공존이었다.

그 비문의 내용을 현대적 어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 아쇼카왕은) 모든 종교의 신자들, 그들이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모두를 존경합니다. 각 종교마다 기본 교리는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종교는 자랑하고 남의 종교를 비판하는 일은 삼가야합니다.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이건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조화가 최선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게 되고 진리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쇼카왕의 모습에서 현재 다종교적인 상황에 대한 해법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위 칼럼은 3월 2일자 화쟁아카데미 제27호 화쟁시민칼럼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社說

법륜사 주지선출로 재점화된 내홍

총무원장이 구속되는 등 초유의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이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총무원 청사에 위치한 법륜사 주지 선출을 두고서다. 불이성 법륜사로도 불리는 법륜사(法輪寺)는 유서깊은 태고종의 대표적 공찰이다.

이 곳은 일제 강점기인 1929년에 박대륜 스님이 개설한 금강산 유점사의 경성포교당으로 출발했다. 불이성 법륜사라는 이름은 유점사와 법륜사는 둘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그래서 법륜사는 불교의 근대식 포교가 시작된 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법륜사는 한국불교 최초의 근대화된 포교당이자 대승교화의 효시로 평가 받는다. 1950년대에 대처승과 비구승의 격렬한 대립이 있은 후 조계사서 밀려난 대처승 측 거점이었고, 이들이 1970년 한국불교태고종을 창립할 때도 박대륜 스님이 태고종 초대 종정에 오르며 종단의 본거지로 삼기도 했다.

태고종에서는 종단 창종의 산실인 불이성 법륜사를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법맥 계승의 의미가 있다며 특별히 여기고 있다. 이를 계승하기 위해 태고종은 2006년 법륜사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건물을 지었으며 법륜사는 이 건물 지상 3층에 자리잡고 있다.

법륜사의 주지는 대륜문도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런데 이사회가 성원이 안된 유령 이사회라는 주장과 멸빈된 이사들은 자격이 없어 그들이 선출한 주지도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이번에도 쉽사리 갈등이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제 곧 봄이 도래하는데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태고종에는 언제나 봄소식이 들려올까?

끊임없는 변신 필요한 템플스테이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21만943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3월 3일 발표한 '2015 템플스테이 참가자 통계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는 2014년 대비 약 13.5%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내 템플스테이 참가자가 10%이상 증가한 해는 없었던 것에 비춰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메르스 여파에도 템플스테이가 이처럼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관광주간'에 맞춰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인 게 주 원인이다.

여름휴가기간인 8월을 제외하고, 관광주간이었던 5 · 10월은 다른 달에 비해 참가자가 2~3배가량 많았다. 당시 문화사업단은 1만원으로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는 '행복만원 템플스테이'를 적극적으로 실시, 열흘 만에 매진되는 호황을 누렸다. 진입 문턱을 낮추고 참가자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번 만족도 조사(7995명 대상)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문은 '인력(서비스 및 응대 태도)'이다. '프로그램'은 7개 부문 중 6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그만큼 일선 현장에서 템플스테이를 보급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열의가 크다는 뜻이지만 참가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최근 템플스테이는 웹드라마의 주요 배경이 되거나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입지를 다졌다. 대중과 꾸준히 호흡할 수 있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변화 없는 발전이 있을 리 만무하다. 이제는 템플스테이에 '가치'를 담아 내실을 기할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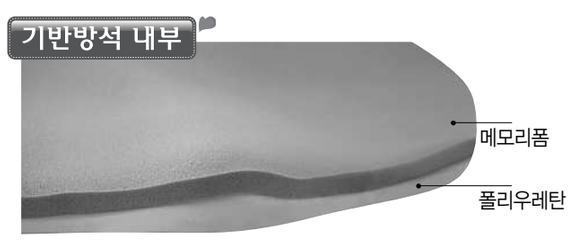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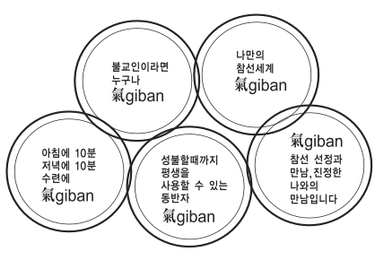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이 시대의 화제의 인물, 세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어야 한다.

2016년 붉은 원숭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

소원성취, 氣 효험 입소문 하루에도 수 십명 찾아와..

매년 100회 이상 (氣, 역학) 전국 순회강연
뜨거운 찬사, 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의
숨겨진 비밀은..

NAVER 검색창에 만녕스님 을 쳐보세요

| 만녕스님 친견 인생상담 접수중 |



황금 복 돼지를 그리시는 만녕스님

정월 초하루 새벽 팔공산 갓바위 공기는 차고 매서웠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어김없이 갓바위로 신년기도에 들어가는 만녕스님 여느 해와 다름없이 108배를 올리고 무상의 경지에 들은 스님에게 갑자기 무아의 경지에 빠져드는 현몽을 꾸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세상이 온통 황금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더니 금의를 입은 부처님의 형상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앉아계셨다. 그 부처님 사이로 금빛이 유별나게 빛나는 황금 복돼지 두마리가 달려와서는 스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었다. 그 현몽을 하고나니 날아가고픈 맑아진 영혼을 느끼며 사찰로 돌아온 스님은 매일 해오던 냉수마찰로 몸을 씻은 후 갑자기 붓을 들었다. 현몽에 보았던 황금 복 돼지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돼지 그림이라고는 처음 그려보는 데도 현몽에서 본 돼지 모양이 똑같이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사주에 따라 그려지는 ..

그때 마침 달마도 한 점을 모셔가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서 광학렌즈사업을 하시는 중년 보살님 한 분이 정해년 첫 손님으로 아침일찍 송곡사에 찾아오셨다. 달마도를 모셔가기 위해 찾아온 보살님에게 달마도는 그려 드리지 않고 그리고 있던 돼지 그림을 한 번 모셔가 보십시오 하고 돼지 그림을 드렸다. 그런데 보살님은 이 돼지 그림이 달마도 인줄 알고 두말 않고 가져 가서는 아들 방 머리맡에 걸어두고 다음날 돼지 그림인 줄 알았지만 마흔 두 살 먹은 큰 아들이 십년동안 선을 약 5~60번 보았는 데도 결혼 성사를 시키지 못 하였는데 이 그림을 걸고 보름만에 성사가 이루어 지는 것 이었다. 이 소문을 듣고 노처녀 노총각을 둔 부모님들이 하루 에도 수십명씩 돼지그림을 모셔가기 위해 찾아오는 것 이었다.

대전의 모 젊은 보살님은 시집 장가 못 가서 찾아 오신게 아니고 남편이 공사장에 막노동을 하시는데 하루는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병원을 찾아가 보았으나 특별히 부러진데 다친데 진단이 나오지 않아 열흘동안 집에 누워 계시는데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가져다 걸고 이틀만에 멀쩡하게 일어나서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다.

대구 경산에서 삽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처사분은 식당운영이 되지 않아 식당을 정리하고 전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돼지 그림 한점을 식당에 걸자 팔려고 하던 식당에 손님이 넘쳐나 옆 가게까지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 시켰다고 한다.

부산 동래 온천동에 계신 보살님은 오년전에 지인에게 돈 삼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소식도 끊어지고 돈 받을 길이 없어 화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모셔놓고 열흘만에 돈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고맙다는 답례로 문안전화가 자주 온다고 한다. 위 사례 외에도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번창, 입찰 및 여러 사례의 감사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원력

만녕스님은 원래 달마도 백호도, 같은 기화로 명성이 높았는데 황금 복 돼지를 줄곧 몇 년 동안 고집하여 그리시는 이유는 그려가신 분 마다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효험의 소문을 듣고 하루에도 수십명씩 찾아오니 계속 그릴 수 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중생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관용과 가피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그리실거라고 하신다. 사주 (생년, 월, 일, 시)가 스님의 머리속에 입력이 되면 혼이 담긴 한 점 한 점의 작품이 사주 따라 붓끝이 움직여 그려지는 것은 바로 갓바위에서 현몽해 주신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려 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 053-657-0108

대구 수성구 황금동 773-2 송곡사

www.songgoksa.com